기도

엘렌 G. 화이트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orean

저작권 © 2020.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해당 저작권법이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또는 기타 형식 또는 수단으로.

본 책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가 보유합니다. 복사, 녹음, 정보 저장,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편집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본 책의의 어떤 부분도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출판 데이터의 카탈로그

편집 및 디자인: 뉴 언약 국제 간행물

영국에서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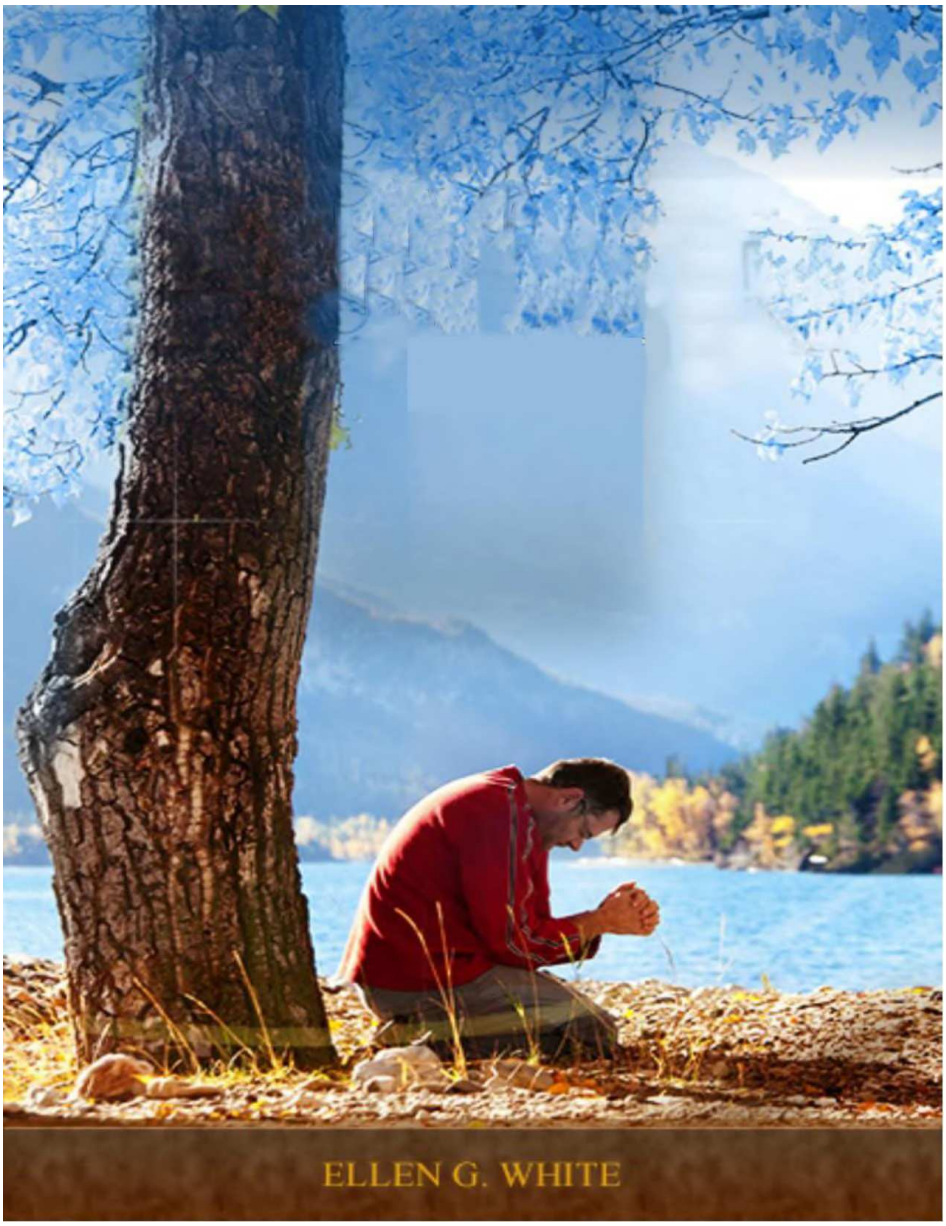
최초 인쇄 2020 년 5 월 26 일

게시됨: 뉴 언약 국제 간행물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웹 사이트 방문 : www.newcovenant.co.uk

기도



사단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지智 等의)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민하는 영혼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찾고 있다. 겸손한 성도에 의해 하늘로 올리우는 호소는 장식장의 신조나 왕의 명령보다 사단을 더 두렵게 한다....

27 장

기도

엘렌 지 화이트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Email: newcovenantpublicationsintl@gmail.com

헌정의 글

하나님께 바쳐진

서문

새 언약 출판물 국제 하늘과 땅을 바인딩 신성한 계획과 사랑의 법의 영속을 강화와 독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언약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의 중심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사실,새 언약은 구속에 증명,줄어들지 않은 투쟁에 의해 탄생과 혈액에 의해 밀봉.

수많은 세기 동안,많은 견디고 마모에 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의 계산을 없애는 진리입니다. 특히 암흑 시대에,빛이 있었다 크게는 궁지에 몰린과에 의해 가려는 인간의 전통과 인기있는 무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계는 지혜를 멸시하고 배반하의 언약입니다. 대재앙의와 타협을 방지할 자극 악 이러한 재앙의 무한 퇴화 및 악마 같은 비인간적에는 많은 생명을 희생을 부당하게 거부,항복하심이 있으. 그럼에도 불구하고,잃어버린 지식은 특히 개혁의 시간 동안,부활했다.

16 세기의 개혁 시대는 반 개혁에 반영 된 진리,근본적인 변화 및 결과적 난류의 순간을 촉발 시켰습니다. 그러나,이를 통해 볼륨,하나의 재발견 명백한 의미의 이 유일한 혁명의 관점에서 본 개혁자 및 다른 용감한 개척자. 자신의 계정에서,하나는 황폐 한 전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놀라운 저항과 초자연적 인 개입의 기본 이유.

우리의 모토:"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은 중요한 시대와 그 영향으로 구성된 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 개혁,부활과 변화의 긴급 공감. 으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결합에 의해 기관의 번역,전파의 원리,개혁 신앙을 약 500 년 전,디지털 압박과 온라인 미디어 통신 것이라 모든 언어로 진리의 빛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간.

기도

기도

목차

1 장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6
2 장 기도의 필요성 15
3 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29
4 장 기도와 영혼 구원 34
5 장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40
6 장 믿음의 기도 45
7 장 기도와 순종 55
8 장 효과적인 기도 60
9 장 기도의 능력 71
10 장 기도하는 이유 78
11 장 응답받은 기도 84
12 장 기도와 부흥 103
13 장 기도하는 남녀 108
14 장 매일의 기도 136
15 장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모본 146
16 장 개인적인 기도 155
17 장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165
18 장 기도와 예배 172
19 장 기도하는 태도 180
20 장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189
21 장 기도를 통한 거룩한 안내 194

22 장 병자를 위한 기도 199
23 장 용서를 위한 기도 208
24 장 중보 기도 213
25 장 천사와 기도 220
26 장 허위 기도 226
27 장 사단과 기도 233
28 장 마지막 날의 기도 239
29 장 기도의 특권* 245
30 장 주 기도문* 254
31 장 주기 위하여 구함* 268
32 장 믿음과 기도* 278

기도

1 장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됨 -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아무 가치 없는 흠 많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 상달할 말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우편에 있노라"(시 16:8 참고)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 삼아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 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바 된다.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기를 구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 필요는 경우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독한 때와 피로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의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해 응답된다.(복음교역자, 258)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라고 초청하신다. -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며,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시는 분께 우리 영혼의 짐을 모두 맡길 수 있는 특권을 베푸셨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강건케 하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행하고자 하신다.(의료봉사,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시대의 소망, 329)

당신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말하라. - 귀중한 기도의 특권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알려야 한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은 물론이요 우리의 작은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써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낄 때, 사단은 그의 시험을 개입시킬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선량하고 동정 깊은 친구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는 심사숙고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우리의 막연한(막역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안심하고 알릴 수 있다.(교회증언 5 권, 200-201)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것 -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 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보증도 된다.(정로의 계단, 93) .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현실로 영접하신다. - 우리는 특별한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알현실로 영접해 드리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을 따른 최초의 제자들은 그분과 길가에서 몇 마디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은 뒤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요한복음 1 장 38, 39 절)했다. 이와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더없이 밀접한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시편 91 편 1 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자비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서, 주여,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주장하게 하라.(산상보훈, 131)

고귀한 특권 - 곤란 중에 있을 때, 맹렬한 유혹이 공격해 올 때, 그들[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가! 먼지와 재에서 나온 유한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여 가장 높은 알현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같은 훈련으로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신성한 곳에 가까이 이끌려지고 지식 안에서, 진실한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고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여 요새화된다.(An appeal to Mothers, 24)

기도는 영적인 필요임과 동시에 특권이다. -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한 자들은 저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를 밝히 깨닫지 못하였다. (중간생략)저들은 기도와 회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긴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려뽑은 기별 1 권, 134)

기도는 우리를 그분의 임재의 햇빛 속에 살게 한다. -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광채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나의 형제, 자매는 밝은 쪽으로 향한다. 향상되고 재생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로 들어가라. 그대의 믿음을 강하고 순결하고 확고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대의 마음을 채우게 하라. 그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그 날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들의 유혹에 맞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대의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 달라고, 또한 그대가 구속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라.(Sons and Daughters of God, 199)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지치게 하지 못한다. -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써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不純)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 문을 열어 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늘과 간단없는 교통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견해(見解)와 영원한 실재(實在)에 대한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결함의 미(美)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인바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사물의 계시를 받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살므로써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약 5:11).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 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過大)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중간생략)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정로의 계단, 99-100)

하늘을 미리 맛봄 - 그대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라.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명상하라. 그대가 그분의 자아 부정을 묵상할 때 그분의 무한한 희생이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우리의 행동 속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와 묘사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넘쳐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가 기도로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사랑의 구속주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그분의 품성이 더욱더 사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풍부한 잔치를 즐길 것이며 우리가 양자로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기도 안으로 영혼을 끌어 당겨 우리에게 그분의 귀중한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다.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있어 그분과 감미로운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부드러움과 연민의 분명한 관점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묵상으로 깨어지고 녹아질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영혼 안에서 변치 않는 그리스도를 느낄 것이다. . . 우리의 평화는 강과 같이 영광의 물결 뒤에 물결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고 참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우리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쉰다. 어떤 언어로도 그것을 묘사할 수 없고 그것은 지식 저너머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SDA Bible Commentary, vol.3, 1147, 1148)

기도는 영적 삶에 새로움을 가져온다. -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儉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실물교훈, 129-130)

항상 열려 있는 피할 장소 -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있다. 그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으나 그대의 조용한 탄원은 능력과 지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시험 받을 때 그대가 그렇게 하듯이, 가장 높은 비밀의 장소로 피할 수 있다. 그분의 영원한 팔이 그대를 두를 것이다.(In Heavenly Places, 86)

영적 능력의 비밀 -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 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아무 가치 없는 흠 많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은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과 이야기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우편에 있노라"고 말씀하신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250)

신앙의 생명인 은밀한 기도 -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그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영혼의 순결을 위하여 간구하라. 마치 그대들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놓인 것처럼 간절하고 열렬하게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원이 생길 때까지, 또한 죄의 용서를 받은 귀중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교회증언 1 권, 163)(Spiritual Gifts, bk.2, 264)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들으시는바 된다. -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財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요 16:24)다고 말씀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끼쳐 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하신다.(시대의 소망, 667)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며 그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아침에 일어날 때, 그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리하여 그대는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그대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들은 그대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발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를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가 부지중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 그대 편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며, 그대를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고, 유혹을 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틀림없이 곁길로 나아갈 것이요, 그대의 의무 태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표시되어, 심판날에 그대는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교회증언 3 권, 363-364)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길 수 있다. - 세상을 창조하고 산들을 각각의 자리에서 붙들고 있는 그 손이 흙으로 된 이 사람, 이 강한 믿음의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이 그의 앞으로 지나가는 동안 반석 틈에 있는 그를 덮으신다. 모세의 얼굴을 너무도 밝게 했으므로 사람들이 그 빛을 쳐다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고, 그를 보좌에서 나온 빛나는 천사들 중 하나처럼 만들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경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한다는 보증은, 애굽의 학문이나 군사, 과학에서의 그의 모든 학식보다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더욱 가치가 있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모세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 수 있다.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처럼 무서운 위엄 가운데 선포된 그 율법의 창시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이 그의 창조자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 놓는 것이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간구자는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 귀중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4 권, 533)

거룩한 담대함을 위한 기도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그대가 기도할 때 이 허락을 제시하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신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새자녀 지도법,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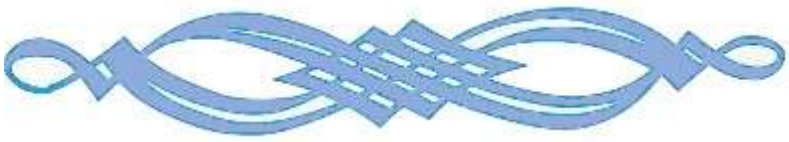
하늘은 우리의 탄원에 문을 열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히 4:16)오라는 초청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구한 바로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왔다.(Signs of the Times, April 18, 1892)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 주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제시해 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뢸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물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할 수 있다.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그대를 초청하신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산상보훈, 133)

구하고 믿으라. - 그대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대가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대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라.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오직 구하기만 하면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이다. 그대는 마치 영원한 팔에 안겨 있는 것처럼 높이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빛으로 그대는 그대가 전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치료봉사, 514)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에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그 산 믿음을 갖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 주께서 길을 예비해 주실 때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려운 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는 기도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다. 이 마지막 날에 따르는 어려운 경험을 아직 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을 혹독하게 시험할 장면들을 미구에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군대가 있어서 전진할 길이 보이지 않는 때이다. 이와 같이 그분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경험이 그대들에게 다가올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전진하라.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라. 시련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전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 줄 것이고 가장 진실한 봉사를 하기에 적합하게 해 줄 것이다.(교회증언 9 권, 273)



2 장 기도의 필요성

기도는 날마다 먹는 음식처럼 생명에 필수적이다. -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 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매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5)

기도는 영적인 필요이다.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도의 필요성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한다.(Gospel workers 1895, 371)

그들[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항상 매우 평온하고 위엄이 있으신 저희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투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었다. 고통하는 자의 힘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시대의 소망, 688)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제자들의 경험에는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있다... 그들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주의와 열심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빨리 잠든다. 그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위험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언급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주 읽고 주의깊게 연구하자.(In Heavenly Places, 97)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교육, 258)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 - 영적인 생명이 영혼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매일 여러 번씩 귀중한, 금같은 순간들이 기도하는 일과, 그것이 단순히 성경절을 암송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 연구를 하는 일을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 사업의 여러 다양한 관심사들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자료와 기도할 영감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인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며, 오로지 여기에서만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매우 필요되는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얻을 수 있다.(교회증언 4 권, 459)

그리스도의 모본은 기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만일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책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열렬한 기도의 필요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본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 그늘진 나무들 사이에서 온 밤을 기도로 보내곤 하셨다. 그 자신에게 죄의 얼룩이 없었던—축복의 보고,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밤 사경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신—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분께서 구원하러 오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분은 탄원자가 되어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서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하고, 인류의 대리인으로서 새롭게 되어 활기를 얻어서 나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고통중에 있는 인간과 동일시하셨고, 기도의 필요에 대한 하나의 모본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분의 본성은 죄의 흔적이 없었다. 그분은 인자로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사람이 의무에 성실하고 시련에 대하여 준비하기 위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인간의 본성이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생명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셨고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승리하셨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눈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들을 위해 통곡하신 이 구주께서는, 당신이 지상에서 위하여 기도하셨던 자들의 간구를 받아서 아버지께 제시하기 위하여 지금 보좌 앞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다. 기도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뿌리는 씨를 증가시킬 수 있다.(교회증언 4 권, 528-529)(Gospel Workers 1892, 28, 29)

예수께서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신다. -주님께서는 기도, 회개 및 자복의 필요와 죄에 대한 포기(抛棄)를 권고하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정직, 인내, 자비 및 동정심을 가르치셨고 저들을 사랑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저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분부하셨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려 하셨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9-30)(Christian Education, 74)

다니엘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엄습할 수 있는 가장 흑독한 시련을 직면하였다.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적 교훈에 충실하였다. 그는 원칙과 기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흠없는 품성의 소유자로 나타내었다.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성화된 생애, 20)(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78)

영적 향상은 기도에 달려있다. - 만약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다면, 경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지식에서 현재 있는 곳보다 더 멀리 진보했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깊고 개인적인 애정과 영혼 경험이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는지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 안에서 산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당신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판단해 보았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명백하게 조화되지 않는, 정확하지 않은 경험으로 보인다.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을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말씀 안에 약속된 믿음을 전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빛과 능력 안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다.(Review and Herald, July 1, 1909)

날마다 필요한 기도 - 신앙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고 매일의 기도로 양육되어야 한다.(교회증언 4 권, 535)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하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 성장의 기초이다. 그대의 가정에서 가족과 마주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그대는 이 진리를 입증해야 한다. 그대가 교회에서 그대의 형제들을 만날 특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있는 통신의 주파수를 열어 놓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라. 만약 그들이 기도할 심령과 음성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들에게 신앙의 의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라.

형제들에게 기도하도록 권고하라. 찾고자 한다면 구해야 하고, 받으려 한다면 요구해야 하며, 우리에게 문이 열려질 수 있다면 두드려야 한다.(Signs of the Times, February 10, 1890)

유대인의 성소 봉사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 기도를 떠올린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공로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들의 기도가 섞인 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필요는 계속적이다. 날마다, 아침저녁마다 겸손한 마음은 은혜와 평화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분에게 기도드릴 필요가 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히 13:15-16) (SDA Bible Commentary, vol.6, 1078)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써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비쳐 나와야 한다. 사랑이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사려깊은 친절과 너그럽고 이기심 없는 예절 가운데 나타남으로 가정의 모든 상호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한다. 이 원칙이 실천되는 가정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참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있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조석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분의 긍휼과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간구자들에게 내려온다.(부조와 선지자, 144)

그분의 임재로 그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그분께서 그대들의 동기를 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매 발걸음마다 그대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고 겸손히 묻게 될 것이다. 아침과 저녁에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가 그분의 축복과 지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진실한 기도는 전능하신 분을 붙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무릎에서 유혹을 저항할 힘을 얻는다.(교회증언 4 권, 615-616)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 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부조와 선지자, 353-354)

기도는 우리를 하늘로 연결한다. -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에, 또한 성경 연구에 바치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욕망,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의식 등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순결과 빛과 사랑과 하늘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무한하신 분 앞으로 나올 거룩한 담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영광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그들은 또한 이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앎으로써 세련되고, 고상하고, 숭고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교회증언 5 권, 112-113)

하루의 첫 번째 할 일이 되어야 하는 기도 -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정로의 계단, 70)

아침에 영혼의 가장 먼저 내쉬는 숨은 예수님의 임재를 위해서야 한다. "나 없이는" 그분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그분을 필요로 한다. 태양이 경치를 밝게 하며 세상을 빛으로 채우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 심령과 마음의 방을 비춰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빛이 되도록 우리는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 그분의 임재 없이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원수는 우리 주님 없이 우리가 일을 수행하려 할 때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확고함에서 떨어지도록 그의 악한 제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준비하며 그곳에 있다. 그러나 순간 순간 그분 안에 머물러 그분 안에서 완전해 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다.(My Life Today,

기도는 의무이다. -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런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치료봉사, 251)

우리가 가장 적게 기도할 필요를 느낄 때조차도 가장 필요한 기도 -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가장 많이 기도하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덫을 깨뜨릴 것이며 어둠의 구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감미로운 임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Lift Him Up, 372)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지智 等의)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정로의 계단, 93-95)

기도를 간과하는 것을 피하라. 증상을 주의하라.(교회증언 4 권, 124)

그대들은 분주한 생활의 활동 때문에 기도가 줄 수 있는 힘이 가장 필요한 때에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경건은, 사업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 심령에서 쫓겨 나갈 위험을 당하고 있다. 그대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는 힘과 하늘의 지혜를 심령에서 속여 빼앗는 것은 큰 악이다. 그대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조명이 필요하다. 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의 사업을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교회증언 5 권, 560)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기만한다. - 성경을 열렬하게 탐구하여 생애의 모든 욕망과 목적을 그 분명한 시금석에 굴복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길에서 떠나가고,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5 권, 192)

유혹은 기도할 필수적인 일로 만든다. - 사려 깊이 생각하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적 노력과 연합된,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서 습득된 능력은 그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아무리 모진 환경 아래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시켜 준다.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들은 기도를 필수적인 일로 만든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갈망들이 도움과 빛과 능력과 지식을 달라는, 말없는 기도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생각과 기도는 시간을 진지하게,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일과 기도,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 품성을 온전케 하는 데 필요된다.

우리는 이중 생활, 즉 생각과 행동의 생활, 조용한 기도와 열렬하게 일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중간 생략)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산 편지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그 능력, 그 지지,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드높은 행동의 목적 그리고 의에 대한 끊임없는 주림과 목마름을 갖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4 권, 459-460)(God's Amazing Grace, 317)

초창기보다 지금 더 많은 기도가 필요된다. - 거룩한 생애에서 향상하려면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 진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가! 얼마나 자주 중보의 음성이 방에서, 헛간에서, 과수원이나 숲속에서 들렸는가. 빈번히 우리는 열렬한 기도로 여러 시간을 보내고,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을 주장했다. 때때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음성과 찬양의 노래도 들렸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창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위험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심령들은 더욱 굳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한다.(교회증언 5 권, 161-162)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라 - 우리의 기도에는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여야 한다. 우리가 구주의 사랑을 더욱 깊게 또한 더욱 넓게 깨닫고자 하면, 반드시 더욱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감동적인 설교와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이제, 만물의 종말이 가까왔다. 우리가 만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야 할 것을 자각한다면 여호와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란다.(복음교역자, 177-178)(God's Amazing Grace, 92)

기도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다. - 매일 아침 시간을 갖고 기도로써 그대들의 사업을 시작하라. 이것을 낭비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아 있을 시간이다. 이 수단을 통하여 성공과 영적 승리가 오게 될 것이다. 기계는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간구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사업은 시작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를 수 없다. 모든 교역자의 손은 주께서 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전에 힘을 얻어야 하고, 그의 마음은 순결해져야 한다.(교회증언 7 권, 194)

소수만이 기도의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밀접하게 따라가게 될 것인가!

귀중한 기도의 특권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알려야 한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은 물론이요 우리의 작은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써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낄 때, 사단은 그의 시험을 개입시킬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선량하고 동정 깊은 친구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는 심사 숙고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우리의 막연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안심하고 알릴 수 있다.(교회증언 5 권, 200-201)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된다. -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동맹하는 자들의 수와 그 세력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동맹 세력들은 진리에 대항하는 적대적인 영향력을 조성할 것이며 자칭 신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무리들은 저희 자신의 기만적인 이론들을 실행으로 옮길 것이다. 배도의 세력은 증가할 것이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딤전 4:1). 남녀들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동맹하였으나 교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절반도 각성되어 있지 않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더욱 많은 기도와 더욱 간절한 노력이 요구된다.(가려뽑은 기별 2 권, 383)

우리가 깨어서 진정으로 열렬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 선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많이 기도하며 그것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혼들을 곁길로 나가게 할 원수의 그럴듯한 술책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진리의 길과 아주 가깝게 나 있기 때문에 성결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그 길을 분간해내는 것이 아주 어렵다. 그러나 거의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은 그 길이 바른길에서 이탈한 것임을 식별할 것이다. 처음에 그 길은 분명히 바른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얼마 후에 그 길은 안전한 길, 성결과 천국으로 이끄는 길로부터 멀리 이탈했음을 보여 줄 것이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29)

날마다의 기도를 통한 승리 -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얻어 싸움과 엄숙한 인생의 현실을 견디고 마침내 개선(凱旋)할 것이다. 성실함과 마음의 평정은 깨어 기도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내력 곧 비난과 조롱과 궁핍과 곤난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않은 인내력의 모범이었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80)

승리는 열심있는 기도를 요구한다. -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보다 백 배나 더 큰 강도(强度)로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산상보훈, 142)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각시대의 대쟁투, 622)

기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라. -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라. 저들이 진정으로 의를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자신의 영혼 속에 믿음의 실체를 간직해야 한다. (중간 생략)기도하고, 믿고, 용납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아야 한다.(교회증언 6 권, 65-66)

이전에 결코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라. - 단순함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과도한 빛으로 심령이 피곤해질 때까지 예수님을 응시하라. 우리는 반쯤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쯤 믿어서는 안 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눅 11:9). 기도하라, 믿으라, 피차 간에 힘을 주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이전에 결코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라.(교회증언 7 권, 214)

기도하라. 예전에 결코 해보지 않았던 식으로 기도하여 사단의 궤계에 속지 않도록, 부주의하고, 산만하고, 헛된 정신에 자신을 빠뜨리지 않도록, 양심을 따라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도록 기도하라.(교회증언 2 권, 144)

항상 기도하라. - "항상 기도하"(눅 21:36)라. 즉 언제나 기도의 정신으로 지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5 권, 235)

더 많은 기도의 필요 - 지금 많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곧,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계속 들어올리라.(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11)

기도를 대신할 활동은 없음 -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일을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시대의 소망, 362)

인기 없는 입장을 취하는 데 필요한 기도 - 인기가 없는 편에 서기 위하여 먼저 속해 있던 대열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덕적 용기, 확고한 태도, 결심, 지구력, 많은 기도,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찾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복음 전도, 240)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도 -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행할 준비를 갖추려면 많은 기도와 가장 활기로운 정신의 발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 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차지해야 할 위치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이생에서 유용하게 쓰이기에 적합한 모든 사람은 가장 혹독한 지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을 연합시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교회증언 4 권, 611)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도 - 구속의 주제들은 중요하며,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깊이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구원의 진리들을 숙고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요 기쁨이다.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바라보는데 필수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편협한 개념들로 말미암아 매우 속박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그 경험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견해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16-21)(우리의 높은 부르심, 365)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사도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적게 이해하고 있는가 (Review and Herald, November 17, 1891)

가정에서 필요한 기도 - 의지와 성질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지 아니한다면 가정 사회에서라도 애정은 지속될 수 없다. 모든 능력과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일치시켜야만 한다. 가정에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관심을 연합시킨다면 그들은 많은 기도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들의 눈은 열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재림신도의 가정, 315-316)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도 - 기도의 연습을 간과하거나 산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편리하나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상실한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건조해지고 영적인 능력은 생명력이 없다. 신앙의 경험은 건강과 활력이 결핍된다.(Signs of the Times, July 31,

영적 힘을 위해 기도가 필요함 - 그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대들이 유일한 참 행복의 근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고자 언제나 애쓰고 있다. 그분 안에서는 희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도. 아, 이 귀중한 특권이 얼마나 등한히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도하도록 준비된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향이 그대들에게 그처럼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일으키는 매혹적인 소설을 읽음으로 그대들 스스로를 이 거룩한 일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취미가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은 잊어버린바 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분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교회증언 1 권, 504)(Review and Herald, March 11, 1880)

하늘로 가기 위해 필요한 기도 - 탐닉과 어리석음, 오락과 이기심을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하늘 문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끊임없는 주의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경계는 안전의 대가이다. 그가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사단 쪽으로 1 인치도 넘어가지 말라.(SDA Bible Commentary, vol., 6, 1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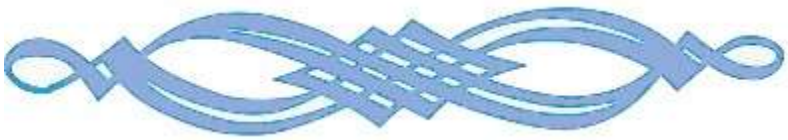
기도는 믿음을 지키게 한다. -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24p 와 중복) (정로의 계단, 95)(Review and Herald, December 8, 1904)

영혼을 위한 기도 -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면 성령이 제자들 위에 부어졌을 때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 시간도 안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할 것이다.(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537)

기도를 통하여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다. - 그들은 자신을 아는 것과 자제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깨어 있다면 그들은 시험에 의해 가장 쉽게 공격 당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약점을 알게 될 것이다. 경성과 기도로서 그들의 최약점이 강화되어 최강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 지지 않고 그것에 맞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매일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알게 되어야 한다.(교회증언 2 권, 511)

모든 환경 속에서의 기도 - 그대의 사업에 있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한 교제에 있어서, 생애의 모든 약속에 있어서, 한 말로 그대가 이루는 모든 교제는 열렬하고 겸손한 기도로 시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대가 상심될 때 기도하라. 실망 중에 있을 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앞 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라. 그대의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라. 그대의 연약한 상태에서 무한한 능력을

붙잡으라. 그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진을 위하여 기도하라.(치료봉사, 513)



3 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 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상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정로의 계단, 94)

겸손하고 신뢰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모든 장애는 극복될 것이다. 책임 있는 위치에 놓여졌을 때 실패했는가 하면, 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보다 연약한 지능을 가진 자들이 훌륭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한 반면에, 후자는 지혜가 놀라우신 분,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업에 능하신 분과 연합하였던 것이다.(교회증언 4 권,538, 539)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그분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신다(요 14:14, 12:26).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지마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치료봉사, 226-227)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권고의 말씀과 지도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복음 전도, 399)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성결로 마음을 채우신다. 품성은 끊임없이 계발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일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교회증언 9 권, 169)

나는 진정한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과, 그 기도를 드린 자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축복을 받되 그의 기대를 훨씬 초월한 축복을 받을 것을 보았다. 진실한 성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아니한다.(교회증언 1 권, 121)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찌기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흐르고 있다.(산상보훈, 105)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 -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위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려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 준다. 우리가 식별해 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가까이 있다.(시대의 소망, 356)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財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요 16:24)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끼쳐 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하신다.(시대의 소망, 667)

신실한 기도는 잃어버린바 되지 않는다. -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요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 주시는 바 된다.(실물교훈, 174) 가장 무가치하게 느끼는 그대여, 하나님께 그대의 사정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In Heavenly Places, 8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섞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다.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실물교훈, 156-157) 그분의 순종으로부터 생겨난 완전한 순종의 떨어지지 않는 자금이 있다. 하늘에서 그분의 자비와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은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로 드려지는 향기로 간주된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생명의 자비를 그것들과 섞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이 향기에 의해 향기로워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를 중재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아들(의 소리? 간구?)을 들으신다.(Sons and Daughters of God, 22)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 -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정로의 계단, 97)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고독한 때와 피로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에게 유익 되도록 응답된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0)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대화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 -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극기를 실천할 때 기별은 능력 있게 전파될 것이다. 주께서는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요 불신자들은 저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02)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그들이 누릴 승리를 얻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다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만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밤낮 그대 자신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그대의 매일의 활동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그대의 기도에 혼합시켜라.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대가 실제적인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믿음의 좁은 판도 안에서 걸어가라.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그대는 흔히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그리하여, 그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실망한다. 그대는 예수님 곧 귀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분의 공로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며, 그대를 깨끗하게 해줄 것은 그분의 피이다. 그러나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몫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교회증언 1 권, 167) .

4 장 기도와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성공에 중요한 부분인 기도 - 교회의 일원들이 사업에 잘 지시된 노력과 더 신중한 계획으로 그들이 가진 마음의 능력을 집어넣었다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배나 더 성공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열심있는 기도와 마음의 온순함과 겸손함으로 구하며, 개인적으로 구원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 기별은 지상의 주민들에게 닿았을 것이다.(Review and Herald, April 1, 1893)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고 그분께서 나의 유익과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탄원을 그분 앞에 털어놓는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로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한다.(SDA Bible Commentary, vol.3, 1146, 1147).

다른 영혼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택하여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실한 기도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하라. 그대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그리고 영혼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진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의료봉사, 245)

책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책망하는 정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하늘의 감동으로 마음을 녹임으로 그대의 노력이 결실하도록 기도하기를 게을리 말라.(교회증언 2 권, 53) 만일 여러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진지하고 계속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그들은 효과를 입증할 것이다.(Review and Herald, August 23, 1892)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간다. -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북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정은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되고,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 있고 더욱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실물교훈, 354)

자아가 죽을 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격렬한 소망-선을 행하는데 굴하지 않는 노력으로 이끄는-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물 옆으로 씨 뿌리는 일이 있을 것이며, 열렬한 탄원과 성가신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유익 편으로 하늘로 들어갈 것이다.(Gospel Workers, 1892. 470)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중간 생략)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활동할 때 그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교회증언 7 권, 22) →책엔 21 페이지로 되어있으나 정확한 출처는 22 페이지가 맞음!

교회는 완수해야 할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작은 그룹들을 지어 매일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 때에 신자들은 저들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주님의 사업은 발전될 것이다.(복음 전도, 111-112)

우리는 기도회를 소집하고, 주님께서 사단이 보좌를 놓고 있는 요새에 진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셔서 그가 속이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앞길을 막고자 드리운 그림자를 물리치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교회증언 6 권, 80)

오,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오류의 쓰레기에 묻혀있는 영혼들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가져다주소서.(This day with God, 171)

누구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 모든 사람이 몸소 외방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와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는 헌금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교회증언 6 권, 29)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기도가 큰 추수장에 있는 일꾼들과 함께 예리한 낫처럼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었는가? (교회증언 5 권, 162) →3T 라고 표시되어있으나 5T 가 맞음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영혼들과 대화를 가질 것이다.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라. 저들이 진정으로 의를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자신의 영혼 속에 믿음의 실체를 간직해야 한다.(교회증언 6 권, 65) 복음의 그물이 던져질 때 눈물과 열렬한 기도로 그물이 지켜지도록 하라. 노동의 열매를 가지고 물가로 오기까지 그물로 가지 못하게 하라.(Signs of the Times, March 16, 1882)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옹호할 수 있을까? (Review and Herald, August 23, 1892)

개인적인 영혼 구원의 노력은 기도에 의해 성공한다. - 내가 그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기까지, 나는 결코 노력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찾아내어 함께 활동하고 기도할 목적으로 모여야 할 자들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함으로 여러 날 밤을 꼬박 새웠다.(중간 생략) . 우리의 작은 집회가 열릴 때마다, 나는 각 사람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공로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권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교회증언 1 권, 33, 34)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도하려는 영혼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라. 그들을 교회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대상자로 제시하라. 교회에도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저들의 작고 사소한 어려움에서 마음을 돌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큰 부담을 느끼고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의료봉사, 244, 245)

영혼 구원에 더 큰 능률을 위하여 기도하라. - 오, 나의 형제들이여, 예수께서 마음속에 거하셔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길 바란다. 날마다 그분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며,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기별의 중요성과 범위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그대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신의 목적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영혼 구원에 있어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라.(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13-514)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확신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빛을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서 인내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도움을 얻기 위하여 열렬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라. 그대들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라.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요하신 은혜에 대한 증언이 인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라. 특별한 질문이 없는 한 그대들은 교리에 관한 문제를 증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드럽고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들과 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의를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복음 전도, 442)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 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사도행적, 36)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개개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알기 위하여 더 많은 기도가 필요된다. 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밀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많다. 주님의 사업에 아무렇게나 착수해서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예수께서는 방해자가 아니라 동역자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위대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르게 생각하는 지적인 일꾼들을 원하신다. 기술자와 법률가들과, 상인들과, 모든 직업인과 전문인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자신들을 교육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덜 지혜롭고, 그분의 사업에 종사한다고 공언하면서 활동해야 할 방법과 수단에 대해 무지해서 될 것인가? 영생을 얻는 사업은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초월한다.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만 한다. 진리의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남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중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많이 요구된다.(교회증언 4 권, 67)

영혼을 구원하는데 기도가 말만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가 있다. - 사단은 그대의 뒤를 좇고 있다. 사단은 교활한 대적이며 그대가 일을 하는 중에 당하는 나쁜 정신은 사단이 일으킨 것이다. 사단이 지배하는 자들은 그의 말에 응종한다. 만일 그들 눈에서 덮개를 없앤다면 그들은 사단이 그들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간계를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을 사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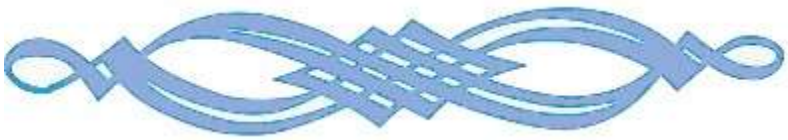
궤계에서 구출하는데 있어서 기도가 없이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한 기도로 말미암아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문전, 81)

하나님께서는 단정하고 침착하며 자제심이 있는 청년들과, 원칙으로 균형이 잘 잡히고 기도할 줄 알고 전도할 줄도 알며, 연장자 앞에서 일어서며 백발을 존경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이해력과 정신력을 갖춘 일꾼들의 결핍으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향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대들의 재능들을 끈질긴 노력으로 계발시키십시오. 연구와 관찰과 반성을 통하여 정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시오. 모든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과 간절한 기도로써 사업에 임한다면, 그대의 정신적인 기능들은 강화되고 향상될 것입니다. 단호한 목적 의식은 경이로운 일들을 성취할 것입니다. 솔직하면서도 꿋꿋하고 단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말함으로 그대들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십시오.(자서전, 275)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피흘리는 그의 옆구리로 가까이 가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그대들의 생애를 단장하라. 그대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열렬하게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그대들은 지금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은가? 젊은 남녀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대들의 행동 노선을 완전히 바꾸라. 그대들은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교회증언 1 권, 513)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산 믿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선교, 169)

"그들은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 가운데서 일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욕의 방종으로 식욕을 억제할 의지력이 없는 무력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마음 가운데 흥미가 생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 있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교회증언 6 권, 84)



5 장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친히 중보한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모든 공로를 탄원자 편에 두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탄원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감화력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탄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맙게 인정할 때, 우리의 중보에는 향기가 더해진다. 오, 누가 이 큰 자비와 사랑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 의복을 입게 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세우고 당신의 인성의 팔로는 우리를 감싸며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탄원에 힘을 더해 주기 위하여 당신의 공로를 달콤한 향기로써 우리의 손에 있는 향로에 담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51) (SDA Bible Commentary, vol.6, 1078)

성령에 의하여 유발된 단순한 기도는 열린 문을 통하여 올라갈 것이다. 열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선포한 문이다. 이 기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의 향과 섞이어 향기로써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며, 응답은 이르러 올 것이다.(교회증언 6 권, 467)

나는 진정한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과, 그 기도를 드린 자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축복을 받되 그의 기대를 훨씬 초월한 축복을 받을 것을 보았다. 진실한 성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아니한다.(교회증언 1 권, 121)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곤란에 싸여 거의 압도된 생애의 분주한 걸음 중에서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 해로와 육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큰 위험을 당했을 때에 이와 같이 자신들을 하늘의 보호에 의탁할 수 있다. 돌연한 곤란이나 위험을 당했을 때에, 당신의 충실한 신자들이 당신을 부를 때에 언제든지 저희를 도우러 오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 아래서도 슬픔이나 근심이나 맹렬히 엄습해 오는 시험으로 억눌린 영혼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확신과 지지와 구조를 찾을 수 있다.(선지자와 왕, 631-632)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각시대의 대쟁투, 525)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그분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신다(요 14:14, 12:26).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지마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치료봉사, 226-227)

그대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대가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대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라.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오직 구하기만 하면 된다.(치료봉사, 514)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부여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만 홀로 주실 수 있는 축복들로 가득 찬 하늘을 가지고 계신다.(Sons and Daughters of God, 123)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빈약한 기도를 아버지께 바치신다. -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시대의 소망, 667)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힘 - 모든 사람은 은혜의 시기 동안 이 세상에서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들이 생각과 행동의 정결함과 순결성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무력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모든 약점을 아시므로 탄원을 받으실 때 그분은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겸손히 그 능력을 간구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새자녀 지도법, 466-467)

하나님께서는 최선이라고 보시는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시므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선하시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남겨 두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수가 많으므로, 비록 정직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었을지라도,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지혜롭고 선량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이 주어진다.

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할 때에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교회증언 1 권, 120-121)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지혜를 공급하신다. -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약속을 주셨다. 책임을 진 이들이 서로 함께 자주 모여 협의하고, 그분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일이다. 연합하여 그대의 고충들을 하나님께 알리라. 적게 말하라. 전혀 빛도 가져다 주지 않는 대화에 많은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형제들은 하나님께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를 얻기 위하여 단합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99)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일지라도 이용할 수 있다. -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중간생략)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실물교훈, 206).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다.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그대가 기도할 때 이 허락을 제시하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신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반대되게 행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린 후 무릎을 펴자마자 종종 자녀들을 야단치기 시작하곤 하는 아버지를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야단친 후에 아버지가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겠는가? 아니다. 만일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복의 기도가 아닐진대 결코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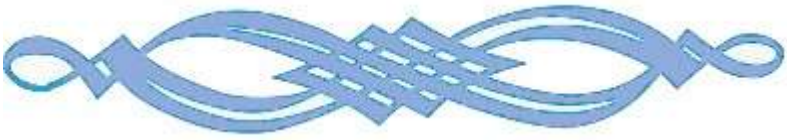
천사들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 감정에 사로잡혀 말하게 될 때에 입을 막으라. 말을 내지 말라.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 하늘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며 악한 천사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들은 그대가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치게 하고 그 사업에 누를 끼치게 하며 그대의 영혼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교회증언 2 권, 82)

천사들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 편으로 올 것이다. -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천사의 보호가 허락되어 있다. 우리들은 열렬하고 통회하는 기도로써 하늘의 조력자들이 우리편이 되도록 간구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1 권, 97)

복음은 기도의 결과로서 신속히 발전할 것이다. -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지도 아래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오늘날 그들을 위하여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가 필요하다. 책임을 진 자들의 회의에 더 많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마음의 겸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의 풍성한 증거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사업은 신속하게 발전할 것이다.(교회증언 8 권, 238)

기도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준다. -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초기문집, 46).

축복은 우리의 믿음과 균형을 이룰 것이다. -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써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를 그대들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9:29, 21:22).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히 10:23). 진실한 간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수로는 열려 있고,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 그것은 치료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와서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회복시키는 물줄기를 쏟아놓는다.(교회증언 7 권, 273-274)



6 장 믿음의 기도

기도는 죄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하늘의 방법이다. -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경험에서의 이러한 결핍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그들은 마치 소금땅과 바싹 마른 황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간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는 성화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될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은 계발될 수 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계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받으리라"이다.(사도행적, 563-56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기 갈망하신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앞으로 갖게 될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분은 그대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에게서 보다 큰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대해서도 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는 지력을 예민하게 하실 수 있으며 재치와 재주를 주실 수 있으시다. 그대의 재능을 주의 사업에 바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실물교훈, 146)

기도와 믿음은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가장 기본적 요소인 신앙의 결핍이다. 우리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실망과 유혹을 저항하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므로 우리는 생애를 즐겁게 하고 순결케 하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견고하고 건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기도와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쟁 무기가 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이 범사에 유익이 된다.(복음 전도, 489)

기도와 혼합된 믿음 -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그들이 누릴 승리를 얻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다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만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밤낮 그대 자신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그대의 매일의 활동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그대의 기도에 혼합시켜라.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대가 실제적인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믿음의 좁은 판도 안에서 걸어가라.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그대는 흔히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그리하여, 그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실망한다. 그대는 예수님 곧 귀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분의 공로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며, 그대를 깨끗하게 해줄 것은 그분의 피이다. 그러나,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몫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38 페이지 내용과 동일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지 말라. 그것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행사해야 할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나 발휘해야 한다. 믿어라. 믿어라. 그대의 믿음으로 축복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그대의 감정은 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믿음이 그대의 마음에 축복을 가져다 줌으로 그대가 그 축복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다.(교회증언 1 권, 166-167)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다. - 참 믿음과 참 기도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인간 탄원자가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곧,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다. 믿음은 우리가 주의 소유임을 시인하며 그분의 소유된 축복을 인정한다. 진리, 의, 순결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소유하게 한다. 선한 생각과 선한 포부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발달과 능률을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한다.(복음교역자, 259)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 -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써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를 그대들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9:29, 21:22).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히 10:23). 진실한 간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수로는 열려 있고,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 그것은 치료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와서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회복시키는 물줄기를 쏟아놓는다.(교회증언 7 권, 273-274)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다. - 진실한 입술로부터 나오는 겸손하고 지적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하늘에서 들려지고 지상에서 응답으로 보상받는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Signs of the Times, December 3, 1896)

믿음 안에서 그대의 간구를 간청하라. -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우리의 무기력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 계속해서 탄원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받기 때문이다. 그 문제와 진지하게 대면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서도 그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때까지 착수한 모든 일에 혼신을 다한다. 매우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구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끈질기고 단호한 노력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빛과 진리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늘의 사자들과 씨름하라. 그대의 온 존재, 곧 혼과 몸과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헌신한 대리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그대의 소원을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께 말하라. 그대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논쟁하거나 그분께 설교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러한 영혼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들은 찾고, 구하며, 문을 두드리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가져가 버리실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1)

하나님께서는 능력있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 누구든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처럼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며,

누구든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면 또한 그 때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이르게 된다.(복음교역자, 255)

기도의 학문을 이해하라. -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기도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교육, 257-258)

개인적인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훌륭한 건물의 모형을 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였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밀한 곳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찬란한 이상을 명상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성취될 만한 품성의 건물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 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 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종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행로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사 41:13)고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아침에 있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신선하고 능력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는가! (교육, 258-259)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풍성한 축복을 가져온다. -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졌다는 틀림없는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충만함을 즐기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였더라면 우리는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아 있고 고양하는 증거를 주지 못함으로 남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아니한 것을 줄 수 없다.(교회증언 6 권, 63)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분께서 도우실 수 있다. 그분께서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받을 것이다. 그러자면 그대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우리의 경구가 되어야 한다.(교회증언 2 권, 427)

믿음은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주장한다. -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특별히 은밀한 기도를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나 유쾌한 느낌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영혼에 이르러 오지만 믿음은 그것을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둘째 휘장 안으로 올려 보내고 우리의 믿음이 약속된 축복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틀림없이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다음의 말씀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우리가 그 축복을 실감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그곳에 참 믿음이 있다 약속된 축복을 받고 그것을 즐기게 될 때에 믿음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많이 부어질 때에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믿음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믿음을 활용해야 할 때는 바로 이같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이다. 짙은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산 믿음이 흑암을 꿰뚫고 구름을 흩어버리게 해야 할 때이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22)." (초기문집, 72-73)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넘어지지 말라. -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요 16:24)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시므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선하시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남겨 두지 않으신다.(교회증언 1 권, 120)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 믿음으로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섭리의 신비가 그 응답을 가져올 것이다. 때때로 그대들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믿음과 소망과 용기로 이루어지게 하라.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후에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성실을 주장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초조한 불안에서가 아니고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기다리라.(교회증언 7 권, 245)

신뢰하며 기도하라. - 마음에서 우러난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서 들려지고 땅에서 응답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필요를 이해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아뢰기 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의심과 유혹에 맞서 투쟁하는 영혼을 보신다. 그분은 탄원하는 자들의 진실성을 기록하신다. 그분은 영혼의 굴욕과 애정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선언하신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사 66:2). 성령께서 우리의 탄원을 받아쓰시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단순하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해야한다.(God's Amazing Grace, 92)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 세상에 속한 지혜는 또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이 법칙을 어기는 것, 곧 이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주가 일정불변의 법칙으로 지배되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그 법칙에 반대되는 일을 하실 리가 만무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계시되, 그 법칙을 지배하실 자유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증언에 배치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지 않았던가? 긍휼이 많으신 동일한 구주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 주신다. 자연은 초자연적인 것과 협력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각시대의 대쟁투, 525)

믿음의 기도는 영혼의 단순한 소원들을 표현한다. - 기도가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능과 공효가 없다. 우리가 멋대로 내뱉는 화려한 말은 모두 합해도 거룩한 소원 한 가지만 못하다. 가장 유창한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무익한 말에 불과하다. 세상 친구에게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은혜를 구할 때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격식을 차린 찬양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상하고 억눌린 마음이, 죄가 많고 더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무언의 절규는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한다.(산상보훈, 86-87)

기도는 행동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인다. - 믿음의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그대는 세상을 움직였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에게 그대 옆에 무릎 꿇게 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대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피어오르도록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욜 2:17)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높이 들리어지셨지만 기도는 그분의 보좌에 닿을 수 있다. 돌이키시고 뒤집으실 수 있는 분,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오는 죄를 뉘우치는 믿음의 기도를 눈여겨보실 것이다.(Review and Herald, April 23, 1889)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하실 수 없다. - 기도와 믿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똑 같은 위치에 두 번 처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 충분한 지도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빛을 받아야 한다.(치료봉사, 509)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항상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므로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으신다.(My Life Today, 15)

기도에 싫증내지 않아야 할 목회자들. -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백성들이 목사들 중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까지 기도로 끈기 있게 씨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설교할 것이다.(교회증언 5 권, 166)

낙담의 치료제는 믿음과 기도와 일이다. - 낙담한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치료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 기도, 일이다.(교회증언 6 권, 438)

기도는 우리가 원수를 저항하게 하는 무기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당신의 희생의 효험을 의지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그대들의 영혼 안에 깃들여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대들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라.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가려뽑은 기별 1 권, 88)(Signs of the Times, August 24, 1904.)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기도는 잃어버린바 되지 않는다. -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교회증언 1 권,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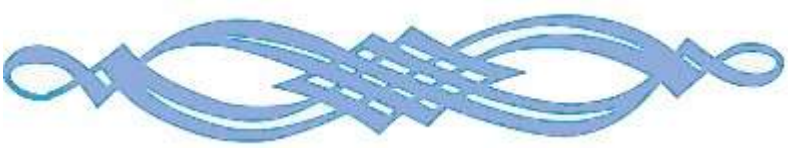
보혜사가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다. -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보혜사가 보내신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시대의 소망, 669-670)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 성소로 운반한다.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시며 저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탄원을 가지고 나간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10) 진실한 기도는 전능하신 자를 붙잡고 인간에게 승리를 준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은 유혹에 저항할 힘을 얻는다.(Review and Herald, February 1, 1912.)

열렬한 기도는 사단의 강렬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 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사단은 왔다 갔다 하고 지상에서 위 아래로 걸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라고 매 순간 분주하다. 그러나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엡 6:16)라.(교회증언 5 권, 294)

믿음의 기도는 사단을 이기게 한다. -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써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교회증언 1 권, 296).



7 장 기도와 순종

기도와 활동 - 우리는 압박과 환난을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악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장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야 한다. 기도하며 활동하고 활동하며 기도하라. 그러나 아무도 무분별하게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온유해야 하며 마음을 겸비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에 없었던 열심을 가지고 배우라.(가려뽑은 기별 2 권, 370-371)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믿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복음 전도, 438)

그대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과 더불어 씨름하고, 부담을 짊어지며, 권면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들처럼 예수님께 배우라.(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98-499)

기도는 죄를 대항하여 성공하는 하늘의 계획이다. -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경험에서의 이러한 결핍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그들은 마치 소금 땅과 바싹 마른 황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간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는 성화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될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은 계발될 수 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계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받으리라"이다.(사도행적, 563-564)

날마다의 유혹들은 기도가 필요하게 만든다. - 사려 깊이 생각하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적 노력과 연합된,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서 습득된 능력은 그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아무리 모진 환경 아래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시켜 준다.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들은 기도를 필수적인 일로 만든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갈망들이 도움과 빛과 능력과 지식을 달라는, 말없는 기도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생각과 기도는 시간을 진지하게,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일과 기도,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 품성을 온전케 하는 데 필요된다.(교회증언 4 권, 459)

매일의 기도는 실수들을 승리로 바꾼다. -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나 확고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잠시 돌아선다면 그것은 그가 사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그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킨다면 그가 범죄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덜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지는 못한다. 그분은 그가 구속주와 함께 교제해 온 것을 아신다. 또한 심판의 어떤 사건에서 그의 실수가 비난 받을 때 그는 언짢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실수를 승리로 바꾼다. 그분은 주인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며 다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한다.(Review and Herald, May 12, 1896)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의 중재자이시다. -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중보를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모든 공로를 간구자 편에 놓으신다.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탄원하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영향력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때 우리의 중보에는 향이 주어진다. 우리가 구속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고, 당신의 인성의 팔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드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향로 안에 당신의 공로를 향기로운 향처럼 넣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기로 약속하신다.(교회증언 8 권, 178)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분 자신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Review and Herald, September 29, 1896)

마음에 고의적인 죄가 있다면 기도는 무가치하다. -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편으로 그대가 마음에 죄를 품고서 기도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대가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멀지않아 책망에 싫증을 느끼고 불평으로 인해 그들과 같이 그대는 하나님에게서 배도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견책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는 전과 똑같이 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대한 감수성이 적어지고, 점점 더 눈이 멀고, 지혜가 적어지며, 자제가 줄어들며, 도덕력이 약화되고, 열심과 종교적인 행사에 대한 미각을 잃어 가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는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완전히 놓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품성의 결점과 그대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 사이의 엄청난 대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견책이 주어졌을 때 그대의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대의 형제들의 신임을 전적으로 잃지 않는 위치에 있으려는 것이 그대의 방침이 되어 왔다.(교회증언 4 권, 332)

기도가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만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환전(換錢) 조건에 맞지 않는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 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의 약속은 이러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또 요한은"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 2:3-5)고 말한다.(실물교훈, 143-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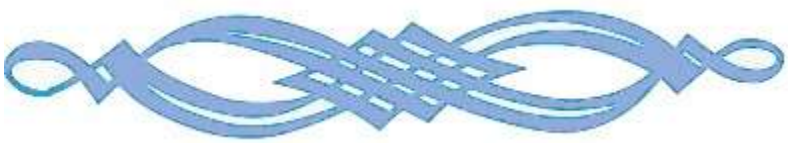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은 다음 기도 가운데 살아야 한다. - 어린이와 청년들은 무거운 짐과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올 수 있으며 주께서 그들의 호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심을 가져라.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대들이 생각하기 전에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대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역사하셔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설정하지 말라. 다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기도가 멸시당하지 않을 것과,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유익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때와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살라. 겸손히 행하고 부단히 전진하라.(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23)

유혹에 저항할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 일상생활에서 그대들은 불의의 놀라움과 실망과 유혹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하신다. 그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예수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원수가 홍수처럼 그대를 엄습할 때 주의 성령이 원수를 대항하여 그대를 위하여 기치를 높이 쳐드실 것이다.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력과 자제를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설을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 이 때가 바로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시험을 이기고 모든 괴로움과 분노와 나쁜 말을 나의 마음에서 물리치도록 하시옵소서. 주의 온유하심, 주의 겸손하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자에게 욕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말과 동기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나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로 나의 가정에 있어서 참된 가정의 띠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도록 도우소서"라고.(재림신도의 가정, 214-215)

우리는 현재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과 유혹들이 적거나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계속적인 주의와 기도를 요구하는 악에 저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하늘의 왕께 충성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표준이다.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라. 암기하도록 본문을 반복하여 적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닫게 하라.... 또한 시련에서 젊은이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분께 그분의 길을 찾는 지혜와 그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힘을 구하게 하라....

우리의 젊은이들로 의무와 헌신으로부터 영혼을 이끄는 가장 작은 위험을 가진 모든 습관을 대항하여 투쟁을 벌이게 하라. 그들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만약 그것이 가능한 한 피해질 수 있다면 그것들을 간과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공언하기 전에 탐닉했던 그들의 악한 습관을 가지고 전투에 나간다면 그들은 곧 사단의 계략에 쉬운 먹이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심령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무장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적들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상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My Life Today, 315)



8 장 효과적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라. -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요 16:24)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시므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선하시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남겨 두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수가 많으므로, 비록 정직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었을지라도,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지혜롭고 선량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이 주어진다.

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할 때에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교회증언 1 권, 120-121)

우리의 기도는 열렬하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연약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구하는 바를 끈기 있게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실물교훈, 145-146)

열렬한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다. - 열렬하고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매우 유용하고 효능 있고 강렬한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써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교회증언 4 권, 531)

하나님의 팔에서 너무 빨리 떠나지 말라. -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네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는 일곱 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 나는 우리들이 확실한 약속들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구주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불같은 창으로부터 심장, 즉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만일 원수가 낙심한 자들의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비천함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원수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약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초기문집, 73)

기도로 끈기 있게 주장하라. - 사람이 매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유일한 이름이다)께 속삭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전심과 진심으로 더욱 풍성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증이 있다. 우리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아닌 성령의 감화와 점화에 의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설명된다. 탄원은 간절한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은혜의 보좌에 가까워질 것이다. 기도로 끈기 있게 주장하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다.(The Gospel Herald, May 28, 1902.)

약하고 풀이 죽은 기도가 아닌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 - 가장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번민하는 기도,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드린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것이 훌륭한 시편 기자가 소유한 것과 똑같이 씨름하는 기도의 정신이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선행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이 야고보가 열렬하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라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말한다. 하늘의 왕께서 드린 이 중보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연약하고 무관심한 기도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봉사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열렬하고 애정 어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별로 없다.

우세한 기도라고 눈물과 투쟁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어떤 큰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승리와 특별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고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라도 남겨 놓은 것이나 혹은 자아 방종이 없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그들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고투, 모든 눈물과 투쟁이 그들이 바라는 축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교회증언 9 권, 165)

열렬하고 계속적인 기도는 필수이다. -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지智 等의)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정로의 계단, 93-95)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 열렬하고 진실하라. 열렬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대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교회증언 1 권, 158)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203)

승리할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라. -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우리의 무기력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 계속해서 탄원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받기 때문이다. 그 문제와 진지하게 대면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서도 그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때까지 착수한 모든 일에 혼신을 다한다. 매우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구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끈질기고 단호한 노력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빛과 진리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늘의 사자들과 씨름하라. 그대의 온 존재, 곧 혼과 몸과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헌신한 대리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그대의 소원을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께 말하라. 그대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논쟁하거나 그분께 설교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러한 영혼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들은 찾고, 구하며, 문을 두드리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가져가 버리실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1)

그침 없이 기도하라. -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탄원하는 일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구속주께서는 우리에게 그침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는 없으나 그의 생각과 소망이 항상 위를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적게 말하고 더 많이 기도한다면 자신은 사라질 것이다.(Sons and Daughters of God, 99)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시험받는 장소에 버려두는 것은 주님을 언제나 그들 앞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도록 허용하면 우리의 방패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그대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그대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되며, 열렬하고, 끈기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치료봉사, 510-511)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 흔들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가납되게 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다.(교회증언 8 권, 179)

기도로 담대하게 나오라. - 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왜 분노의 정신이나 의혹이 없는 겸손과 신앙적인 대담성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깨끗한 손을 쳐들고 기도할 수 없단 말인가? 마치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푹 수그리고 그대들의 얼굴을 가리우지 말라. 마치 향기를 풍기는 향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대들의 눈을 높이 들라.

그대들은 와서 간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도록 초청을 받았으며 그대들의 초청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 8)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41-242)

계속적인 기도는 향기로운 감화로 올라간다. - 저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역경과 결핍을 견디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이 내는 예물과 희생적인 헌금은 저들을 흑암 가운데서 불러 신비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대하여 저들의 열렬한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향기로운 감화력이 하늘에 상달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와 바치는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로서 받아들여진 바 됩니다.(가려뽑은 기별 2 권, 212)

아름다운 두 덮는 그룹이 법궤의 양 끝에 서서 법궤 위로 그들의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속죄소 앞에 서 계신 예수의 머리 위에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천사의 무리를 표상하는 것이다. 덮는 그룹 사이에는 금 향단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께 상달되고 그가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자 향단에서 구름같은 오색찬란한 향연이 피어 올랐다. 예수께서 서 계신 곳 바로 위 법궤 앞에 지극히 찬란한 영광이 빛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같이 보였다. 향연이 아버지께 상달되자 찬란한 영광이 보좌로부터 예수께로 비쳤으니 그 영광은 다시 그분으로부터 감미로운 향처럼 기도를 올린 자들 위에 베풀어졌다. 빛이 예수께 넘치도록 부어져 시은소를 덮었으며 성전은 영광의 빛줄기로 가득 찼다. 나는 그 굉장한 광채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어떤 언어로도 그것을 묘사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장면에 압도되어 그 위엄한 영광에서 돌아섰다.(초기문집, 252)

우리는 그리스도의 끈질긴 기도의 모본을 모방해야 한다. - 그리스도의 힘은 기도에 있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니셨고 죄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그 밖의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된 숲과 산들로 물러나셨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혼자였다. 매우 격렬하게 그분은 계속해서 탄원하셨으며 무한한 손을 붙잡는데 모든 영혼의

힘을 발휘하셨다. 새롭고 엄청난 시험이 그분 앞에 있을 때, 산들의 황야로 조용히 들어가 온 밤을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보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우리의 모본이 되시므로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신 기도로 그분의 모본을 모방한다면 우리는 포악한 적의 계략을 대항하여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던 그분의 이름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The Youth's Instructor, April 1, 1873.)

꾸준한 노력과 기도는 우리를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킨다. -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계발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 준다.(산상보훈, 85)

어떤 것도 우리를 성경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분리시키지 못함. -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런 것일지라도 어떤 것도 그대들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대들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의 기도의 요청을 존속시켜라.(교회증언 8 권, 53)

꾸준한 기도는 믿음을 포함한다. -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정로의 계단, 96)

믿음은 응답 받은 기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그 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선지자와 왕, 157-158)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다. - 주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시 50:15)"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곤궁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실물교훈, 172)

하나님께서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희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복음교역자, 255)

기도한 후에 약속을 계속해서 주장하라. - 기도를 마친 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심하지 말고 기다릴 것이며 불안해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약속을 굳게 붙들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끈질기게 졸라 대던 과부처럼 목적하는 바를 확고하게 하고, 그대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아뢰라. 그 목적하는 바는 그대에게 긴요하고 심히 중대한 것인가! 분명히 그렇다. 그렇다면, 요동하지 말 것이다. 이는 그대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가치있는 것이라면, 강하고 열렬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것이다. 그대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닌가? 만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지불하였다면, 그것을 얻은 후에 그대는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요동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백한 말씀이 그대에게 주어졌다. 피곤해 하지 말고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경고가 여기 있다. 만일 그대가 간구한다면, 그분은 그대에게 후히 주실 것이요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교회증언 2 권, 131)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초기문집, 46)

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다. -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다.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 추측은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위조물을 취할 염려가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나 사단이 행한 바와 같이 이것을 죄에 대한 핑계 거리로 삼는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중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추측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허락과 대책에 기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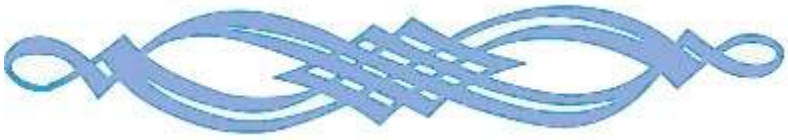
신앙을 신중히 생각지 않고 산 믿음과 주린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다만 세상의 구주로 알기만 하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그 영혼을 고칠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두뇌로 인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후에야 믿음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고 주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믿음을 하나의 견해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계약이며, 이 계약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언약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순전한 믿음은 곧 생명이며, 산 믿음은 힘과 신뢰를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산 믿음을 가진 영혼은 승리자가 된다.(복음교역자, 260-261)

기도는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써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교회증언 1 권, 296)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다. -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승리는 유력한 토론이나 방대한 시설이나 큰 세력이나 또는 풍부한 자금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골방에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열성과 간절한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얻어진다.(복음교역자, 259)



9 장 기도의 능력

기도는 영적 힘을 증가시킨다. -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계발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을 사려 깊고 조심성 있는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꾸준한 노력과 연합된 힘은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 준다.(산상보훈, 85)

힘과 은혜는 기도에서 얻을 수 있다. 성실한 사랑이 마음을 다스리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재림신도의 가정, 127)

마음을 영적인 것에 바쳐라. 자신을 생각지 말라. 만족하고 기쁜 정신을 길러라. 그대는 중요치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말한다. 이것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 말하는 데 바쳐진 힘이 기도하는 데 바쳐졌다면 그대는 영적인 힘을 얻었을 것이며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교회증언 2 권, 434-435)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진실한 기도의 영이다. 온 하늘은 기도의 사람 앞에 열려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진실한 탄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백성들과 함께 힘을 가질 것이다.(Review and Herald, October 20, 1896)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기도와 믿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똑 같은 위치에 두 번 처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 충분한 지도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빛을 받아야 한다.(치료봉사, 509)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게 한다. -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을 얻어 일상의 의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나날이 유혹에 직면하는 우리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려면 은밀한 기도로써 우리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한다. 도움과 힘을 베풀어 달라는 우리의 간구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만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악 방종으로 이끄는 유혹의 힘을 이기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생애를 성화시키는 진리의 빛은 그 빛을 받는 자에게, 그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다투는 죄된 정욕들을 알게 할 것인바, 이 일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로로 승리를 얻도록 모든 신경을 건강하게 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사단을 반대하게 한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8)

신성의 능력은 그것을 원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여러분은 영원한 사물에 대한 깊고 영속적인 의미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인류에 대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늘과의 밀접한 연결은 그대들의 충절에 대하여 올바른 의미를 주고 그대들의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의존의 각성은 그대들을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대들의 의무감은 그대들을 노력하게 할 것이다. 기도와 노력, 노력과 기도는 그대들의 생애의 직무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능률과 칭찬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인양 기도하고 의무는 모두 그대들 자신의 것인양 노력해야 한다. 그대들이 능력을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들이 가져다 쓰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소유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교회증언 4 권, 538-539)

비록 짧은 기도일지라도 영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다. - 그는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하였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선지자와 왕, 631)

기도는 영적 힘의 비밀이다. -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250)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가져온다. - 능력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교회증언 4 권, 402)

기도는 죄와의 투쟁에서 성공을 가져온다. -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계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받으리라"이다.(사도행적, 564)

기도는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붙든다. - 참 믿음과 참 기도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인간 탄원자가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복음교역자, 259)

기도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한다. - 사단은 청년들에게 많은 유혹을 제시한다. 그는 그들의 영혼을 건 생명의 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유인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남김없이 활용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험하는 자를 대적하여 고군 분투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구조자가 있다.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서 오늘날 청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저항하면서 사단을 대항하고 정복하신 분은 대적보다 훨씬 강하시다. 그는 그대들의 맏형이시다. 그는 그대들에게 깊고 부드러운 관심을 나타내신다. 보호하시며, 그대들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대들이 기도할 때 그는 그대들의 기도에 당신의 의의 향을 섞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그것들을 바치신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청년들은 십자가의 선한 군병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주의 힘으로 강하여져서 그들은 앞에 있는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은 그대들의 승리의 보증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5-96)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다. - 믿음의 지속적인 기도로 그대는 세상을 움직이는 팔을 움직일 수 있다.그대는 그대 옆에 무릎 꿇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대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높이 들리셨지만 기도는 그분의 보좌에 미칠 수 있다. 돌이키시며, 전복시키기도 하시는 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신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오는 믿음의 회개하는 기도를 눈여겨보신다.(Review and Herald, April 23, 1889)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된다. -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엡 1:6)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가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췬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시대의 소망, 113)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주님의 방법 안에서 사업을 진척시킬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것인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지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며 진리의 빛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는 불타는 등불로 앞을 비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겸비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의 구원을 볼 것이다.(Review and Herald, July 1, 1909)

가장 위대한 승리는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얻어진다. -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203)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가져온다. - 우리의 헌신적 활동이 구하고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는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혜택은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받는 자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을 결코 찬양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 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는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더하라. 그대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생각하시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교회증언 5 권, 317)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업에 열매를 가져온다. - 오류의 흑암 중에 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열매들이므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문서전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지정하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미구에 세상에 임할 심판을 경고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설득시키는 힘,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수반되면 전도자의 사업은 열매가 없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 사업에 가지신 관심을 생각하여

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같이 아들께서도 당신의 소유인 그들, 그가 일하신 것처럼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아무도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자들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될 것이다.(문서전도봉사,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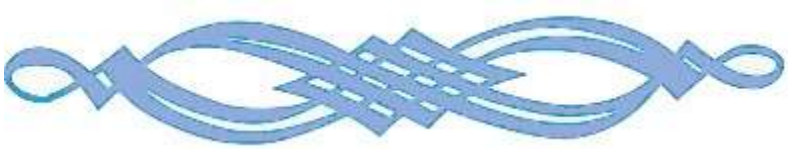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정복할 수 없다. - 원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피난처로, 은신처로 개입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라는 약속이 주어졌다.(When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lift up a standard against him. Isa 59:19?)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의 성령께서 그를 향하여 규범을 드실 것임이로다) (중간 생략)... 사탄의 모든 세력 안에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과 지혜를 신뢰하는 영혼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My Life Today, 316)

기도는 유혹에 저항할 힘을 가져온다. -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정로의 계단, 95)

기도와 성경 연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에 공격받기 쉽게 만든다. -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각시대의 대쟁투, 600)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 기도에는 전능한 힘이 있다. 우리의 큰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근심하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있다. 겸손한 성도에 의해 하늘로 드려지는 호소는 캐비넷의 신조나 왕의 명령보다 사단에게 더 무서운 것이다.(In Heavenly Places, 82)

종교 개혁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였다. -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 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密室)의 기도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섰다. 아우그스부르크의 투쟁의 때에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 세 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은밀한 그의 방에서 "존경(尊敬)과 두려움과 희망에 넘치는 말로써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음성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다.(각시대의 대쟁투, 210)



10 장 기도하는 이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하여 마음을 밝혀줌. - 우리는 왜 빛과 능력의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더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너무 적게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잊으셨는가? 이 사랑이 지구로 계속 넘치고 있지 않은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강함을 보여줄 그분의 소망은 잃어버린바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왕의 예복과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속물과 담보물로 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누가 이것을 의심하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효험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만큼 평가하지 않는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분만이 명백한 진리의 개념을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분은 오류에서 진리를 분변하는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분은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그 마음에 시험을 견뎌낼 지식과 믿음을 주실 수 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던 주님께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분께 나아간다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Review and Herald, March 24, 1904)

우리로 아버지와 익히 알게 함. - 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교훈들을 날마다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 지식으로 알아야만 한다. 은밀한 기도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사귀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의료봉사, 102)

우리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킴. - 기도는 우리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실물교훈, 250)

우리를 유혹에서 저항할 수 있게 함. -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지智等의)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정로의 계단, 94-9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당신의 희생의 효험을 의지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그대들의 영혼 안에 깃들여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대들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라.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가려뽑은 기별 1 권, 88)

우리를 하늘 교회의 일원으로 준비시킴. - 겸손하고, 믿는 영혼에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능이다. 그 고상한 예배에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교회증언 5 권, 491)

우리의 확신들이 보강됨. - 우리의 확신들은 매일의 겸손하며 진실된 기도와 말씀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개성이 있고 우리의 깨달은 바들을 굳게 잡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손에서 곡해될 것이다.(교회증언 6 권, 401)

일시적인 필요들이 공급됨. -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 주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제시해 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뢸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물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할 수 있다.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그대를 초청하신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산상보훈, 133)

각 사람은 자기의 특별한 필요를 주께 아뢰고 그가 날마다 받는 축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교회증언 9 권, 278-279)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기도는 마땅히 이해되어야 할 만큼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는 길게 하거나 큰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생각들을 읽고 계신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공공연히 갚아주실 것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7)

날마다 은혜의 공급이 주어짐. -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을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사도행적, 49-50)

지혜가 공급됨. -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와 기만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굳세게 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초기문집, 87-88)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에 대한 밝은 개념과 영혼 구원을 위한 능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가려뽑은 기별 2 권, 399)

성령의 침례가 주어짐. - 하나님의 신실한 기별자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좇아 주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들은 위대하신 교사와 밀접하게 연결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죄 속에서 멸망해가고 있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받고자 열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모든 권세가 약속되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 있는 기별을 생생하게 전파할 때, 진리의 빛은 타고 있는 등잔처럼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류와 불신의 어두움은 모든 대륙에 있는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라는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추방될 것이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59-460)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 심령 속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 우리의 주위 환경들, 즉 우리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는 변화들과 모든 것을 식별하고 입증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 이들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기에 충분하다. 그대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할 생각의 통로로 마음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그대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은 그대에게 성가시게 보이나 누군가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마다의 생애의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교회증언 3 권, 333)

하나님의 사업의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 사업의 여러 다양한 관심사들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자료와 기도할 영감을 제공해 준다.(교회증언 4 권, 459)

응답받은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원인이다. - 사무엘상 2 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여자의 기도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기도한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기도 응답에 대한 그녀의 감사의 제물은 그들의 요구를 응답받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는가?

다윗은 선언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라는 무거운 의무 아래 놓는다.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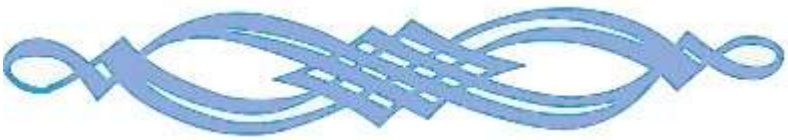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축복들은 즉시 감사되어져야 한다. 그것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일기에 기록되어져야 하며, 손에 그 책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Review and Herald, May 7, 1908) 115p 에 중복됨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이다. - 우리가 필요로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실한 노력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우리는 참된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가려뽑은 기별 1 권, 187-188)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넓어짐. -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간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라고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단의 간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각시대의 대쟁투, 530)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그 말씀의 경고로 경계를 받고 그 약속으로 새로움과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이 천사들의 직무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원(祈願)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사 59:19)이다.(각시대의 대쟁투, 599-600)



11 장 응답받은 기도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 세상에 속한 지혜는 또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이 법칙을 어기는 것, 곧 이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주가 일정 불변의 법칙으로 지배되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그 법칙에 반대되는 일을 하실 리가 만무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계시되, 그 법칙을 지배하실 자유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증언에 배치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지 않았던가? 긍휼이 많으신 동일한 구주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 주신다. 자연은 초자연적인 것과 협력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각시대의 대쟁투, 525)

그대가 교회에서 그대의 형제들을 만날 특권을 부여받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놓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라. 만일 그들이 기도할 마음과 음성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찾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라. 형제들에게 기도하라고 간곡히 타일러라. 찾으려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 받으려면 반드시 구해야 한다. 문이 열리게 하려면 반드시 두드려야 한다.(Signs of the Times, February 10, 1890)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믿음의 결과로서 올 것이다. - 하늘과의 밀접한 연결은 그대들의 충절에 대하여 올바른 의미를 주고 그대들의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의존의 각성은 그대들을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대들의 의무감은 그대들을 노력하게 할 것이다. 기도와 노력, 노력과 기도는 그대들의 생애의 직무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능률과 칭찬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인양 기도하고 의무는 모두 그대들 자신의 것인양 노력해야 한다. 그대들이 능력을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들이 가져다 쓰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소유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비상한 재주와 이론과 웅변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겸손하고 신뢰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모든 장애는 극복될 것이다. 천성적인 큰 재능과 높은 학벌을 갖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놓여졌을 때 실패했는가 하면, 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보다 연약한 지능을 가진 자들이 훌륭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한 반면에, 후자는 지혜가 놀라우신 분,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업에 능하신 분과 연합하였던 것이다.(교회증언 4 권, 538-539)

성령에 의하여 유발된 단순한 기도는 열린 문을 통하여 올라갈 것이다. 이 열린 문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열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선포한 문이다. 이 기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의 향과 섞이어 향기로써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며, 응답은 이르러 올 것이다.(교회증언 6 권, 467)

어린아이 같은 단순성과 믿음을 가진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7:37, 4:14).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수의 부족으로 갈증을 느끼고 말라죽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가는 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하고 그것들을 받을 것으로 믿을 것 같으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발휘해야 할만큼 믿음을 발휘했다면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껏 받았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교회증언 9 권, 179)

기도하고 믿으라. -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연약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구하는 바를 끈기 있게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실물교훈, 145-146)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다. -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훈들은, 잘 배우기만 하면 언제나 시의적절한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많이 기도하고 믿어라. 전능하신 분의 손을 신뢰하고, 바라고, 믿고, 굳게 붙잡으면 그대들은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진실한 교역자들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일한다. 때때로 그들은 선악의 세력들 간에 전쟁이 치열할 때 사업의 느린 진전을 보고 피곤해진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구름들이 사라지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사단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 놓은 안개를 뚫고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믿음으로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섭리의 신비가 그 응답을 가져올 것이다. 때때로 그대들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하고 믿고, 그대들의 활동이 믿음과 소망과 용기로 이루어지게 하라.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후에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성실을 주장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초조한 불안에서가 아니고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기다리라.(교회증언 7 권, 245)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분께서 도우실 수 있다. 그분께서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받을 것이다. 그러자면 그대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우리의 경구가 되어야 한다.(교회증언 2 권, 427)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열렬한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때에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Review and Herald, March 23, 1897)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 은혜와 힘을 구하는 모든 열렬한 탄원은 응답될 것이다....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하라. 그대 마음의 비밀들을 그분 앞에 펼쳐 놓으라. 그분의 눈은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을 관찰하시며 그분께서는 그대의 생각을 펼쳐놓은 책처럼 읽으신다. 그대가 영혼의 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 그것들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는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온 마음으로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대가 하늘의 진귀한 것을 그대 것으로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고향(집? home)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My Life Today, 16.)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라. -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써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를 그대들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9:29, 21:22).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히 10:23). 진실한 간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수로는 열려 있고,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 그것은 치료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와서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회복시키는 물줄기를 쏟아놓는다.(교회증언 7 권, 273-274)

우리의 기도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 사람이 강하고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내쉴 때(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유일한 이름이다) 그 강렬하고 진지함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풍부하도록 넘치는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서는 안되며 성령의 영감과 발화에 의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를 설명한다. 탄원은 반드시 열렬한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비의 보좌에 도달할 것이다. 지치지 않게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들을 받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다.(The Gospel Herald, May 28, 1902)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들 -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사 44:3)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크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한 논제(論題)가 되나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웅변으로 변호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보혈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주께서 받으시는 조건을 응하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가?

허락은 광범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때에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에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므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의혹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롬 12:12; 골 4:2)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고 권하였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가르쳤다. 유다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유 20, 21)라 하였다.(정로의 계단, 95-97)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半信半疑)의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치료봉사, 227)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 -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애를 살므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가려뽑은 기별 1 권, 116-117)

삶이 기도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그대가 기도할 때 이 허락을 제시하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신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반대되게 행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린 후 무릎을 펴자마자 종종 자녀들을 야단치기 시작하곤 하는 아버지를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야단친 후에 아버지가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겠는가? 아니다. 만일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복의 기도가 아닐진대 결코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새자녀지도법, 499)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찬양이 포함되어야 함. - 우리의 헌신적 활동이 구하고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는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혜택은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받는 자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을 결코 찬양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만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 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는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더하라. 그대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생각하시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교회증언 5 권, 317)

청지기직에서의 불신실함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의 얼마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실물교훈, 144)

조건들을 충족시킴 없이 약속을 요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실물교훈, 143)

조건들이 충족되면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은 확실하다. -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기도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한다.(교육, 257-258)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명령이 아니다. -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간구하면 그분이 들으실 줄을 우리는 안다. 우리의 간구는 명령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분이 행하시도록 간청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교회증언 2 권, 149)

기도가 언제나 즉시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 -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있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뢰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지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끈기있게 구해야 한다.(실물교훈, 145)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부된 극기의 명령을 실천한다면 기별은 힘있게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개심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빛을 밝히 비출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불신자들은 그들의 좋은 행실을 보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5)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후 그리스도께서 이틀을 지연하신 것은 그분 편에서의 무시나 부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진행될 때까지 계시던 곳에 남았다가 죽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닌 장사지냈던 사람을 생명으로 일으키심으로 백성들에게 그분의 신성의 증거를 주시려는 목적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약속이 구했을 때 응답이 즉시 오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유혹을 받는다. 특별한 축복을 구하는 것과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나 만일 요구된 축복이 즉시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응답이 잠시 지연될지라도 우리는 받을 것이다. 구속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낙담시키는 사람을 많이 보셨다. 그러나 그분은 낙담되지 않으셨다. 자비와 사랑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와 특권을 계속해서 제공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이며 끈질기게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빨리 오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요구한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낙담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자녀들의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The Youth's Instructor, April 6, 1899)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즉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은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에 양보해 달라고 그분께 요구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분의 목적에 흡수되어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욕망과 흥미는 그분의 뜻 가운데 잃어버린바 되어야 한다. 믿음을 시험하는 이같은 경험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놓여 진실하고 성실한지, 혹은 환경에 좌우되어 불안하고 변하기 쉬운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믿음은 실천을 통하여 강화된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귀중한 약속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치료봉사, 230-231)

나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너무도 쉽게 낙심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할 때, 그것들이 즉시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들의 용기는 사라지고, 불평하는 감정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일임을 보았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요 16:24)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시므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선하시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남겨 두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수가 많으므로, 비록 정직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었을지라도,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지혜롭고 선량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교회증언 1 권, 120-121)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나 요구했던 바로 그것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들이 요구했던 좋은 것 대신 해가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축복을 주신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을 나는 보았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확신이 강해져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축복이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성령과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때때로 즉시 응답되나 항상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때론 희미하지도 않다. 그대의 믿음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면 응답은 올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때때로 축복은 가장 필요한 때에 올 것이다. 그대가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 할 때 그대가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명료함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 않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지상의 부모들에게 복을 구하는 어린이들로 설명된다. 그들은 부모들이 그들을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 부모는 아이들이 소망하는 것 대신에 그들에게 좋고 건강한 것을 자녀들에게 준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보내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에 들려지고 응답되어지고, 탄원 드려지는 것이 그가 그것을 가장 필요할 때 종종 그의 기대를 초과하여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 믿음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실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잃어버린바 되지 않는다.(Spiritual Gifts, bk.4b, 7-9)

기도를 마친 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심하지 말고 기다릴 것이며 불안해 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약속을 굳게 붙들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끈질기게 졸라 대던 과부처럼 목적하는 바를 확고하게 하고, 그대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아뢰라. 그 목적하는 바는 그대에게 긴요하고 심히 중대한 것인가! 분명히 그렇다. 그렇다면, 요동하지 말 것이다. 이는 그대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가치있는 것이라면, 강하고 열렬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것이다. 그대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것을 얻은 후에 그대는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요동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백한 말씀이 그대에게 주어졌다. 피곤해 하지 말고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경고가 여기 있다. 만일 그대가 간구한다면. 그분은 그대에게 후히 주실 것이요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교회증언 2 권, 131)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보증은 넓고 무한하며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때때로 무한한 지혜가 우리의 조건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실패한다. 우리가 요구한 시간에 우리가 요구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의 영광은 때때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붙잡는 충분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에 굳게 매달려 있어야 하며 응답의 때가 오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Signs of the Times, August 21, 188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항상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고독한 때와 피로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에게 유익 되도록 응답된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0)

그대가 역경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 흑암의 구름이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대가 기대한 것처럼 쉼과 평강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때때로 그대의 믿음이 최고의 시험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과거 생애를 뒤돌아 보았을 때, 그대는 슬픔과 실망을 보았다. 미래를 볼 때, 모든 것은 불분명하였다. 그대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상 주시는 분임을 가르치고자 신령한 손이 기이하게 그대를 인도하였다. 올바르게 구하는 이들은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는 찾을 것이다. 시련과 역경의 풀무 속에서 얻은 체험은 그것이 치러야 하는 모든 불편과 고통스러운 체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

시련에 빠져 외롭고 지친 가운데 드린 그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의 기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대의 유익을 따라 응답하셨다.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올바른 빛 가운데서 그대 자신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분은 그대가 고통 중에 드린 기도를 그대를 구원하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응답하시고자 역사하셨다.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는 그대에게 최선이 아닌 것을 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셨으나, 허락하신 축복은 그대의 기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그대를 당신의 교회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곳에 놓으셨는데 이는 그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신뢰하는 대신에 당신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다른 이들에 대해 더욱 크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된 기도를 들으신다.(교회증언 3 권, 415-416)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지정한 시간에 기도에 응답하신다. - 그의 결혼 생활 내내 스가랴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이제 늙었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정하신 시간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이 희망 없어 보일 때 스가랴는 그의 응답을 받았다.(Review and Herald, June 9, 1891)

왜 기도 응답에 지연될 수 있는지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찾는 첫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경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을 누릴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악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대신에, 우리는 부주의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13)(Review and Herald, June 9, 1891)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귀한 약속들이 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갈망하며,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을 받아 낙담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것이 큰 잘못임을 알게 되었다. 기도가 지체되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참되고 신실한지 아니면 바다의 물결처럼 변하기 쉬운지 시험받을 기회를 갖는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강한 줄로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어야 하며, 인내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믿음은 계속해서 사용해야 강해진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4) 이 기다림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좋은 것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수단으로서 최고로 잘 사용하려고 한다.(Counsels on Health, 380, 381)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구하기를 계속하라. -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만 때론 끈기 있게 기다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간청해야 한다. 우리의 사례는 빵을 위해 끈질기게 간청한 사람의 경우에 의해 설명되어 진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등. 이 교훈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구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눅 11:9, 10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한 거룩한 깨달음을 필요로 한다. 만일 우리의 탄원이 주께서 받아쓰신다면 그들은 응답될 것이다.(Counsels on Health, 380)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기 위해 응답은 지연된다. - 가버나움에서 신하를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고민하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시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 신하는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200)

겉으로 보기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있을 수 있다. -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흔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거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하면서도 신성한

의무를 지나쳐 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흔히 그와 같은 의무는 우리가 더욱 고상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요긴한 훈련을 우리에게 준다. 때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은 실패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그분께서는 많은 것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버리는데 불과하다. 심지어 그 자체가 좋은 것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더욱 훌륭한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의무를,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 드려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일을 더욱 잘 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셔서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치료봉사, 473-474)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 우리가 그분께 나아올 때에는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욕망과 관심은 그분의 소원과 관심 안에 감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뜻에 양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꼭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유익하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는 것보다 더욱 많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어리석기 때문이다.(교회증언 2 권, 148)

열렬하고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매우 유용하고 효능 있고 강렬한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써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교회증언 4 권, 531)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세상에 인간 대리자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두 개의 싸우는 무리가 나타나있다. 이 무리들은 끊임없이 인간 개개인들과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은 어둠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교묘한 일들을 분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대리자들과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강한 열심을 내야 한다. 그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 어떤 장소도 내 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다. 비록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엄숙한 계시가 모든 것을 드러낼 지라도 그분의 뜻의 지식은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열렬한 탄원을 드리고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에 그분과 협력하기를 부지런히 구할 필요성을 아직 파기하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인간 매개물을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SDA Bible Commentary, vol.6, 1119)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우리의 무기력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 계속해서 탄원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받기 때문이다. 그 문제와 진지하게 대면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서도 그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때까지 착수한 모든 일에 혼신을 다한다. 매우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구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끈질기고 단호한 노력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빛과 진리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늘의 사자들과 씨름하라. 그대의 온 존재, 곧 혼과 몸과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헌신한 대리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그대의 소원을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께 말하라. 그대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논쟁하거나 그분께 설교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러한 영혼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들은 찾고, 구하며, 문을 두드리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가져가 버리실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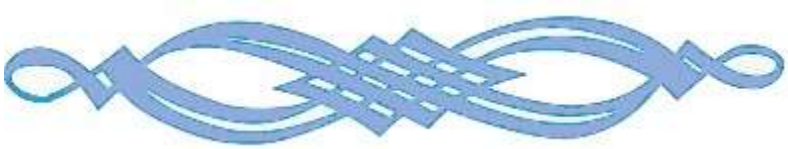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항상 즉시 응답된다. -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갈 1:4)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시대의 소망, 266)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신의 요구인 양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다. - 하나님의 자녀가 시은좌 앞에 나아가자마자 그는 위대한 옹호자의 고객이 된다. 용서를 위한 그의 참회와 호소의 첫마디가 발해 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간구를 마치 자신의 요구인 양 아버지께 드린다.(교회증언 6 권, 364)

응답받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 사무엘상 2 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여자의 기도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기도한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기도 응답에 대한 그녀의 감사의 제물은 그들의 요구를 응답받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는가?

다윗은 선언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라는 무거운 의무 아래 놓는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축복들은 즉시 감사되어져야 한다. 그것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일기에 기록되어져야 하며, 손에 그 책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Review and Herald, May 7, 1908) 95 페이지의 반복 ...



12 장 기도와 부흥

부흥은 오직 기도의 응답 안에서만 올 것이다. -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가려뽑은 기별 1 권, 121)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부조와 선지자, 590)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죄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더럽혀진 마음의 성전을 깨끗케 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열렬하고 강렬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구속주는 진실로 회개하는 청원자를 위하여 고귀한 약속을 남겨 놓으셨다. 그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분 자신의 모본을 가지고 계신다. 하늘의 위엄이신 분으로 그분은 종종 그분의 아버지와 교통하는데 온 밤을 소비하셨다. 세상의 구속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일에 너무 순결하거나 너무 현명하거나 너무 거룩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약하고 죄된 인간은 그 신성의 도움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갖고 회개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자주 찾아야 할 것이다.(Signs of the Times, January 26, 1882)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락되게 한다. -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정로의 계단, 97)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 하늘로 올라간다. -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하므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써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이 지상 성막에서 피우는 모든 분향은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한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당신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세상의 썩어질 것으로 더러워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가운데 당신 자신의 흠없는 의를 담으신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공로로서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받으시는 바 된다. 또한 그 때에 은혜로운 응답이 내리게 된다.(가려뽑은 기별 1 권, 344)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다. -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실물교훈, 129)

기도의 응답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감화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해마지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명이 회개하였다.(사도행적, 37-38)

우리도 오순절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중간생략)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중간생략)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을 것이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7-508)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교회증언 5 권, 158)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교회증언 5 권, 158)(Australasian Union /Conference Record, April 1, 1898)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주장하라. -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시대의 소망, 672)

늦은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 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 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 낼 것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8)

기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쓰라. -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깨워 주시는 감화력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슥 4:6)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대의 기도에 일치하는 행함을 통해 깨어 있으라.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지금은 늦은비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12)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단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작거나 크거나 간에 또 한 번의 큰 각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 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단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1 권, 124)

성령은 모든 신실한 기도에 동반된다. -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시대의 소망, 189)

다른이들을 위한 열심있는 활동이 없는 기도는 우리를 형식주의로 이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아무라도 예배적 행사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하여 은둔자(隱遁者)나 승려(僧侶)가 되어 세상을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산과 무리들 사이에 계신 생애-와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도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日課)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의무와 십자가를 지는 일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 또는 사람이 저희를 위하여 열성으로 일하신 구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기를 그치는 때에 그 사람은 기도의 제목(題目)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이요 이기적이 된다. 그들은 인류의 궁핍에 대하여서나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한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다.(정로의 계단, 101)

영적 진보는 기도에 달려있다. - 거룩한 생애에서 향상하려면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 진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가! 얼마나 자주 중보의 음성이 방에서, 헛간에서, 과수원이나 숲속에서 들렸는가. 빈번히 우리는 열렬한 기도로 여러 시간을 보내고,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을 주장했다. 때때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음성과 찬양의 노래도 들렸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창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위험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교회증언 5 권, 161-162)

13 장 기도하는 남녀

에녹

기도는 그의 영혼의 호흡이었다. -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온 에녹은 한층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다. 그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에 빛났던 그러한 거룩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온 때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도 두려움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난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굳어지고 그의 사랑은 점점 뜨거워졌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었다. 그는 언제나 하늘 분위기 속에서 생애하였다.(복음교역자, 52)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 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부조와 선지자, 85)

에녹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끊임없이 열렬한 기도가 크게 필요함을 깨우쳐 주기를 바란다. 그들이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교회증언 5 권, 595-596)(Review and Herald, November 10, 1885)

우리가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묵묵히 드리는 기도는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이로 인해 원수의 계획은 좌절된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 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그런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였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위급한 때를 당할 때마다 즉시 그를 도우셨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에녹을 찾아왔다. -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부조와 선지자, 86)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86-87)

아브라함

감미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매일의 기도 -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아침과 저녁의 희생을 드렸다. 그의 천막은 옮겨졌어도, 그 제단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랑하는 가나안인이 그 제단에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천막을 쳤을 때는 그 제단을 고쳐 쌓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와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기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침 이슬처럼 그분의 자비와 축복이 간구자들에게로 내려올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매 아침과 저녁에 자녀들을 그대들 주변으로 모으고 겸손한 간구로 도움을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라. 그대들의 사랑스러운 어린 것들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날마다 머리 아픈 일들이 젊은이와 늙은이들의 길을 둘러싸고 있다. 인내하고, 상냥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도움을 받음으로써만 우리는 자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데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대들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의 수락은 이미 간직한 계획의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생애가 거룩한 모본을 따라 차츰 꼴 지어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빌 4:7)실 것이다.(교회증언 7 권, 44)

아브라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했다. -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할는지를 생각하였으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부조와 선지자, 128-129)(Conflict and Courage,

아브라함은 아이가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분을 그에게 홀로 남겨 두고 떠났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써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엘람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깊은 존경과 겸비로 그는 탄원하였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자만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함도 없었다. 그는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드린 희생들을 근거로 은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어린아이의 확신을 나타내었다. 그는 하늘의 크신 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열렬히 탄원하였다.(중간생략)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부조와 선지자, 139-140)

야곱

야곱의 경험은 승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203)

모세

모세의 기도의 모본을 따르라. - 말을 적게 하라. 아무 결론이 없는 잡담으로 많은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다. 형제들이여,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마 약속하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대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 하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복음교역자, 417)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중재했다. -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그분의 언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분은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할 운명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을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제안하실 때, 안락하고 명예로운 지위를, 망은과 불평만을 보답으로 받게 될 많은 수고와 부담과 희생의 운명과 기꺼이 맞바꾸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중간생략)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에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 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디어 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되는 특권보다도 더 귀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과 단순한 마음과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신실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다.(부조와 선지자, 318-319)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계속하였다. - 모세는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무지 몽매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싸워야 할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보증을 주시도록 탄원하였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 대답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 두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동포들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표적이 계속 그들의 여행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예언자는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들을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참람(僭濫)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리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모세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때에 세계를 창조하신 손 곧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욥 9:5)그 손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사람을 취하여 바위틈에 두셨다. 그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이 경험 -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 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부조와 선지자, 327-328)

압박 아래, 모세의 기도는 거의 불평에 가까웠다. - 모세는 낙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지 말도록 간청하였었다. 그들을 위한 그의 사랑으로 그는 그들이 멸망하게 버려두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기도하였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위험을 감수하였으나 그들의 응답은 불평뿐이었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저들이 상상하는 고통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씌웠다. 그들의 사악한 불평은, 그가 지고 비틀거리던 염려와 책임의 짐을 두 배나 무겁게 하였다. 비통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라는 유혹까지 당하였다. 기도는 거의 불평에 가까웠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장로 70 인을 소집하도록 명하셨다. 이들은 노령일 뿐 아니라 품위와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부조와 선지자, 379-380)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였다. - 이제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여 말하였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즉석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의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다. 그런고로 그분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인 홍해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부조와 선지자, 390-391)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어버이다운 친절과 현명한 권고와 부단한 노력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주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겨 그들을 구원하였던가! 그들의 슬픔은 후회로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이 모세를 노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했음을 통절히 기억했다.(부조와 선지자, 470)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변화산에서 성취되었다. -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다.(부조와 선지자, 479)

한나

모든 어머니들에게 격려가 되는 한나의 기도 -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그를 대제사장의 지도에 맡기고 조용히 실로에서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한나가 받은 보상은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가! 그의 모본은 충실함에 대한 얼마나 큰 격려인가!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할 수 없이 값있는 기회와 무한히 귀중한 사업이 위임되어 있다. 여인들이 싫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위에 있는 대수롭지 않은 매일의 의무는 중대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감화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어머니들의 특권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머니들은 기쁜 일과 궂은 일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늘로 가도록 길을 곧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본을 따라 형성시킬 수 있다. 세상은 부패한 감화로 가득 차 있다. 유행과 습관은 젊은이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한다. 만일 어머니들이 교훈하고 지도하고 제어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은 자연히 악을 용납하고 선에서 돌아설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주 구주 앞에 나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모든 어머니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에 유의하라. 그러면 필요할 때에 그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572-573)

한나는 기도의 여자였다. - 한나는 남편의 현명하지 못한 결혼에 대해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상의 친구와 나눌 수 없는 슬픔을 하늘 아버지께로 가져갔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으로부터만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 기도에는 전능한 힘이 있다. 우리의 대적은 괴로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겸손한 성도에 의해 하늘로 올려지는 호소는 진열장의 법령이나 왕의 명령보다도 사단에게 더욱 두려운 것이다.

한나의 기도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으나 군주(Lord of hosts)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치욕을 벗고 그 나이의 여자가 가장 높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은혜 - 어머니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녀가 기도로 씨름할 때에 그녀의 음성은 소리 없이 발음되어 그녀의 입술만 움직였고 그녀의 안색은 깊은 감정의 증거를 주었다. 지금 또 다른 시련이 겸손한 탄원자를 기다렸다.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즉시 그녀가 취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잔치의 환락이 참된 경건을 거의 찬탈하였다. 여자들 중에서도 폭음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금 엘리는 꾸짖어야 마땅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기도가 들려졌다고 믿었으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온유하고 세심한 성격이었고 아직 그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술취했다는 부당한 취급에 슬퍼하거나 분개하지 않았다. 주의 기름 부은 사람에 대한 당연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녀는 조용히 죄과를 물리치고 그녀의 감정의 원인을 진술하였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그의 책망이 부당했다는 것을 시인하며 엘리는 대답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녀의 기도에서 한나는 만약 그녀의 요청의 승낙된다면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하나님의 봉사에 헌납하기로 맹세하였다. 실로를 떠나기 전에 예배의 엄숙한 행동으로 그것을 확증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녀가 매우 진지하게 간청했던 선물을 받았다. 그녀가 거룩한 호의의 맹세를 보았을 때, 그녀는 아이를 사무엘-하나님께 구함-이라 불렀다.(Signs of the Times, October 27, 1881)

엘리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했다. -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애는 개혁 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엘리야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열 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시 105:44, 45)셨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자비스러운 계획을 거의 잊어버렸다. 불신은 선민들을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키고 있었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 번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더럽혀진 이 땅에 무겁게 내려야 하였다. 배도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바알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선지자와 왕, 119-120)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날마다 이스라엘에서 줄어 갔다. 그들의 맹목적인 우상숭배의 신성 모독적 표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게 되었다. 횡행하고 있는 신성 모독적인 우상숭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일어섬으로 자신의 생명을 감히 내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알의 제단들과 해, 달, 별에게 희생을 드리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도처에서 눈에 띄었다. 그들은 신전들과 작은 숲을 구별하여 그 안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들여 놓고 경배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축복을 베푸셨건만, 주신 분께 전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늘의 모든 것, 흐르는 시내, 생수의 줄기들, 부드러운 이슬, 땅을 적셔서 들판에 풍성하게 솟아나게 하는 소나기, 이 모든 것은 저들의 신들의 가호로 돌려버렸다.

엘리야의 충성된 영혼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분개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무서운 배도로 빠져들어 갔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상기했을 때, 그는 슬픔과 놀라움으로 압도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슬픔에 짓눌린 영혼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그것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서 이슬과 비, 하늘의 보물들을 거두심으로 배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신, 곧 금과 나무와 돌로 만든 저들의 우상, 해와 달과 별들이 땅에 물을 대어 비옥하게 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기를 헛되게 고대하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신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며 당신께로 돌아설 때까지 우로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교회증언 3 권, 262-263)(Review and Herald, September 16, 1873)

엘리야는 오랜 한발과 기근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손이 형벌 받는 땅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사방에 고통과 궁핍이 증가하고 있는 흔적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찢어지는 듯이 괴로웠다. 그리하여 그는 빨리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몹시 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선지자와 왕, 132-133)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한 사람의 모본인 엘리야 -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이다.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케 되려면 계속해서 산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한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게 된다.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네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는 일곱 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 나는 우리들이 확실한 약속들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구주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불같은 창으로부터 심장, 즉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그들을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비천함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원수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약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초기문집, 73)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그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번은 어떤 곳에서 이웃에 사는 신자들이 저희 목사의 성공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늙은 부인이 듣고 있었다. 저들은 그 목사가 재능이 많은 까닭이라고도 하고,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의 행실이 좋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때에, 그 늙은 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 드리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매우 친한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처럼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며, 누구든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면 또한 그

때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이르게 된다.(복음교역자, 255)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는 극적으로 응답되었다. - 엘리야는 여호와의 분노를 격발 시킨, 오래 계속된 배도를 상기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저희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내린 저주가 물러가게 하도록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건히 무릎을 꿇고 양손을 하늘을 향하여 든 다음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다. 바알의 사제들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비명을 지르고 거품을 내뿜으며 뛰놀았으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는 뜻도 없는 비명이 갈멜산을 울리지 않았다. 엘리야는 마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였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칠고 조리 없이 기도하였다. 엘리야는 간단하고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로 당신께 돌아오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 하옵소서 ...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엄숙함에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모든 사람에게 흘렀다. 바알의 사제들은 두려워 떨었다. 자신들의 죄과를 알고 그들은 신속히 벌이 내릴 것을 예감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의 빛나는 섬광과 같은 불꽃이 하늘로부터 쌓아 올린 제단 위에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도랑의 물을 핥고 제단의 돌까지 태웠다. 타오르는 불길의 화광이 산을 비추고 군중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행해지는 일을 마음 졸이며 바라보고 있는 아래 골짜기에서도 불이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군대로부터 분리시켰던 불기둥과 흡사하였다.(선지자와 왕, 152-153)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믿음에서 뻗어 나왔다. -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북방 왕국 열 지파 가운데는 힘찬 영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그들의 배도를 보여 주고 그들로 마음을 겸손히 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호소하였다. 하늘의 형벌은 집행되었고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저희 조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하늘의 저주는 물러가고 현세의 생활의 축복이 다시 임하려 하였고 땅은 비로 다시 신선하게 되려고 하였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고 말하였다. 그 후에 선지자는 기도하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갔다.

엘리야가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아합에게 명한 것은 소나기가 내리려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다. 선지자는 하늘에 구름도 보지 못하였고 우레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굳은 신앙에 따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수행하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하늘이 미리 말한 축복을 아낌없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뭄을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비를 풍족히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엘리야는 그 약속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엘리야는 거듭거듭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종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럴 때마다 종은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고 말하였다. 선지자는 조급해 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더 열렬히 탄원하기를 계속하였다. 종은 여섯 번이나 구리처럼 굳은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없다는 말을 가지고 돌아왔다. 불요불굴의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를 보내었으며, 이번에는 종이 돌아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넉넉하였다. 엘리야는 하늘에 흑암이 모여 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그 작은 구름에서 많은 비를 볼 수 있었고 그의 믿음과 일치한 행동으로 급히 종을 아합에게 보내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 신앙가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은 하늘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았고 그의 탄원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가장 작은 증거에도 모든

것을 즐겨 모험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행할 수 있다. 이는 길르앗 산지 출신의 선지자에 대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비가 아니왔"(약 5:17)다고 기록된 까닭이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고 또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히 11:33, 34)였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높은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믿음은 응답 받은 기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그 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선지자와 왕, 155-158)

엘리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였다. -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끈기 있게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렸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3) 여섯 번이나 열렬히 기도했으나 그의 애원이 들어졌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강한 믿음으로 그는 은혜의 보좌에 기도를 재촉했다. 그가 여섯 번째 낙심으로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것이나 그는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였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탄원에 귀를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당신의 관심사와 하나되기를 원하신다. 그리할 때 그분께서는 안심하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그때,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찾는 첫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경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을 누릴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악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대신에, 우리는 부주의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될 그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3)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관습은 큰 악에서 귀인된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찬양하므로 사람들은 영광과 명예가 그들에게 속했다고 느끼게끔 만든다. 그대가 사람을 드높일 때 그대는 그의 영혼에 함정을 놓고 그대를 소유한 사단처럼 하는 것이다. 그대의 모든 마음, 영혼, 힘, 뜻,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SDA Bible Commentary, vol. 2, 1034, 1035)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종은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섯 번이나 지켜보고는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구름도 없고, 비가 올 징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낙담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곧 자신이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살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유일한 능력과 의의 근원이신 구주께 매달리며 자아를 포기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응답이 이르러왔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3)(Review and Herald, May 26, 1891)

다윗

기도를 무시한 경고로 주어진 다윗의 타락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그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한 자들의 생애에서 입증되어 왔다.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처럼 크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믿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사단의 영역에 첫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였다.(부조와 선지자, 724)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가장 진지한 기도 하나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시 51:10)라고 탄원한 다윗의 기도이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남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구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은혜로 부드럽게 된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영혼은 이기적인 정신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그들은 각자 예수님께 인도함과 용기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일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적절하게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59)(SDA Bible Commentary, vol. 4, 1165)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 안에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 솔로몬은 그의 통치 초기에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왕상 3:7)나이다.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후년에 지금껏 세상의 왕위에 올랐던 어떤 왕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하고, 가장 현명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책임이 엄숙하다는 것을 감명 받았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재능과 능력이 뛰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에 어린아이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주께 고백했을 때만큼 솔로몬이 부하고 현명하고 진실로 위대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중간생략)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중간생략)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가 가르치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위가 품성을 변화시키거나 과오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담당해야 할 책임은 더욱 크고, 그가 발휘해야 할 영향력의 범위는 더욱 넓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거룩한 품성을 계발시켜야 한다는 의식은 더욱 커진다.(교회증언 9 권, 281-282)

기도시 경계해야 할 교훈인 솔로몬의 실례 - 솔로몬의 경우에 천성적으로 담대하고 단호하고 결연했던 그가 유혹자의 능력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얼마나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가! 레바논의 늙고 마디진 삼나무, 바산의 힘센 떡갈나무가 유혹의 세력 앞에 얼마나 쉽게 구부러지던지!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끊임없는 기도 아래 주의해야 함을 가르치는 교훈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안으로의 붕괴와 밖으로의 유혹이 가진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는 경고인지! (Manuscript Releases, vol. 21, 383)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은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랍사게가 그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왕하 19:3, 4)라고 하였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대하 32:20)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히스기야에게 보낼 기별이 이사야에게 주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왕하 19:6, 7).(선지자와 왕, 354)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었다. - 유다 왕은 모욕적인 편지를 받고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세상 열국으로 하여금 아직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통치하심을 알게 하도록 굳센 믿음으로 하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위기에 처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다.

히스기야는 간청하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제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왕하 19:15-19)였다.(중간생략)

유다와 그들의 최고의 통치자의 영광을 위한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왕상 8:59, 60)고 하였다.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압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왕상 8:33, 34 참조).

히스기야는 희망이 없이 버려둔 바되지 않았다. 이사야는 그에게 기별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선지자와 왕, 355, 536, 359)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들었다. - 다윗의 시대 이래 배도와 낙담의 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있게 일한 왕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죽어가는 통치자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저희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였었다. 이제 그는 다윗처럼 호소할 수 있었다.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시 88:2, 3).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5, 6, 9, 12, 18).

그 "긍휼이 무궁하신"(애 3:22)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일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십오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왕하 20:4-6)고 하였다.(선지자와 왕, 340-341)(Review and Herald, May 6,

다니엘

효과적이고 강력한 다니엘의 기도 -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선행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이 야고보가 열렬하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라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말한다. 하늘의 왕께서 드린 이 중보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연약하고 무관심한 기도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봉사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열렬하고 애정어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별로 없다.(교회증언 4 권, 534)

다니엘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기도에 머물렀다. - 다니엘은 이 조서가 압박을 가해서 기도를 그만두었다? 그렇지 않다. 그때가 곧 기도를 필요로 할 때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큰 목소리로 하늘에 그의 탄원을 드렸다. 그 때 그의 적들이 왕께 고소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계셨다. 주의 천사가 주의 종을 둘러 야영했다. 아침에 왕이 와서 불렀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에게 아무 상처도 없었고 그는 하늘의 주 하나님을 증거하였다.(Review and Herald, May 3,

다니엘의 기도는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마음이 크게 번민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실 시기가 가까왔음을 알고 금식과 겸비와 기도로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같은 말로 하늘의 하나님께 끈덕지게 간구하였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단 9:4-6).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실함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 존귀히 여김을 받은 선지자는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실지 죄인들과 다름없이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는, 마치 정오에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이 가장 미약한 별빛과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밝듯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 그는 깊은 겸비와 눈물로써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백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았다.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가! 믿음의 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결코 변함이 없는 허락들을 붙잡기 위하여 위로 뻗쳐진다. 그의 영혼은 번민 가운데서 고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상달된 증거를 가지며 승리가 그의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히 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탄원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의 문제를 어떻게 하늘 궁정에 호소하였는가 들어보라.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단 9:18, 19)고 다니엘은 기도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그의 동족들에게 내릴 것과 하나님의 뜻을 좀더 명확히 알려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음의 부담은 엄격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임하였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치욕을 받음이니이다"(단 9:15, 16)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상실하였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단 9:17).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열렬히 사모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해 회개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야만 그 성소가 다시 번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다.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 그의 간구가 상달되어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궁정에서 급히 내려온다. 이 능력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할 사명 곧 그의 앞에 미래의 각 시대에 대한 오묘를 공개할 사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그가 진리를 알려고 애쓰고 이해하려 힘쓸 때에 다니엘은 하늘에서 파견된 사자와 교통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자기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과 진리뿐만 아니라 장래의 큰 사건들에 대한 전망과 심지어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광경까지도 계시를 받았다. 성경의 진리를 좀더 명확히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찾아보거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기도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성화인지를 알지 못한다.(성화된 생애, 47-49)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본이 된다. - 이 일을 옹호하는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채워져야 한다. 오직 위대하신 의사께서 길르앗의 향을 발라 주실 수 있다. 이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서를 읽게 하자. 그러면 그들의 거짓 사상은 바뀌어질 것이며, 올바른 원칙이 보이게 되고 현재의 일의 형편들은 바뀌어질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는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를 돕게 하셨다. 그의 원수들이

맹렬하게 그를 거스려 일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절실하게 필요로 되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분께 드린 숱한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방 왕들을 통해 일하셨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00-201)(Review and Herald, March 23, 1911)

기도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용기를 강하게 만들었다. - 이 히브리의 우국 지사는 유다에서 온 사자들에 의하여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 시련의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온 유랑자들은 고통과 비난을 당하고 있었다. 성전과 성읍의 일부가 재건되었으나 복구 공사는 방해를 받고 성전 봉사도 저지당하고 있었으며 성벽은 아직도 대부분 황폐되어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였다.

슬픔에 억눌린 느헤미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다. 슬픔 중에 그는 거룩하신 도우시는 분에게로 향하였다.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유다의 황폐된 곳들을 건축하게 해주시도록 탄원하였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과 용기는 강하게 되었다. 그의 입에는 거룩한 논증이 가득하였다. 그는 당신께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이제 나약과 압박 중에 버려진다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였다. "너희가 만일 나에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고 그를 행하면 비록 너희가 하늘 저 끝에서 추방당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을 거기 두려고 택한 곳으로 그를 데려오리라"(신 4:29-31 참조). 여러 세기 동안에도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당신께 돌아왔으니 당신의 언약은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계획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왕의 목전에서 그가 은총을 얻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느헤미야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이나 왕에게 그의 요구를 제시할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 이 기간에 비록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으나 그는 어전에서 자신의 명랑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호화스럽고 광휘 찬란한 왕궁의 넓은 방에서는 누구나 명랑하고 행복함을 나타내어야 하였다. 왕의 어느 시신(侍臣)의 얼굴에도 고통의 그림자가 없어야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물러가 있는 동안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기웠으나 하나님과 천사들은 많은 기도와 자복과 눈물을 듣고 볼 수 있으셨다.(선지자와 왕, 628-630)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그의 개인적인 죄를 시인하였다. -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도 범죄하였다는 것을 통회하며 시인하였다. 그는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며 진리를 향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중에 자신을 두었다....

느헤미야는 당연히 그분의 이름 위에 돌려야할 영광을 그분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였다.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도 이같이 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연구해 보자.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자신을 겸비하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분의 율법에 존경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선을 제거시켜서는 안된다.(SDA Bible commentary, vol.3, 1136)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했다. -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개하는 백성들의 송사를 주장하시어 그들의 힘을 회복시켜 그들의 황폐된 곳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거룩한 약속을 단단히 붙잡음으로 그의 탄원을 하늘 자비의 발판에 내려놓았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으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협에 신실하셨다. 그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나라들 중 국외로 흩으셨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똑같이 신실하시다는 확신을 발견하였다.(SDA Bible commentary, vol.3, 1136)

느헤미야는 순간의 필요들에 그의 기도를 구체화하였다. - 예루살렘의 상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그의 편견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군주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다른 질문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닥사스다보다 더 높으신 분의 지도를 구하기까지는 감히 대답을 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가 왕에게 도움을 요구한 바 성취해야 할 성스러운 임무를 띠고 있으며 또한 왕의 승인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하였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선지자와 왕, 631)

느헤미야의 기도는 확고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 오늘날 교회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곧 기도와 설교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설교가 확고부동한 목적을 포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구된다.(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77)(Signs of the Times, December 6, 1883)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기도할 수 있다. -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곤란에 싸여 거의 압도된 생애의 분주한 걸음 중에서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 해로와 육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큰 위험을 당했을 때에 이와 같이 자신들을 하늘의 보호에 의탁할 수 있다. 돌연한 곤란이나 위험을 당했을 때에, 당신의 충실한 신자들이 당신을 부를 때에 언제든지 저희를 도우러 오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 아래서도 슬픔이나 근심이나 맹렬히 엄습해 오는 시험으로 억눌린 영혼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확신과 지지와 구조를 찾을 수 있다.

만왕의 왕께 그 짧은 순간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한동안 왕궁의 임무에서 놓임을 얻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을 아닥사스다에게 고하고 예루살렘의 황폐된 곳들을 재건하여 다시 한 번 예루살렘을 강하고 방비된 성읍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를 간구하였다. 유대 민족에게 미칠 중대한 결과가 이 요구에 달려 있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말했다.(선지자와 왕, 631-633)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머무르도록 우리를 묶어 둘 그분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상태이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한 예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왔을 때, 왕은 그에게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그가 해야 할 요청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히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중요한 순간이었다. 나라의 운명이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인상에 달려 있었다. 느헤미야는 왕께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의 화살을 던졌다.

그 결과로 그는 그가 구하고 또한 소망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얻었다.(Signs of the Times, October 20, 1887)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써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不純)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늘과 간단없는 교통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정로의 계단, 99)

느헤미야는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였다. - 소리 없이 비밀리에 성을 순회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어려운 현지 답사를 하는 가운데 그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소문이 일어나 그의 사업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까 하여 동료들이나 원수들의 주의를 이끌기를 원치 않았다. 느헤미야는 남은 밤 시간을 기도하는 데 바쳤으며 이튿날 아침에는 낙심되고 분열된 그의 동족들을 일깨워 연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했다.(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74)

느헤미야의 성공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다. -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저희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용서를 간구하였다. 그들은 끈기있게 수고하고 기도하며 고생을 견디었다. 그들은 악한 일에 그들의 세력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십 배나 증가시켰다. 이 반역자들은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때 사용할 재료를 공급해 주었다. 그들의 악한 감정과 반역적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와 교전 중에

있었다. 느헤미야의 노력에 따른 성공은 기도와 믿음과 현명하고 정력적인 행동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중대한 시기를 위해 일어난 한 개혁자였다.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한 큰 목적에 감동된 그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고상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실성이 그의 노력의 특징이 되었다. 그가 악과 의를 반대하는 세력과 접할 때에 매우 확고부동한 입장을 취하므로 백성들은 새로운 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깨우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을 보고 그들은 그가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갔다.(선지자와 왕, 675-676)

침례 요한

요한은 그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명상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썼다. -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은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이 한적한 은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하므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그의 사명의 짐이 그에게 놓여있었다.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평생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동이는 데 힘썼다.(시대의 소망, 102)

기도는 요한에게 지상의 왕을 대항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 침례 요한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다.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했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런 이상(異像)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함의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떨면서 만왕의 왕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교회증언 8 권, 331-332)

베드로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생명으로 일으키려는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에 사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방에서 내어 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르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사도행적, 132).

14 장 매일의 기도

매일의 양식처럼 필수적임. -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납하실 수 있는 품성을 양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 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매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4-115)

날마다 기도할 우리의 필요 -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의 기도에 섞인 향기가 그분의 자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중재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한결같다. 날마다, 아침저녁마다 겸손한 마음은 은혜와 평화와 기쁨의 응답을 되돌려드리는 기도를 필요로 한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SDA Bible Commentary, vol.6, 1078)

기도로 그대의 하루를 보내라. -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 빛을 직면하라. 그리스도께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접촉한다면 높이 올려지고 소생시키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대의 믿음을 강하고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라. 그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날의 의무를 수행할 힘과 그 시험에 직면할 힘을 주시도록 구하라.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성품을 그대의 작업장에 가져와 그대를 돕도록 그분께 구하라.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그대를 구속주께 가까이 끌어당기는 말을 하도록 그대를 도우시기를 구하라.(Sons and Daughters of God, 199)

매일 아침 시간을 갖고 기도로써 그대들의 사업을 시작하라. 이것을 낭비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아 있을 시간이다. 이 수단을 통하여 성공과 영적 승리가 오게 될 것이다. 기계는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간구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사업은 시작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를 수 없다.(교회증언 7 권, 194)

나의 형제와 자매들, 늙은이와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에게 여가의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을 펴고 그 귀중한 진리들을 마음에 간직하라. 일을 할 때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하라. 말은 적게 하고 명상은 많이 하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들의 말을 선택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혼의 원수에 대하여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 그분의 천사들이 언제나 그대들 곁에서 그대들의 말과 그대들의 행동과 그대들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신앙적으로 기울여지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길을 택하면 그대들은 미구에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 스스로를 유혹의 길에, 사단의 전쟁터에 두게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의 간계에 정복당할 것이다. 어떤 기간에 신앙의 고백을 해 온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도 없고 민감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헛되고 경박하다. 그들의 대화는 저급한 수준에 속한다. 더욱 높고 더욱 고상한 사상이 배제된 채 구혼과 결혼이 마음을 사로잡는다.(교회증언 4 권, 588-589)

가르침과 지도를 위해 날마다 주님께 가라. 빛과 지식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대가 이 가르침과 이 빛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대가 구한 다음 그대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기도에 두라. 그대의 손으로 일하는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온 마음으로 내가 믿사오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게 하소서." (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531)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대들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대들은 그분의 감시 아래 일하고 있다는 것과, 그분의 임재로 그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그분께서 그대들의 동기를 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매 발걸음마다 그대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고 겸손히 묻게 될 것이다. 아침과 저녁에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가 그분의 축복과 지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진실한 기도는 전능하신 분을 붙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무릎에서 유혹을 저항할 힘을 얻는다.(교회증언 4 권, 615)

매일 얼마의 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쳐라. -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에, 또한 성경 연구에 바치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욕망,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의식 등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순결과 빛과 사랑과 하늘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무한하신 분 앞으로 나올 거룩한 담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숭고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추상적인 명상은 충분하지 않고 바쁜 활동도 충분하지 않다. 그 두 가지는 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형성에 요긴하다. 열렬하고 은밀한 기도에서 얻은 힘은 사회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목적으로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영향을 물리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강할 것 같으면 불신자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교회증언 5 권, 112-113)

매일의 기도의 결과 -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계발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어진 힘, 다시 말해 마음을 사려 깊고 조심성 있는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꾸준한 노력과 연합된 힘은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 준다.(산상보훈, 85)

사탄을 저항하기 위해 매일 필요되는 기도 - 성화는 한순간, 한 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해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교회증언 1 권, 340)

육체적 영적 필요를 둘 다 포함시켜야 할 매일의 기도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기 위해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 그 말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 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산상보훈, 112-113)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 -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을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사도행적, 49-51)

매일의 필요를 위해 은혜를 구하는 기도 - 심령 속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 우리의 주위 환경들, 즉 우리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는 변화들과 모든 것을 식별하고 입증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 이들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기에 충분하다. 그대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할 생각의 통로로 마음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그대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은 그대에게 성가시게 보이나 누군가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마다의 생애의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교회증언 3 권, 333)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 - 예수를 믿기로 시인한 자들은 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날마다 성령의 빛이 거룩한 책의 페이지들을 비춰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Fundamentals of Christians Education, 188, 189)

안식일이 가져올 축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 - 안식일이, 그분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이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나라의 율법을 매일 실천할 것이다. 안식일의 성결케 함이 그들 위에 머물기를 매일 기도할 것이다.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며, 그분의 품성의 완성을 구현할 것이다. 매일 그들의 빛은 선행을 통하여 타인에게 비춰질 것이다.(교회증언 6 권, 353)

부모의 매일의 기도 -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대의 일을 유쾌하게 만들라. 그대가 하늘 책에 깨끗한 기록을 남기고 싶거든 결코 성을 내거나 야단을 치지 말라. "주님이여, 나에게 나의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더욱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모셔 들이라. 그렇게 할 때 그대의 생활은 광명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명랑하게 추진시키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새자녀 지도법, 148)

지혜와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젊은이 - 그리스도의 생애는 순결과 견인 불발과 확고한 원칙은 고생과 가난과 역경이 없는 생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었다. 심히 많은 청년들이 불평하는 시련과 곤궁을,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견디셨다. 그리고 이 훈련은 바로 청년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 될 것인바, 이것은 그들의 성격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정신이 강건하여 유혹에 저항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들의 도덕을 부패케 하려는 자들의 영향을 떠난다면 그들은 사단의 계교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얻어 싸움과 엄숙한 인생의 현실을 견디고 마침내 개선(凱旋)할 것이다. 성실함과 마음의 평정은 깨어 기도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내력 곧 비난과 조롱과 궁핍과 곤난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않은 인내력의 모범이었다.

청년들은 모두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시련이 많이 닥쳐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시험하시고 증명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역경 중에 그들이 품성의 성실성을 유지하는, 바로 그만큼 그들의 용기와 견인불발과 인내력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이 강하여 질 것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9-80)

매일 기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필요 - 모든 교사는 매일 그리스도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해야 한다. 교사가 하나님과 기도로써 많은 교통을 갖지

않는 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거나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열심있고 자제하는 노력과 함께 거룩한 도움이 있을 때에만 자기 사업을 현명하고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교사가 만일 기도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육의 본질 그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는 기도하는 법과 기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다. 교사는 반드시 자신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간청들이 들으신바 되었다는 보증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31)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기도했다. -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부조와 선지자, 353-354)

매일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 경험을 양육시킨다. - 신앙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고 매일의 기도로 양육되어야 한다.(교회증언 4 권, 535)

매일의 기도 생활은 열렬한 노력을 요구한다. 열렬한 노력 없이 지탱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귀중한 열매를 맺고,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활동하는 정신은 품성의 깊이와 안정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스러움을 주고,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포부는 고상하게 된다. 게으름과 이기심이 있을 자리가 없다. 그리스도인 덕성을 활용하는 자들은 자라날 것이다. 그들은 영적 체력과 근육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강해질 것이다. 그들은 명석한 영적 지각, 튼튼하고 증가되는 믿음, 효과 있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자기 자신을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완전히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교회증언 5 권, 607)

천사는 아침 기도를 주목한다. - 그대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품성에 선악간에 영향을 끼친다. 그대들이 행사한 바로 그 영향력이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 한 천사가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대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리하여 그대는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그대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들은 그대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발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를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가 부지중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 그대 편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며, 그대를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교회증언 3 권, 363-364)

매일의 기도 훈련은 우연히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 가족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대는 가끔 기도하거나, 낮에 할 일이 많을 때라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도록 인도한다.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조석으로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시 95:1, 2)고 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사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주위에 가족들을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가정을 지켜 주기를 구하라. 그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혹이 가까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손님들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자. 기도의 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너무 피곤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될 때까지 이야기하거나 놀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완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된다. 저녁 일찍이, 서서히, 또한 사려 분별 있게 기도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또 소리내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신성하고, 또 가장 행복스러운 시간인 것을 알게 하라.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그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정화(淨化)와 향상의 감화를 끼쳐 준다. 또한 그것은 마음에 즐거운 평화와 안식을 일으킨다.(새자녀 지도법, 520-521)

감미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매일의 기도 -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가 천막을 치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 천막 곁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의 희생을 드렸다. 그의 천막은 옮겨졌어도, 그 제단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랑하는 가나안인이 그 제단에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천막을 쳤을 때는 그 제단을 고쳐 쌓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와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기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침 이슬처럼 그분의 자비와 축복이 간구자들에게로 내려올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매 아침과 저녁에 자녀들을 그대들 주변으로 모으고 겸손한 간구로 도움을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라. 그대들의 사랑스러운 어린 것들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날마다 머리 아픈 일들이 젊은이와 늙은이들의 길을 둘러싸고 있다. 인내하고, 상냥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도움을 받음으로써만 우리는 자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데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대들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의 수락은 이미 간직한 계획의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생애가 거룩한 모본을 따라 차츰 꼴 지어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빌 4:7)실 것이다.(교회증언 7 권, 44)

무엇을 위하여 매일 기도할 것인가 - 우리는 모든 의무를,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 드려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일을 더욱 잘 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셔서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치료봉사, 474)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정로의 계단, 70)

15 장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모본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라. -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 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 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종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 행로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사 41:13)고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아침에 있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신선하고 능력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는가! (교육, 259)

예수님의 열렬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와 대조된다. -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말한다. 하늘의 왕께서 드린 이 중보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연약하고 무관심한 기도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봉사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열렬하고 애정어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별로 없다.(교회증언 4 권, 534)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겠는가. -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 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보증도 된다.

예수 자신도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때에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께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한 탄원자와 간구자가 되신 사실은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궁핍하고 연약하였던 것을 증거한다. 그는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형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히 4:15)는 자니 그의 품성이 악을 물리치셨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심령의 투쟁과 고민을 당하였다. 그의 인성(人性)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정로의 계단, 93-94)

그리스도께서는 열렬히 기도하셨다. 그는 하늘에 남겨진 자들과 이 땅에 온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격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그의 탄원을 아버지께 드렸다. 그렇다면 사람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 (Review and Herald, April 1, 1890)

예수님께서는 시련을 견딜 힘을 위해 기도하셨다. - 너무 적은 사람들이 시련을 견딜 힘을 위하여, 또한 이 세상의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열렬히 자주 기도하셨던 우리 구주의 모본을 따르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선장이시다. 그분 자신의 고난과 희생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모본이 되셨으므로 만일 그들이 타락한 인종을 위해 그분의 가슴에 지니고 있는 사랑을 정확하게 표한하기를 원한다면 그들 편에서도 깊은 주의와 기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Review and Herald, February 23, 1886)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왔다. - 그리스도의 힘은 기도에 있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차단된 숲과 산으로 물러나셨다.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분은 그분의 탄원을 쏟아 부으셨고 무한한 손을 붙잡는데 그의 영혼의 모든 힘을 발휘하였다. 새롭고 엄청난 시련이 그분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분은 산의 고독 속으로 몰래 들어가 온 밤을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보냈다.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며 만일 우리가 열렬하고 성가시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분의 모본을 따른다면 약삭빠른 적의 계책을 저항하기 위해 사단의 유혹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이름 안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The Youth's Instructor, April 1, 1873)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신 생애를 하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하여 쉬임 없으신 활동과 사람의 곤궁에 응하시는 생애에서 돌아서셔야 하였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오라고 분부하신다. 예수의 말씀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유용하게 될 것이다. 교훈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고한다면 우리는 실망 당하지 않을 것이다.(시대의 소망, 362-363)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더 굳게 붙잡아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셨다. 그의 엎드리신 몸 위에 이슬이 무겁게 내려 앉았으나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밤의 어둠이 그의 주위를 짙게 둘렀으나 그는 어두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시대의 소망, 419-420)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둘러싸였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일에 몰두하신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유약성을 초월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영광이 떠나게 되자 그분께서는 시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홀로 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매순간마다 시험은 주님을 세차게 공격하였다. 주님의 인간적인 본성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투쟁에서 움츠러들었다. 주님께서는 40 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굶주림으로 연약하여지고 몸이 수척해지신 주님께서는 지치시고 기진하셨고 정신적인 고뇌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사 52:14)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사단이 노리고 있었던 기회였다. 사단은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가려뽑은 기별 1 권, 227-228)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새로운 공급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고 축복하려고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에게 경이로운 위안이 된다.

당신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도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과 대항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모으셨다.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필요들을 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는 사자들이 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아시나, 당신을 섬기려고 전적으로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의 모본이 믿음으로 -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고 당신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인도하는 신앙으로 - 하는 열렬하고 끈기 있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한다는 데 대한 큰 보증이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확물이 익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될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부흥하게 하고 성화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9)가 될 수 있게 한다는 확신을 가진다.(복음교역자, 510-511)

기도는 시험을 위하여 예수를 강하게 했다. -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관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분은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셔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그분의 필요는 인간의 필요였다. 그분은 육체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고 육체적으로 구원해야할 연약함이 있었다. 그분을 의무와 시련으로부터 떠받쳐 준 것은 그분의 아버지께 드린 기도였다. 날마다 그분은 일상의 의무를 따랐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았다. 또한 그분은 시험받는 자들을 위해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다.

구속주께서 산 속이나 사막에서 보낸 기도의 밤 시간은 다가올 날들에 부딪혀야만 하는 시련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이었다. 그분은 영혼과 몸을 새롭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줄 필요를 느끼셨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을 만났을 때 그분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이 똑같은 필요를 느끼게 하실 것이다.(Maranatha, 85)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매일 만나게 될 악영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와 그분의 영혼이 강해져 다가올 날의 의무와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분의 성스러운 탄원은 아버지께로 올려졌다.(Review and Herald, August 17, 1886)

기도는 예수님의 원기를 회복시켰다. -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드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랍비들의 신빙성 없는 궤변을 폭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산상보훈, 102)

기도는 예수님의 영적 생활을 받쳐 주었다. -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행 10:38)실 때에 겪으신 매일의 경험은 바로 그분의 생활이었다. 이러한 생애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셨다.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또 거기서 얼마 동안 살 때에는 그 행위가 고상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후에는 신앙이 쇠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평생사업이 좌절되고 만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는 교제로 유지된 변함없는 신뢰의 일생이었으며, 하늘과 땅에 대한 그분의 봉사는 실패하거나 실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한낱 사람으로서, 당신의 인성에 하늘의 권능이 더해져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교육, 80-81)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영적인 능력의 비밀을 드러낸다. - 지상에서의 구주의 삶은 천연계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었다. 이 교제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능력의 삶의 비밀을 드러내셨다.(Counsels on Health, 162)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실 때 기도하셨다. -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한적한 산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새곤 하셨다. 열 두 사도의 안수, 산상설교, 변화산의 경험, 심판정과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룻밤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치료봉사, 509)

예수님의 인성은 기도 할 필요를 만들었다. - 그분이 인간이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의 힘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분께서는 기도 장소를 찾으셨다. 그분은 산 속에서 홀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을 사랑하셨다. 이런 생활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영혼은 그날의 의무와 시련을 위해 힘을 얻었다.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궁핍과 연약함에 하나가 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의무와 시련을 위해 무장된 모습으로 힘차고 신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새 힘을 구하는 자로서 간구자가 되셨고, 밤에는 탄원자가 되셨다. 그분은 매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뎌 내셨다. 그가 인간이셨으므로 기도가 필요하였고, 그 기도는 특권이 되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의 희락을 버리고 냉랭하고 배은 망덕한 세상에서 살 것을 택하신 그분께,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강하고 거룩한 모든 뒷받침과 위안을 그분은 기도로 요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위안과 기쁨을 발견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그의 마음을 쪼개는 슬픔을 덜어 놓으실 수 있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고, 비애를 맛보셨다.

낮 동안에는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타인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셨다. 병자를 고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낮의 일이 끝나면 밤마다 도시의 소란을 피하여 나아갔고, 한적한 숲속에서 엎드려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때때로 엎드린 모습 위에 환한 달빛이 비취었다.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보든 빛을 가려 버렸다. 간구하는 동안에 밤의 이슬과 서리가 그의 머리와 수염에 붙었다. 그분은 자주 철야하며 간구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만일 인간의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에 봉착하셨을 때에 그분은 금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위대하신 모본을 따라야 한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의 식탁에는 건강 식품도 아니며 필요치도 않는 값비싼 음식이 자주 놓인다. 이는 우리가 자기 부정과, 질병 없는 몸과, 건전한 마음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열렬히 능력을 구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께서는 이것을 가장 잘 차려진 식탁에 앉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우고, 우리에게 할당된 일을 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가 필수적임을 보여 주는 증거를 주셨다. 우리의 힘은 연약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강하며, 그것을 얻는 모든 사람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교회증언 2 권, 201-203)

예수님께서는 바쁘고 지친 것과 상관없이 기도할 시간을 가졌다. - 그리스도께서는 하기 싫은 봉사를 마지못해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시간과 마음과 심령과 능력은 인류의 유익을 위한 활동에 바쳐졌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나날을 일하는데 쓰셨고, 긴 밤 시간은 더욱 큰 일을 하기 위한 은혜와 인내력을 얻기 위한 기도에 바쳤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힘을 얻고, 온갖 기만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간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무장을 갖추고자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하나님께 탄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다(요 13:15).(치료봉사, 500)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기도하셨다. - 이른 아침 종종 어떤 한적한 장소에서 명상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찾았다. 노래하는 음성으로 그분은 아침빛을 맞이했다. 감사의 찬양으로 그분의 시간들을 북돋았고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주었다.(Counsels on Health, 162)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기도하셨다. - 이른 아침이면 한적한 곳에서 명상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노래하는 음성으로 그분께서는 아침의 태양 빛을 환영하셨다. 그분께서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므로 일하는 시간을 즐겁게 하셨으며, 노동으로 지쳐 피곤해 진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다.(복음 전도 498-499)(Counsels on Health, 162)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셨다. -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갖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은밀한 장소를 가지고 계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비록 훌륭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홀로 지낼 수 있는 장소로 물러갈 필요가 있다.(산상보훈, 84)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 예수께서는 고통과 궁핍에 빠진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와 자아 부인, 자아 희생을 하심으로 자주 피곤하게 되셨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현재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관해 원수가 퍼붓는 시험을 저항하는 일에 그대의 본성이 연약함을 보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외로운 산상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대가 스스로의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분께서 강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당신의 아버지께 당신의 기도를 쏟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교회증언 3 권, 379)

제자들은 그분의 기도 습관에 깊게 감명되었다.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를 ...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실물교훈, 139-140)(Review and Herald, August 11, 1910)

주님의 기도는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영혼의 실제적인 소망에 의해 불어넣어진 진실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만이 진실하고 탄원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간략하고 포괄적인 기도를 주셨다. 이 기도는 그것의 아름다운 단순성에서 유례없다. 그것은 공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이다. 그것은 고귀하고 고상하며 어머니의 무릎에 앉은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세기 동안 이 기도를 반복해 왔으며 아직도 그 광택은 흐릿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보석의 가치와 같이 계속해서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 이 기도는 위대한 작품이다. 그들의 기도 안에 그 가운데 포함된 원칙을 넣는다면 아무도 헛되이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영혼의 실제적인 소원만을 표현해야 하며 우리가 매우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단순하고 간단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겸손한 자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부터 온 기도는 의에 배고픈 영혼에게 생명의 호흡이다.(Signs of the Times, December 3, 1896)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셨다. -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는 공중 앞에서든지 혹은 은밀한 방에서든지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으며 그분의 제자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었다. 바울은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라고 말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려고 "무릎을 꿇"었고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1)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 -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유는 모두가 알아야 할 원칙을 드러냈다.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실물교훈, 142)

16 장 개인적인 기도

개인 기도는 필수이다. -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쓰지 않으면 영혼이 잘될 수가 없다. 가정 기도나 공중 기도로는 불충분하다. 은밀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홀로 있을 때에 영혼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길 앞에 있는 그대로 펴놓이고 모든 동기는 점검된다. 은밀한 기도!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들리게 해야 한다. 그러한 탄원의 소리를 호기심 많은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영혼은 주위의 영향과 흥분으로부터 자유롭다. 고요히, 그리고 열렬하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큰소리를 냄으로 자주 상하게 되고 달콤한 맛을 잃는다. 하나님께 대한 조용하고 침착한 믿음과 신뢰 대신에, 영혼이 낮고 겸손한 음조를 내는 대신에, 목청을 돋구며, 흥분을 장려하게 되면 은밀한 기도는 부드럽게 하는 거룩한 감화력을 잃는다. 감정의 폭풍우와, 억수 같은 말은 은밀하고 참되며 감동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영혼에게 속삭이시는 잔잔하고 작은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은밀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참 좋은 열매를 많이 얻는다. 그러나 가족 전체나 이웃에게 들리도록 하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아니다. 은밀한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여서는 거룩한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감화력은 달콤하며 지속적인 것이다. 그분의 귀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듣기 위해 열려져 있다. 은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단의 투쟁을 견디기 위해서 영혼을 강인하게 하며 견고케 하기 위해 거룩한 빛을 모아 들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채이시다.(교회증언 2 권, 189-190)

개인기도, 가족 기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집회에서의 공중 기도, 이 모든 것은 요긴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생애에서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교회증언 7 권, 239)

모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 바로 악의 시초는 경성과 은밀한 기도의 등한이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적 의무의 태만이 따랐고, 그같이하여 뒤이은 온갖 죄에 대한 길이 열렸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 육신적 본성의 부르짖음,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교회증언 5 권, 102)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 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절제생활, 135)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 그대는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을 수는 없어도 그대의 조용한 탄원이 힘과 안내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할 수는 있다. 시험받을 때, 그렇게 될 때에 그대는 가장 높은 비밀 장소로 도망할 수 있다. 그분의 영원한 팔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Counsels on Health, 362)

비밀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적당하다. -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이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정로의 계단, 98-99)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존전으로 데려간다. - 공적인 모임에서, 가족 제단에서 또는 은밀하게 드려지는 기도는 사람을 곧장 하나님의 존전에 두게 한다. 끊임없는 기도로 젊은이들은 가장 강력한 유혹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매우 굳센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이다.(My Life Today, 18)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준다. -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이다.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케 되려면 계속해서 산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한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게 된다.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다."고 하였다.(초기문집, 73)

개인 기도는 영혼을 떠받친다. -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교육, 258)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귀기 위해 필요 된다. - 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교훈들을 날마다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 지식으로 알아야 한다. 은밀한 기도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사귀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의료봉사, 102)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한다. -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특별히 은밀한 기도를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다.(초기문집, 72)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최고의 헌신,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줄이는 것이나 그분께 돌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우상이 된다. 그것이 땅이든, 집이든 상품이든 우상이다. 사업은 열심과 에너지를 가지고 영위하는 반면 하나님의 봉사는 두 번째 사항이 되고 있다. 가족 예배는 경시되고 은밀한 기도는 잊혀졌다.(SDA Bible Commentary, vol.2, 1011, 1012)

기도의 등한은 점진적이다. -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그대들이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대적하는 무기이다. 기도와 성경 공부에 있어 한 번의 등한은 그 두번째의 등한을 용이하게 한다. 성령의 호소에 대한 한 번의 반항은 그 두번째 반항에의 길을 준비한다. 양심이 마비된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6)

가끔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 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250)

개인 기도는 개인적이어야 한다. - 개인 기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길게 기도할 특권과 솔직하게 기도할 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친척들과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골방은 그들의 모든 사사로운 어려움, 시련, 유혹을 고할 장소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일반적 모임은 마음의 사적인 일을 열어 놓을 장소가 아니다.(교회증언 2 권, 578)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드려짐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귀에도 들려선 안 된다. 이런 간구의 내용이 호기심이 많은 귀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갖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은밀한 장소를 가지고 계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비록 훌륭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홀로 지낼 수 있는 장소로 물러갈 필요가 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로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

하나님의 눈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께 쏟아 놓을 수 있다. 그리하면 인간의 필요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음성이 영혼의 고요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야고보서 5 장 11 절). 그분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완고한 자들의 자복을 들으시고 그들의 참회를 받아 주시고자 기다리신다.

그분은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에게서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서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시를 기다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당신의 동정으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를 당신의 충만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분께 나온 사람은 아무도 실망을 맛보지 않았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시편 34 편 5 절).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계발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어진 힘, 다시 말해 마음을 사려 깊고 조심성 있는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꾸준한 노력과 연합된 힘은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 준다.(산상보훈, 84-85)

개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기도회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가 거기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 이들이 얼마간 있는 듯하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총회나 기도회의 방해자라는 이름을 붙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빛을 전혀 내지 못하며 아무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들의 냉랭하고 얼음 같은 기도와 길고 퇴보적인 간증은 그늘만 드리운다. 그들의 기도나 간증이 끝나면, 모두가 기뻐한다. 그들의 기도와 훈계가 모임에 가져 온 냉기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받은 빛에 의하면, 우리의 집회는 신령하고 화기애애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길지 않아야 한다. 침묵, 교만, 허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집에 두어야 한다. 사소한 불화나 편견은 이러한 집회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빛을 가져옴으로써 원기가 회복되고 활력을 얻기 위하여 모이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속에는 연합한 가정에서처럼 단순과 온유 및 확신과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교회증언 2 권, 578-579)

은밀한 기도는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 은밀한 기도만큼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그대들의 이해력을 열어 주시고 그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등한히 해서는 안 될 평범하고 단순한 의무들이 그대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교회증언 5 권, 163)

오늘날 말세의 모든 위험 중에서 우리 청년들의 유일의 안전책은 날마다 끊임없이 더욱 경계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청년들은 생명의 샘물을 마심으로써 부단히 새롭게 될 것이다. 그는 탁월한 도덕적 표준에 도달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광범한 사상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좋은 사상과 고상한 욕망과 진리에 대한 명철한 인식과 고귀한 행동의 목적을 격려받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인정함을 받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향상하고 또 향상하여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좀더 뚜렷한 개념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필경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세상에 대한 빛과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러나 기도는 마땅히 이해되어야 할 만큼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는 길게 하거나 큰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생각들을 읽고 계신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공공연히 갚아주실 것이다.

불행을 조금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불행한 일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기도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기도이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7-248)(The Youth's Instructor, August 18, 1898)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에, 또한 성경 연구에 바치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욕망,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의식 등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순결과 빛과 사랑과 하늘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무한하신 분 앞으로 나올 거룩한 담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영광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그들은 또한 이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앎으로써 세련되고, 고상하고, 숭고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추상적인 명상은 충분하지 않고 바쁜 활동도 충분하지 않다. 그 두가지는 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형성에 요긴하다. 열렬하고 은밀한 기도에서 얻은 힘은 사회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목적으로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영향을 물리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강할 것 같으면 불신자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교회증언 5 권, 112-113)

하나님께서 소리없는 기도를 받으신다. - 주님께서는 짐진 마음의 소리없는 탄원까지도 받으실 것이다.(The SDA Bible Commentary, vol.2, 1014)

기도는 증거를 앞서야만 한다.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실물교훈, 149)

우리는 빛과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일꾼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분위기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협력하기 때문이다. 이런 증거가 이 때에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와 함께 끌어당기는 능력이 필요하다.(교회증언 6 권, 52)

우리는 이중생활, 즉 생각과 행동의 생활, 조용한 기도와 열렬하게 일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중간생략) 매일 열렬한 기도로 그 능력, 그 지지,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드높은 행동의 목적 그리고 의에 대한 끊임없는 주림과 목마름을 갖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4 권, 459-460)

만일 분주한 일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목적에서 떠나간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우리는 손실을 초래할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접근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한다면, 비록 우리 손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라도 기도한다면, 구주의 귀는 우리의 간청을 듣기 위해 열린다. ... 하나님은 마땅히 그대가 책임상 있어야 할 장소에서 그대를 돌보신다. 그러나 되도록 자주 기도드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의료봉사, 216)

기도에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라. - 공중 집회에서든지 혹은 가족 예배나 또는 은밀한 방에서든지 간에, 어렵고 과장된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특히 공중 앞에서 기도드리는 자는 쉬운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다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그 기도에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하늘에 상달하고 땅에서 응답되는 기도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기도이다.(복음교역자, 177)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 공중 예배나 가정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눅 22:41)셨다. 그분의 제자들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행 9:40)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엡 3:15) 빈다고 말했다.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에 무릎을 꿇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단 6:10)다.(선지자와 왕, 48)

개인기도에 그대들을 부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오락에 참여하지 말라. - 그대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참석할 수 있는 오락이라면 위험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밀한 기도와 기도의 제단에서의 헌신, 그리고 기도회 참석 등에 그대들을 부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오락은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며, 위험한 것들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86)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 기도 장소에서 우리를 보신다. -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시대의 소망,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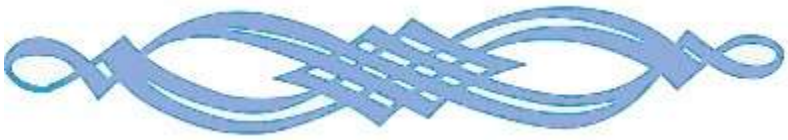
우리의 기도는 잃어버린바 될 수 없다. -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아무 가치 없는 흠 많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 상달할 말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우편에 있노라"(시 16:8 참고)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 삼아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 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바 된다.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기를 구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 필요는 경우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독한 때와 피로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의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해 응답된다.(복음교역자, 258)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실물교훈, 174)



17 장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가족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 - 가족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대는 가끔 기도하거나, 낮에 할 일이 많을 때라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그대는 자녀들이 기도를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도록 인도한다.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조석으로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시 95:1, 2)고 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사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주위에 가족들을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가정을 지켜 주기를 구하라. 그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혹이 가까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손님들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자. 기도의 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너무 피곤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될 때까지 이야기하거나 놀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완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된다. 저녁 일찍이, 서서히, 또한 사려 분별 있게 기도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또 소리내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신성하고, 또 가장 행복스러운 시간인 것을 알게 하라.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그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정화(淨化)와 향상의 감화를 끼쳐 준다. 또한 그것은 마음에 즐거운 평화와 안식을 일으킨다.(새자녀 지도법, 520-521)

주님께서는 지상의 당신의 자녀들의 가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천사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향을 드린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마다 신선한 아침과 일몰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주의 공로를 제시하면서 하늘에 기도를 올려 보내야 한다. 조석으로 온 하늘은 모든 기도하는 가정들을 주목하고 있다.(새자녀 지도법, 519)(My Life Today, 29)

하늘 우주는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을 보고 있고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수종드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가는 통로를 찾고 있다.(SDA Bible Commentary, vol.7, 971)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세속적인 노동과 사리(私利)는 제 이차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도 기도 시간을 준수하고 즐겨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 조석으로 진실한 기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일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니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생애할 지를 친절하고 꾸준하게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519)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미의 제물로써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어린이들은 기도 시간을 존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침과 저녁마다 열렬한 기도와 끈기있는 믿음으로 자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의무이다.

가정 교회에서 자녀들은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도록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았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온유한 심령과, 그대들과 자녀들 앞에 유혹과 위험이 있음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제단에 묶고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도록 탄원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 자녀들에게 단순한 기도를 드리도록 훈련시켜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당신께 호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말해 주라.(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10)

일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모든 가족을 한데 모으라. 그리고 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어머니가 그들을 하루 동안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것이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대 자신과 자녀들 앞에 유혹과 위험이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라. 믿음으로 자녀들을 제단에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라. 섬기는 천사들은 이와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들을 지켜 줄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519)

가족마다 조석 예배를 위한 고정된 시간을 가질 것이다. 부모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밤사이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와 보살펴 주심을 구하기 위하여 조반을 하기 전에 그들의 주위에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지난 하루 동안에 주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돌리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새자녀 지도법, 520)

가족 기도는 요긴하다. - 개인 기도, 가족 기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집회에서의 공중 기도, 이 모든 것은 요긴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생애에서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교회증언 7 권, 239)

기도하지 않는 가정만큼 슬픈 것은 없다. - 기도하지 아니하는 가정만큼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없다. 나는 이와 같은 집에서는 단 하룻밤 동안이라도 안전함을 느끼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슬픈 태만을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나는 머무르지 아니하였다. 어린이들은 이 태만의 결과를 결국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새자녀 지도법, 518)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모든 가정 - 모든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교회증언 7 권, 42)

가족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존전으로 데려간다. - 공적인 모임에서, 가족 제단에서 또는 은밀하게 드려지는 기도는 사람을 곧장 하나님의 존전에 두게 한다. 끊임없는 기도로 젊은이들은 가장 강력한 유혹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매우 굳센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이다.(My Life Today, 18) 180p 에 있는 내용 반복

가족 기도는 힘과 축복을 가져다준다. - 우리는 우리가 평시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또는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때 큰 능력과 축복이 있다. 나의 자녀들이 그릇 행하였을 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하고 그런 후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을 때 그들을 벌할 필요가 없었다. 자녀들의 마음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는 성령 앞에서 부드럽게 풀어질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525)

단순한 언어가 기도에 가장 적합하다. - 공중 집회에서든지 혹은 가족 예배나 또는 은밀한 방에서든지 간에, 어렵고 과장된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특히 공중 앞에서 기도드리는 자는 쉬운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다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그 기도에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하늘에 상달하고 땅에서 응답되는 기도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기도이다.(복음교역자, 177)

그대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라. - 그대의 자녀들은 친절하고, 남을 동정하고, 점잖고, 말을 잘 듣도록 교육받아야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신령한 사물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요구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기도 시간을 존중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침에 가족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요구할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521)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이 최고이다. - 하나님의 영이 확신을 줌으로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기에 적당한 장소는 가족제단이다.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동떨어진 것일 때에는, 골방은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한 모임은 생동감이 있고 흥미로울 것이다.(교회증언 1 권, 145-146)

주께서는 따분한 형식이 된 가족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조석 예배는 따분한 형식, 곧 감사의 정신이나 부족감의 표현은 조금도 나타나지 아니한 지정된 구절의 지루하고 단조로운 반복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예배가 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한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정신으로 하는 기원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에 대한 인정, 우리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고마운 사랑에 대한 경의 이것이 곧 참된 기도이다.(새자녀 지도법, 518)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훈련시키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 각 가족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상에서 신앙이 주는 힘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들의 지도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모본으로 가르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그들의 일을 행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자녀들에게 이생만을 위하여 살도록 교육한다면 자녀들은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없이 죽을 것이며, 부모들은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는 자녀들을 현명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가족 제단에서 조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새자녀 지도법, 517)

그대들은 자녀들을 그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이 세상에 낳았다. 그대들은 그들의 행복과 영원한 복지에 관하여 상당한 책임을 스스로 진 것이다. 그대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위해 훈련시키고, 간교한 원수의 첫 접근을 조심스레 막으며, 그를 대항하여 깃발을 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그대들에게 있다. 그대들의 자녀들 둘레에 기도와 믿음의 성벽을 만들라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라. 그대들은 한 순간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교회증언 2 권, 397-398)

부모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들의 큰 책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요. 그들은 거기서 상담과 교훈에 있어서 결코 실수함이 없는 분께 그들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재림신도의 가정, 321)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로써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사단의 잔인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교회증언 7 권, 42-43)

그리스도의 많은 은혜를 맡은 충실한 청지기처럼 부모들은 참을성 있게, 친절하게 그들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이 충실한 자들이 되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일에 지치거나 조급하거나 초조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밀접히 고착되어야 한다. 만일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순결과 정절의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게 하도록 열심히 도우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일한다면 성공할 것이다.(재림신도의 가정, 208)

사람의 노력이 없는 한 하나님의 노력하심은 헛되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그들에게 놓인 거룩한 책임에 대하여 각성하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올바로 훈련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믿음직하게 의뢰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의 깊고 경건하게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부모들과 협력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대들로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재림신도의 가정, 206-207)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과연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불요 불굴의 힘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근심, 그대들의 열성적인 일, 그대들의 계속적인 경성들을 주목하신다. 주님은 그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인내와 친절로 주를 위하여 그대들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라. 온 하늘이 그대들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빛의 천사들이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일에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과 연합하셔서 그대들의 노력을 성공으로 관 씌우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가족의 상징이 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신다.(재림신도의 가정, 205)(Review and Herald, January 29, 1901)

어머니의 기도의 엄청난 중요성 -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들의 바로 앞에 놓인 대쟁투에서 그들이 어떤 임무를 맡아 행할 것인가 하고 궁금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희망과 두려움의 착잡한 감정으로 바라본다. 염려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질문한다. "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켜서 그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하고. 어머니들이여, 크나큰 책임이 그대들에게 있다. 그대들이 국회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 하나님과 그대들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대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악행을 하게끔 동요되거나 감화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도록 지도하고 감화를 끼치는 그런 품성들을 양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의 열렬한 믿음의 기도로 그대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일 수 있다.(재림신도의 가정, 264)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감화는 영원을 통하여 지속될 것이다.(교회증언 4 권, 500)

어머니가 자기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할 것이요 그의 자녀들을 예수께 바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빌며 그들의 신성한 의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질과 습관을 형성시킬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어머니는 너무 두드러진 특성을 억제하는 한편 부족한 특성들을 격려하면서 품성의 계발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의 생애가 자기에게 위탁된 귀한 자녀들에게 깨끗하고 고상한 모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는 항상 자기가 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용기와 정력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에게서 점진적인 품성의 향상을 보기 전에는 또한 그들이 자신의 오락 추구가 아닌, 인생의 보다 높은 목적을 가지기 전에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감화력을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자기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가 예수께 바친다. 이런 기도의 감화는 자녀들에게 마치 "생명수 샘"과 같은 구실을 한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의지(依支)요 능력이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곧 곤고와 염려와 우리의 평생 사업의 무거운 부담 가운데 최대의 도움이 되는 것을 상실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변화하는 유년 시절과 위험한 청소년 시절을 통하여 아들과 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끼친 감화를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유혹의 세력에서 그의 아들을 붙들어 줄 것이요 그의 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정욕이 지배권을 잡으려고 다툴 때에 사랑의 능력, 곧 제지하며 진지하고 단호한 어머니의 감화가 그 영혼을 의의 편에 서도록 해 줄 것이다.(재림신도의 가정, 265-266)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량하신 만인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의 기원을 그냥 돌려 보내시지 아니하시며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을 마지막 쟁투의 그 큰 날에 사단의 노리개가 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대가 단순하게 신실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으로 한 일을 보람있게 하여주실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526)

가족 기도가 중요하지만 다른 종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 가정 기도나 공중 기도로는 불충분하다. 은밀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홀로 있을 때에 영혼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길 앞에 있는 그대로 펴놓이고 모든 동기는 점검된다. 은밀한 기도!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들리게 해야 한다. 그러한 탄원의 소리를 호기심 많은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된다.(교회증언 2 권, 189)

18 장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는 영적 성장에 요긴하다. -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정로의 계단, 98)

개인 기도, 가족 기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집회에서의 공중 기도, 이 모든 것은 요긴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생애에서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교회증언 7 권, 239)

기도회 시간에 우리들의 음성은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들의 존경심을 표현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로 단순성, 진리 및 거룩한 아름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45)

작은 무리들이 저녁이나 정오나 이른 아침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도록 하라. 그들은 성령으로 힘을 얻고, 깨우침을 받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역자의 마음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대들 스스로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 문을 열 것 같으면 큰 축복이 그대들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들의 모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그대들의 동료 교역자들과 이룬 사랑스런 친숙에 대하여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겠는가. 각 사람이 단순한 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라. 이것은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쾌한 모든 음악의 악기들보다 영혼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오실 것이다. 그대들이 그대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수단을 통해서이다.(교회증언 7 권, 195)

이제까지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 그러한 열성으로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여라. 성경을 사랑하며 기도회를 사랑하고, 명상의 시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교육시켜라. 하늘 집에서 하늘의 합창대와 연합하고 싶거든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라.(교회증언 2 권,

하나님의 영께서 영혼의 성전에서 세속성과 쾌락을 사랑하는 일의 더러움을 씻어 내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유리함을 거두어들이려고 열망하면서 기도 모임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신실한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광선 아래 직접 두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며, 이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될 것이다.(교회증언 4 권, 461)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의 시간과 공중 예배를 신성하게 한다. -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숭경심(崇敬心)은 그분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의식함으로 생기는 것이다.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관념으로 깊이 감명되어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므로 거룩한 곳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태도와 행동에 나타날 때에,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감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교육, 242-243)

공중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 공중 집회나 가족 제단에서 또는 은밀히 드려지는 기도는 인간을 즉시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데려간다. 끊임없는 기도로 젊은이들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굳건한 원칙을 얻게 될 것이다.(My Life Today, 18)

공중 기도는 너무 길거나 건조해서는 안 된다. - 하늘 왕국의 자녀들로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와 주님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태도로 증언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사회적인 모임에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교화될 수 있게 드려져야 하며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을 위해 주님의 아름다운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본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포괄적이었고 너무 길지 않았고 종종 공적으로 드려지던 무미건조한 기도와 같이 기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기운 없는 기도들은 중얼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으며 그들은 축복하거나 교화하는데 실패할 것이며 살아있는 능력이 없는 단지 형식인 것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43) (Christian Education, 129)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간결하고도 요령 있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긴 기도로서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 대개 공중기도는 몇 분(2, 3 분) 정도면 족하다.(복음 전도, 146)

우리의 기도회와 사교회는 특별한 도움과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이 집회들이 재미있고 유익한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각자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 매일 신앙에 새로운 경험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이 일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대가 만일 흑암이나 불신이 그대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은 그대들의 집회에 얼른거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집회들은 매우 흥미 있게 하여야 한다. 하늘의 분위기가 감돌게 하여야 한다. 단지 시간을 메우기 위한 무미건조한 긴설교와 형식적인 기도를 피하라.(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11)

가족 예배(안식일에)에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하라. 모두 성경을 가져오게 하여 각기 한 절이나 두 절을 읽도록 하라. 그리고 잘 아는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모본을 주셨다. 주기도문은 단지 하나의 형식으로 암송하도록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 곧 단순하고, 진실되고 함축적인 기도의 실증이다. 간단한 기원으로써 주님에게 그대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주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 이와같이 함으로써 그대는 예수님을 환영받는 손님으로서 그대의 가정과 마음에 모셔들인다. 가정에서는 막연한 사물에 대하여 길게 기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 특권과 축복으로 여김을 받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리하게 만든다. 그 시간을 흥미 있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라.(새자녀 지도법, 524)

길고 지루한 말과 기도는 어떤 때나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기도회에서 그러하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요점이 뚜렷해야 한다. 길고 지루하게 탄원할 필요가 있으면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대의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 그러면 건조한 모든 형식주의는 일소될 것이다.(교회증언 4 권, 70-71)

길고 지루한 말과 기도는 어떤 때나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기도회에서 그러하다.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줍어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자들에게 간증할 틈을 주지 않는다. 허식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것이 많다. 그들의 기도는 길고 기계적이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요점이 뚜렷해야 한다. 길고 지루하게 탄원할 필요가 있으면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자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 그러면 모든 형식주의와 우둔함이 일소될 것이다.(교회증언 4 권, 70-71)(Review and Herald, October 10, 1882)

일반적인 대개의 기도는 일이 분으로 충분하다.(교회증언 2 권, 581)

긴 기도는 예배를 지치게 만든다. - 모든 가정에는 아침과 저녁 예배를 위해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 부모들이 아침 식사 전에 자녀들을 그들 주위로 불러모으고, 밤 동안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 동안에 그분의 도움과 지도와 지켜주심을 위하여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또한 저녁이 올 때 부모와 자녀들이 다시 한 번 그분 앞에 모여서 지나간 한 날의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인가!

아버지 혹은 그의 부재시에는 어머니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을 택하여 예배를 지도해야 한다. 예배는 짧아야 한다. 긴 성경의 장을 읽고, 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지루해지고 마칠 때는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예배 시간을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게 만들 때, 너무도 지겹고 너무도 흥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무서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신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예배 시간을 참으로 흥미 있게 만들라.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을 준비하는 데 조금만 생각을 기울인다면 그대들은 그것을 흥미와 유익이 넘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예배에 변화가 있도록 하라. 읽은 성경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몇 마디의 열렬하고 적절한 권면을 할 수도 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기도는 짧고 요령있게 드려져야 한다. 기도를 하는 자는 단순하고 열렬한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라. 상황이 허락하면, 아이들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라.

영원만이 그런 예배의 시간에 따르는 선을 드러낼 것이다.(교회증언 7 권, 43-44)

공중 기도는 짧아야 하며 우리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하여 단순성과 단순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하며 오직 영혼의 실제적인 소원을 표현해야 한다. 겸손한 자로부터 나오는 기도,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은 의에 굶주린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다.(Signs of the Times, December 3, 1896).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받은 빛을 통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여럿의 긴 기도를 들으며 상당히 오랜 시간 구부리고 있음으로써 이런 모임을 지루하고 피곤케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건강이 좋지 않은 자들이 이러한 부담을 당하게 되면 극히 피곤해지거나 기진하게 된다.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음으로

몸이 피곤하게 되는데, 더욱 나쁜 것은 계속되는 기도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 피곤하게 되어 영적 원기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됨으로 차라리 모임을 갖지 않음만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심신이 피곤하게 되어 영적 힘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된다.

총회나 기도를 위한 모임은 지루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두가 정각에 모이도록 하고, 반 시간 혹은 십오 분씩 늦는 자들이 있더라도 기다리지 말 것이다. 참석자가 둘뿐이라도 약속을 구할 수 있다.

참석자가 적건 많건, 집회는 가능하면 정각에 시작하여야 한다. 형식과 딱딱함을 버리고 모두가 의무를 신속히 행하여야 한다. 일반 집회의 경우 기도는 십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세를 바꾸고 찬미나 권면을 통하여 단조로움을 해소한 후 누군가가 기도할 의무를 느낀다면 그들로 기도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밤새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지 말고 그대가 원하는 바로 그것만을 주님께 말하라. 개인 기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길게 기도할 특권과 솔직하게 기도할 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친척들과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골방은 그들의 모든 사사로운 어려움, 시련, 유혹을 고할 장소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일반적 모임은 마음의 사적인 일을 열어 놓을 장소가 아니다.

함께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함으로써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함으로 피차간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서로의 희망과 포부를 앎으로 힘과 빛과 및 용기를 모으기 위하여 모인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우리의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힘의 근원으로부터 원기의 회복과 활력을 받는다. 이러한 모임은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며, 영적 사물에 대한 취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흥미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개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기도회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가 거기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 이들이 얼마간 있는 듯하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총회나 기도회의 방해자라는 이름을 붙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빛을 전혀 내지 못하며 아무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들의 냉랭하고 얼음 같은 기도와 길고 퇴보적인 간증은 그늘만

드리운다. 그들의 기도나 간증이 끝나면, 모두가 기뻐한다. 그들의 기도와 훈계가 모임에 가져온 냉기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받은 빛에 의하면, 우리의 집회는 신령하고 화기애애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길지 않아야 한다. 침묵, 교만, 허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집에 두어야 한다. 사소한 불화나 편견은 이러한 집회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빛을 가져옴으로써 원기가 회복되고 활력을 얻기 위하여 모이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는 연합한 가정에서처럼 단순과 온유 및 확신과 사랑이 깃들어야한다.(교회증언 2 권, 577-579)

공중 기도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해져야 한다. - 기도하는 자, 말하는 자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발음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고 고른 어조로 말하도록 하라. 기도가 적절히 올려지면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그것은 주께서 진리의 귀한 보화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수단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의 결점 투성이의 발성으로 인하여 기도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거의 잘 안 들릴 때 사단은 기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진리를 적절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말하고 기도하기를 배우도록 하라. 간증과 기도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교회증언 6 권, 382)

공적으로 기도할 때 쉬운 말을 사용하라. - 공중 집회에서든지 혹은 가족 예배나 또는 은밀한 방에서든지 간에, 어렵고 과장된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특히 공중 앞에서 기도드리는 자는 쉬운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다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그 기도에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하늘에 상달하고 땅에서 응답되는 기도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기도이다.(복음교역자, 177)

우리의 기도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 나는 혼란이 주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과, 기도하고 찬미하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기에 적당한 장소는 가족제단이다.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동떨어진 것일 때에는, 골방은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한 모임은 생동감이 있고 흥미로울 것이다.(교회증언 1 권, 145-146)

하나님은 기도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한다. - 기도할 때에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보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겸손한 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필요치 않은 경우에 또는 경건치 않은 태도로써 기도 가운데 남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하고 엄숙한 말이므로 반드시 경외심을 가지고 엄숙한 음조로 말하기 전에는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복음교역자, 176)

공중 기도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 공중 예배에서나 개인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올릴 때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의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 권, 312)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목사들이 등단하자마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엄숙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인상을 줄까? 그러면 백성들 위에 엄숙함과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목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가 백성들 앞에 감히 서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엄숙함이 백성들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임할 것이다. 목사들은 단상에 올라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임을 알려야 한다.(교회증언 2 권, 612)

목사가 들어올 때는 위엄 있고, 엄숙한 태도로 들어와야 한다. 그는 강단에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숙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감명을 주겠는가! 사람들에게는 엄숙함과 경외감이 있을 것이다. 목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다. 엄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깃들고, 하늘의 천사들이 매우 가까이 이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중의 각 사람들도 그와 함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집회에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입술로 선포된 그분의 진리에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기도로써 집회가 시작되면, 거룩하신 분이 계신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하며, 모든 마음은 조용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성실한 예배자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말씀의 봉사는 효력이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생기 없는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하나의 큰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모든 예배는 마치 "회중의 스승"(전 12:11)께서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처럼 엄숙하고 경외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5 권, 492-493)

공중 예배나 가정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눅 22:41)셨다. 그분의 제자들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행 9:40)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엡 3:15) 빈다고 말했다.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에 무릎을 꿇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단 6:10)다.(선지자와 왕, 48)

공중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가정 기도나 공중 기도로는 불충분하다. 은밀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홀로 있을 때에 영혼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길 앞에 있는 그대로 펴놓이고 모든 동기는 점검된다. 은밀한 기도!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들리게 해야 한다. 그러한 탄원의 소리를 호기심 많은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된다.(교회증언 2 권, 189-190)

19 장 기도하는 태도

공중 기도에서의 적당한 태도 - "나는 사람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마땅히 취해야 할 진실한 태도에 관하여 질문하는 편지들을 받았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꼿꼿이 선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어디서 얻었을까? 배틀크릭에서 5 년 동안 교육을 받은 어떤 사람이 화잇 자매가 신자들에게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꼿꼿이 선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려는 광경을 목격한 그 찰나에 나의 영혼은 그에게 공개적인 견책을 주기 위하여 격동되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무릎을 꿇으시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항상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이다....(중간생략)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굽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예배의 행위가 바벨론에 있는 세 명의 히브리 포로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오직 하나님께만 나타내야 할 경배의 표현이다. 비록 정금으로 만든 우상일지라도 세 히브리인은 우상에게 그러한 영예를 돌리는 일을 거부하였다. 만약 저들이 우상에게 경배한다면 모든 의사(意思)와 목적에 있어서 바벨론의 왕에게 굴복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왕이 명령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저들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저들에게 나타나셨고 불 가운데서 저들과 함께 행하셨으므로 저들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다. 공중 예배에서나 개인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올릴 때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의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중간생략)

나는 증거가 되는 성경절들을 제시하면서 "H 형제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 그는 배틀크릭에서 교육을 받은 자였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예배의 문제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바 모든 빛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목사들과 우리 학교의 교장들과 교사들이 교훈과 모본으로써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드릴 때에 꼿꼿이 서서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태도를 볼 때에 우리들 자신이 강한 자부심과 자기 존대의 사상을 은연 중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특성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중간생략)

우리들이 오직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우상신들에게 나타내는 것보다도 못한 경건과 경외심을 나타내지 않기 바랄 뿐이다. 만약 우리들이 저들보다 못하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이러한 백성들이 우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학교들의 교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남녀들이여 불손하고 잘난 체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굽혀서 경배할 것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온 영혼과 몸과 신을 진리의 영께 복종시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모본과 교훈을 성경 가운데서 철저히 연구한 자가 누구인가? 미국과 여러 외국에 있는 우리 학교의 교사들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학생들이 여러 해 동안 학창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존경과 영예와 경외심에 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저희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될 것인가? 백발의 어른들, 경험이 많은 선배들, 거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여 온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존경할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학교에서 배출할 수 있을까? 나는 미국과 여러 다른 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불손한 사상을 본받지 않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대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교육이 필요한지 확실히 깨달음으로써 그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불원간에 이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인 사상을 가진 자들과 사귀라. 잘난척하는 선생들이나 학생들을 벗으로 삼지 말고 가장 깊은 경건심을 나타내보이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물에 관하여 지혜로운 정신을 가진 자들을 벗으로 삼으라.

우리들은 매우 위태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저들은 점차로 헌신적인 정신을 상실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의 정신은 사람들에게 저희 창조주를 접근하는 방법, 곧 저희 자신을 믿지 않고 중보자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마음이 변치 않는 충실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은혜의 신하처럼, 자비의 발판 앞에 엎드려 탄원하는 자처럼 무릎을 꿇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비의 은사를 매일 받게 될 때에 그는 마음 가운데 고마움을 항상 느껴야하며 공로 없이 얻은 은총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의 말로써 고마운

뜻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천사들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보호해 주셨으며 그가 볼 수 없었던 많은 올무들 가운데서 그를 건져냈다. 결코 졸거나 잠자는 일이 없는 눈을 가지고 보호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모든 기도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를 인정해야 한다.(가려뽑은 기별 2 권, 311-315)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르친다. -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하면, 저희의 기도에는 열성이 충만하고, 그 구하는 바가 반드시 상달되고, 또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는 공중의 앞에서든지 혹은 은밀한 방에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늘 꿇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눅 22:41)였으며 그분의 제자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었다(행 9:40; 20:36; 21:5).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엡 3:14, 15)라고 하였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려고 "무릎을 꿇"(스 9:5)었다. 다니엘은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단 6:10)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은 하나님의 무한히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함으로 생겨난다. 각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곳에 임하여 계시므로 거룩하다. 또한, 태도가 경건하면 경외심이 더욱 깊어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리켜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 111:9)라고 하였고,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얼굴을 가리운다. 그런즉,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때에 얼마나,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노소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여 계시는 곳을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지 아래의 성경 말씀을 신중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하셨다. 또 야곱은 천사가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상을 본 후에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창 28:16, 17)라고 하였다.(복음교역자, 177-179)

나라의 중임을 처음 지기 시작할 때 곧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왕상 3:7)고 고백했을 때 보여 준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현저한 사랑과 거룩한 사물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자신에 대한 불신과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창조주를 높이는 매우 본받을 만한 품성의 모든 특성이 성전 헌당 예배 동안 곧 겸손한 탄원자로서 무릎을 꿇고 헌당 기도를 드릴 때에 나타났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존경심과 경건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겸손과 경외심과 거룩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저희 창조주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선지자와 왕, 47-48)

성전 "뜰 가운데"에 "장이 다섯 규빗이요 광이 다섯 규빗이요 고가 세 규빗"이 되는 대 혹은 강단을 놋으로 만들었다. 솔로몬이 그 위에 올라서서 손을 들고 자기 앞에 있는 많은 군중들을 축복하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대하 6:13, 3).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대하 6:4, 6)리라 하셨다고 외쳤다. 그 후에 솔로몬은 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봉헌 기도를 드렸다. 회중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 왕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대하 6:14)라고 기도하였다.(선지자와 왕, 39-40)

솔로몬왕은 제단 앞 놋으로 만든 대 위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위로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고 엄숙한 기도를 드리는 동안 회중은 땅에 엎드려 있었다. 솔로몬이 그의 기도를 마쳤을 때에 기적적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희생 제물을 살랐다.(살아남는 이들, 194)

그대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그대에게 생각이 주어졌다. 그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눈이 주어졌다. 그대의 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주어졌다. 그대의 무릎은 하루 세 번씩 심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도록 주어졌다. 그대의 발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도록 주어졌다. 생각, 노력, 재능을 활용하여 하늘 학교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의 입술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야 한다.(교회증언 6 권, 298)

설교하기 전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목사들 -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목사들이 등단하자마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엄숙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인상을 줄까? 그러면 백성들 위에 엄숙함과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목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가 백성들 앞에 감히 서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엄숙함이 백성들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임할 것이다. 목사들은 단상에 올라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임을 알려야 한다.(교회증언 2 권, 612)

목사가 들어올 때는 위엄 있고, 엄숙한 태도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감명을 주겠는가! 사람들에게는 엄숙함과 경외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목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다. 엄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깃들고, 하늘의 천사들이 매우 가까이 이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중의 각 사람들도 그와 함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집회에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입술로 선포된 그분의 진리에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기도로써 집회가 시작되면, 거룩하신 분이 계신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하며, 모든 마음은 조용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성실한 예배자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말씀의 봉사는 효력이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생기 없는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하나의 큰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모든 예배는 마치 "회중의 스승"(전 12:11)께서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처럼 엄숙하고 경외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교회증언 5 권, 492-493)

기도하는 동안 무릎 꿇는 것이 항상 요구되지는 않는다. - 우리는 기도에서 항상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지만 자비의 보좌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있다. 활발한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는 속이지 않으시는 분에게 "네가 받을 것이라"고 약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시간을 찾을 수 있고 찾을 것이다. 다니엘은 무거운 책임감이 지워진 정치가였지만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 오늘날 사람들도 가장 높은 곳의 거룩한 성소로 호소할 수 있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사 32:18)는 그분의 약속의 확실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들을 수 없지만 작은 참새의 떨어짐조차도 주목하시는 분께서 무력하고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장소를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마 10:31) (Counsels on Health, 423, 424)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시험받는 장소에 버려 두는 것은 주님을 언제나 그들 앞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도록 허용하면 우리의 방패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그대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그대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되며, 열렬하고, 끈기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치료봉사, 510-511)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탄원하는 일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있을 수는 없지만, 그의 생각과 열망이 항상 위로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우리 자신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Sons and Daughters of God, 99)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대는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지만 그대의 조용한 탄원은 힘과 안내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시험받을 때, 그대가 그럴 것처럼 그대는 가장 높은 비밀의 장소로 도망갈 수 있다. 그분의 영원한 팔이 그대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 3:4)는 말씀이 그대를 격려해 줄 것이다.(Counsels on Health, 362)

만일,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매일 밖에서 두서너 시간 일할 수 있는 처지에 있고 또 그렇게 하여도 신체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며 그 부르심의 의무를

성과 있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심신에 새 힘을 얻어 다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복음교역자, 240)

진실한 기도는 시간이나 장소, 환경에 의존되지 않는다. -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이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정로의 계단, 98-99)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 이것이 기도에서 순식간이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릎을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한 경우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은 그에게 왜 그렇게 슬퍼보이냐고 물었고 그가 해야만 하는 요청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중요한 관심이 촉각에 달렸다. 나라의 운명이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하는 인상에 달려 있었다. 느헤미야는 왕께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빨리 기도했다. 그가 요구하고 희망했던 모든 것을 얻은 것이 결과였다.(Signs of the Times, October 20, 1887)

그대들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의향이 그대들로 유혹의 시험을 저항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대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대들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 열렬하고 끈덕지고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대들의 심령이 자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 수 있다. 그리하면 그대들은 높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 고상한 정직성을 가진 사람, 어떤 이유로도 진리와 의와 공의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교회증언 4 권, 542-543)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하고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다.(가려뽑은 기별 3 권, 266)

공중 기도는 짧아야 하며 자연스런 톤의 목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 목사들이 올리는 긴 기도들은 큰 실패를 낳았다. 어떤 이들이 하듯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목과 발성 기관들을 상하게 한 후에 그들은 고된 일로 쓰러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요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상해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발성 기관을 상하게 한다고 느낀다. 이것은 부자연스런 자세와 머리를 숙이는 방법에 따른 결과이다. 그들은 서서 말하며 몸에 무리가 오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기도할 때의 자세는 완전히 자연스런 것이어야 한다. 긴 기도는 피곤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시간이나 십오분도 너무 길다. 하나님께 그대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기에는 몇 분이면 족하다. 그리고 그대들은 백성들을 맡아서 그들이 기진하지 않게 기도와 헌신에 대한 그들의 흥미가 감소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기진하는 대신에 신선해지고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고성으로 억지로 소리를 내어 긴 기도를 하고 긴 설교를 함으로 실수하고 있다.(교회증언 2 권, 617).

기도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라. - 그대 자신의 모본으로써 자녀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의자에서부터 들게 하고 그들의 손으로 결코 얼굴을 가리우지 않도록 가르치라. 이와같이 그들은 주기도문을 일제히 외우면서 그들의 간단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새자녀 지도법, 522-523)

기도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을 훈련시켜라. -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이 필요한 것같이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데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주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고상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한다. 끈질긴 노력으로 습관은 이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다.(성화된 생애, 93)

기도는 길거나 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 기도는 마땅히 이해되어야 할 만큼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는 길게 하거나 큰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생각들을 읽고 계신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공공연히 갚아주실 것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7)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명령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우리의 간구는 명령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분이 행하시도록 간청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증언보감 1 권, 215)

믿음으로 기도하라. -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써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를 그대들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9:29, 21:22).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히 10:23). 진실한 간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수로는 열려 있고,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 그것은 치료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와서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회복시키는 물줄기를 쏟아놓는다.(교회증언 7 권, 273-274)

진실과 믿음이 그대들의 기도를 특징짓게 하라.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엡 3:20)시고자 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도하라. 불신을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는 그가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슬프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단에게 알게 할 여유가 없다.(교회증언 7 권, 273)

20 장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은 기도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께 상달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당신의 은혜의 모든 보화를 열어 놓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것이 그대들의 기도를 효력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부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중보를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모든 공로를 간구자 편에 놓으신다.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탄원하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영향력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때 우리의 중보에는 향이 주어진다. 우리가 구속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고, 당신의 인성의 팔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드신다. 우리의 탄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향로 안에 당신의 공로를 향기로운 향처럼 넣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기로 약속하신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의 중보가 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축복의 중보가 되셨다. 그분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과 협력해야 하고, 그리고는 죽어 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렬하고 끈질긴 노력을 해야 한다.(교회증언 8 권, 178)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財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요 16:24)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시대의 소망, 667)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하였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였고, 그러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성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였다.(사도행적, 28)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과 가장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법궤 양쪽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룹이 날개를 위로 펼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다.(빠진부분) 그 천사들 사이에는 금향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서 있는 법궤 위는 지극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처럼 보였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올라왔을 때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 올랐다.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연과 같이 그의 아버지께로 올려 보내고 계셨다.(초기문집 32)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시대의 소망, 668)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6:26, 27, 15:16)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정로의 계단, 100-10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분께 오라고 초창하신다. - 그대들은 와서 간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도록 초청을 받았으며 그대들의 초청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 8).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의 요청을 기꺼이 허락하는 아버지께 대한 비유로써 하나님께서 기꺼이 복을 내리시는 점을 설명하셨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눅 11:11-13).

우리들은 특별한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들을 당신의 회견실로 반가이 맞이하신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혼에게 당신 자신이 의롭게 되신 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지은 죄들을 마치 검은 구름을 거두시듯 깨끗이 지워버리실 것이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사 12:1)라고 말씀하셨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42)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기도하라. - 사람이 격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내쉴 때(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어진 유일한 이름이다.) 전심과 진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보다 훨씬 풍족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는 약속이 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발화에 의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해질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된다. 탄원은 열렬한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비의 보좌에 도달할 것이다. 지치지 않게 기도로 매달리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네가 구한 것을 가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들을 받고 응답하시리라는 것이다.(The Gospel Herald, May 28, 1902)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알현실(謁見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252)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로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산상보훈, 84)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 주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제시해 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뢸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물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할 수 있다.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그대를 초청하신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산상보훈, 133)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9:26)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엡 3:20)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주 명백하고 확신 있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줄기차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실물교훈, 147-148)

21 장 기도를 통한 거룩한 안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 - 주님께서는 적당히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가장 열렬한 기도로써 주님께 간구하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며 혀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간적인 창안이나 불확실한 시험 방법들을 신뢰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원칙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어떤 틈이든지 엿보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은 백성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보증의 말씀을 얻을 수 없는 데서는 어떤 계획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 권, 326)

하나님의 인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 그대는 연약해지거나 무능해지지 않도록 그대의 판단을 훈련시켜야 한다. 지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대의 길을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 그대는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향한 그대의 마음을 닫아야 하며 그것을 모두 하늘의 감화로 열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시간과 기회의 대부분을 균형잡힌 성격을 개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302)

모든 가정에는 아침과 저녁 예배를 위해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 부모들이 아침 식사 전에 자녀들을 그들 주위로 불러 모으고, 밤 동안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 동안에 그분의 도움과 지도와 지켜주심을 위하여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또한 저녁이 올 때 부모와 자녀들이 다시 한 번 그분 앞에 모여서 지나간 한 날의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인가! (교회증언 7 권, 43)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정로의 계단, 70)

그대는 그대의 눈과 마찬가지로 그대의 머리로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대는 연약해지거나 무능해지지 않도록 그대의 판단을 훈련시켜야 한다. 지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대의 길을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 그대는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향한 그대의 마음을 닫아야 하며 그것을 모두 하늘의 감화로 열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시간과 기회의 대부분을 균형잡힌 성격을 개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302 와 같음)(Sons and Daughters of God, 283)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기도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드려질 수 있다. -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정로의 계단, 99)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곤란에 싸여 거의 압도된 생애의 분주한 걸음 중에서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 해로와 육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큰 위험을 당했을 때에 이와 같이 자신들을 하늘의 보호에 의탁할 수 있다. 돌연한 곤란이나 위험을 당했을 때에, 당신의 충실한 신자들이 당신을 부를 때에 언제든지 저희를 도우러 오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 아래서도 슬픔이나 근심이나 맹렬히 엄습해 오는 시험으로 억눌린 영혼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확신과 지지와 구조를 찾을 수 있다.(선지자와 왕, 631-632)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돕기 위해 가까이 있다. -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시대의 소망, 141)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매우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다. 만일 휘장이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악한 천사들이 그들의 흑암을 우리 주변에 밀어 넣고 온 힘을 다하여 기만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둘러싸여 영향과 도움을 받는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에 심령을 굴복시켜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빛과 힘을 그에게 가져다준다.(교회증언 5 권, 198-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실물교훈, 59)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 우리는 기도로 요구할 수 있다. -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 주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제시해 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뢸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물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할 수 있다.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그대를 초청하신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산상보훈, 133)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부모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을 낮추어라. 그대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시키기를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라. 그대가 그대의 실수와 실패를 볼 수 있도록 빛과 지도와, 예민한 양심과, 맑은 식별력을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뉘우친 마음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557)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 주님께서는 인도함 받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신다. 그대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였으며,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교회증언 3 권, 467)

거룩한 안내를 위하여 기도와 함께 성경을 찾아라. - 분명하고 예리한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 줄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극기와 겸비를 더욱 적게 요구하는 교리를 제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큰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육적 욕망을 위하여 지력을 저하시킨다. 그들은 뉘우치는 마음과 열렬한 기도로써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으리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미혹에서 지킬 길이 없다.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 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진리 대신 거짓 것을 쥐어 준다.(각시대의 대쟁투,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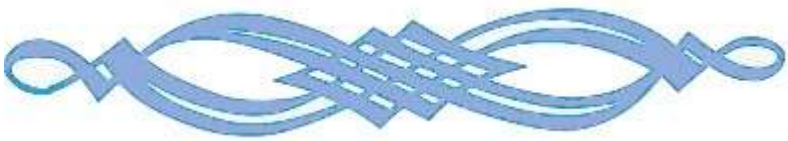
하나님과 그분이 그대의 길을 지시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라. - 많은 사람들은 장래를 위하여 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들의 생애는 불안정하다. 그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염려와 불안을 갖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는 순례자의 생애임을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를 위하여 계획을 세울 지혜가 없다. 우리의 장래를 꼴지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를 하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분께 위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한 실패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라. 작은 어린 아이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분의 지도를 의지하라(삼상 2:9).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분과 협력함으로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지도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치료봉사, 478-479)

내일을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를 종으로 삼으신 그분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 미래의 사건들이 비록 그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눈에는 환히 다 보인다.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하고 성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짐을 지며 그분의 도움 없이 그것을 나르려고 애쓰게 된다. 하나님께 속한 책임을 우리가 짐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고 위험과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산상보훈, 100-101)

엘리에셀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주인의 집에서 그는 항상 실행하는 친절과 대접에 익숙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처녀임을 지적해 주는 한 예의 있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주어졌다. 우물 곁에 모였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예의 있는 태도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여자가 우물에서 나올 때에 그 나그네는 그 여자에게 나아가 어깨에 멘 항아리의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그 요청은 친절하게 응답되었으며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물을 긷는 일은 군주의 딸들이라도 그들의 조상의 양떼와 가축떼를 위하여 해야 하는 관습적인 일이었다. 그리하여 바라던 표증이 분명히 주어졌다.(부조와 선지자, 172)



22 장 병자를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는 조용한 믿은 가운데서 드려져야 한다. - 병자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분명하게 된 질병의 경우, 흥분의 폭풍이 아니라 조용한 믿음 가운데서 그 병이 주님께 의탁되어야 함을 나는 보았다. 그분만이 개인의 과거의 생애를 알고 계시며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 사람이 병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혹은 낙심하고 배도함으로 그분을 모독할 것인지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시하는 이유들과 드리는 열렬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면서, 당신의 뜻에 합당할 경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십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바의 전부이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가장 당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회복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교회증언 2 권, 147-148)

병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치료와 함께 나음의 축복을 위한 단순하고 열렬한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 우리는 병자에게 자비로우신 구주와 그분의 용서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가려뽑은 기별 3 권, 296)

집집 방문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있는 대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교회증언 6 권, 83-84)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게 하신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벧엘로 바뀔 수 있다.(치료봉사, 226)

만일 우리가 신체적 연약함 아래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간구하여 아뢰는 일은 분명히 일관된 일이다. 또한 만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와 연합해서 권능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도움이 분명히 이르러 올 것이다.(의료봉사, 16)

우리는 생명에서 그의 손을 잃어가고 있는 병든 자들과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겸손한 탄원을 드렸다. 주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었을 때,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느꼈다.(Reveiw and Herald, October 11, 1887)

우리는 주님께서 엄마와 아기에게 평화와 휴식을 주실 줄로 믿으면서 아기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드렸다. 기도가 끝나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쳤으며, 우리는 엄마와 아기가 다 좋아진 것을 보고 떠났다.(자서전, 122-123)

환자들의 필요를 예견하는 간호사, 고난자들을 불쌍히 여겨 고통을 완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주님이 회복시키는 능력을 행사하시기를 위대한 의료 선교사께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간호사, 이들의 인내성 있는 돌봄을 통해서 병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이다.(의료봉사, 191, 192)

그들은 패배하고 낙심한 자들의 생활에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의료봉사, 246, 247)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보다 많은 기도가 우리 위생병원에서 드려진다면 치료자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이며 보다 많은 심한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3 권, 295)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병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완전한 신뢰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 속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뜻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있다.(교회증언 2 권,

병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자주 내게 특권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한다.(가려뽑은 기별 3 권, 295)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중간생략)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眞髓)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시대의 소망, 824-825)

환자를 위한 기도는 부주의하게 다루어지기엔 너무 중요하다. - 환자를 위해 기도드리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주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리고, 우리의 곤란한 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려야 한다.(의료봉사, 16)

환자를 위한 기도는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효과적이다. - 거룩한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병실에 함께 계시며 참으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자들도 옛날의 주의 제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약 5:15)할 것이다.(복음교역자, 215)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던 때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자들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봉사를 하시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비로운 의사시다. 그분에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향유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는 능력이 있다. 오늘날의 그분의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8)는 주님의 약속은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뢰할 만한 약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께서 역사(役事)하시는 통로이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신다.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위대한 치료자를 믿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치료봉사, 225-226)

병자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 -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롬 8:26).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최선의 것이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들어있어야 한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앓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들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견디지 못할 것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애가 그들 자신과 세상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아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렬하게 탄원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말해야 한다(눅 22:42).(치료봉사, 229-230)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강하게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도록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셔서 고통 중에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가정에 기반이 잡힌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 안에서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때 기도하기를 소홀히 한다. 거짓된 희망으로 붕 떠서 그들은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훈계와 권면의 말을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이것은 커다란 불행이다. 기도할 때에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될 것인지, 그들의 가족들이 보살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들이 죽음에 의해 제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말해야 할 사실들과 관계된 어떤 희망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재앙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주어진다. 믿음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들은 표현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해되어야만 하는 많은 것들이 언급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기도에 의해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으므로 사용할 능력이 되는 위생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그것을 사용하는데 실패한다.(General Conference Daily Bulletin, February 26, 1897)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의 병상 주위에서 열렬한 기도를 드리는 일에 연합하였으며, 우리의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병자들이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되돌려졌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만일 믿음을 행사한다면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감히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 말이 의심 비슷한 것을 용납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우리는 회복된 자를 마치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애타게 지켜보았다. 우리는 그들 중의 어떤 이들, 특히 청년들이 건강하게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모와 친구들에게 슬픔과 번민을 안겨 주어 그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한 자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생애를 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의 악한 생애로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하여 살았다.

우리는 더이상, 길을 제시하거나 주님을 우리의 소원에 맞게 내려오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병자의 생애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살기를 기도할 것이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전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완전한 신뢰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여지고 더욱 의지할 만하게 된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간구하면 그분이 들으실 줄을 우리는 안다.(교회증언 2 권, 148-149)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병자를 구원할 수 없으나 능력의 치료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가려뽑은 기별 3 권, 295←책에 36 페이지라 표시되었으나 실제내용은 295 페이지에 있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자. 우리 요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의료봉사, 242)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땐 끈기가 필요하다. -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따라서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버릴 수 없고 만약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특권을 가지지 않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점을 내려놓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동정 많은 구주께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때때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지만 어떤 때는 끊기있게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간청하기를 열심히 계속해야 하는 우리는 빵을 끊임없이 간청하는 사람의 경우로 묘사된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이 비유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요구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눅 11:9, 10)

우리는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법을 알도록 은혜와 거룩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쓰여진다면 그것들은 응답될 것이다.(Counsels on Health, 380)

치료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 건강을 회복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약 5:16).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해 주라.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없으며, 당신의 생애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만일 당신의 죄를 후회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의무입니다." (치료봉사, 228)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믿음은 참람된 주장에 불과하다. - 병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나는 극단으로 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아왔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사실은 참람된 주장을 만들지 않게 나는 우리의 경험에서 이 부분이 더 굳세고 성화된 생각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낀다. 고통으로 찢겨진 사람들은 분리되어 움직일 것이므로 그들이 치료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들자신을 놓고 기도드리는 동안 현명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고 자연의 법칙을 소홀히 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으로 회복되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병자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고통을 경감시키고 천연계의 치유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단순한 치료제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하게 조화된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가 죽을 것이라는 기별을 전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의 말을 들으시고, 수명이 15 년 연장될 것이라는 기별을 보내시면서 그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한 마디 말이나 한 번의 신령한 만짐으로 히스기야는 즉각 치유 받을 수 있었지만, 무화과 하나를 취하여 그것을 환처에

놓으라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고 이에 히스기야는 회복되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노선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 권, 523)

인간의 대리자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신적인 능력과 협력하여야 하며 모든 재능을 사용하고 모든 유익을 취하여 그의 지혜에 따라 유익하게 자연의 법칙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는 믿음을 부인하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Counsels on Health, 381, 382)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병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장 엄숙한 행동이므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드려서는 안된다.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 드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위 믿음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참람된 주장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은 방종에 의하여 스스로 질병을 초래한다. 그들은 일치되도록 생활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였다. 때로는 어떤 형태의 부도덕이 마음과 몸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을 부주의하게 범하는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고쳐 주시면 그들은 그들의 불건전한 생활을 계속하고 무제한으로 왜곡된 식욕에 방종할 자유가 있다는 구실을 만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적을 행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죄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건전치 못한 생활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악을 그치고 훌륭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환경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은 고쳐져야 한다. 그들은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한다.(치료봉사, 227-228)

이적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는 광신에 이를 수 있다. - 사람들은 피차간에 질문한다. "병자의 이적적인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만일 그런 일이 생겼다면 큰 광신이 우리의 대열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큰 자신감을 가진 자들은 그 문제를 행동에 옮겼을 것이다.(복음 전도, 594,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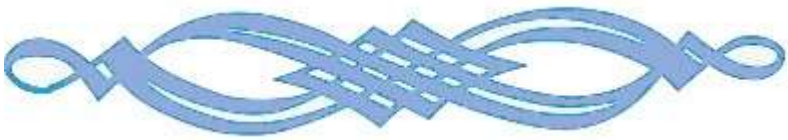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부인은 아니다. - 기도에서 주님의 치료의 자비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즉시, 그리고 그들의 소원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믿음에 결함이 있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병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권면을 받고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친구들에 대한 의문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때때로 여기에 잘못을 범할 위험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믿고 기도의 부족을 나타내는 듯한 일은 무엇이나 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죽음으로 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되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자기들이 소원하는 대로 질서 있게 처리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헤어지는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 권면이나 격려의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치료봉사, 231)

내가 병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 다음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를 중단하는가?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펼치시는 방법대로 축복하시기를, 병자들의 회복에서 그분과 협력할 수 있는 성화된 지혜를 주시기를 나는 더 많은 기도로 모든 것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Healthful Living, [1897, 240).

회복을 위해 기도와 함께 사용된 의학적 치료 -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 주시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회복시키는 자연의 역사를 도와주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들 스스로를 회복되기에 가장 유리한 상태에 두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 그 지식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유리한 모든 점을 취하고, 천연계의 법칙과 조화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우리가 병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더욱 많이 기울여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특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에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치료봉사, 231-232)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라. - 우리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사별(死別)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쓴 잔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잔을 우리 입술에 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창조주께 새로운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치료봉사, 233)



23 장 용서를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항상 즉시 응답된다. -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갈 1:4)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시대의 소망, 266)

하나님의 자녀가 시은좌 앞에 나아가자마자 그는 위대한 옹호자의 고객이 된다. 마치 자신의 요구인 양 아버지께 드린다.(교회증언 6 권, 364)

그대의 소원을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께 말하라. 그대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논쟁하거나 그분께 설교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러한 영혼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들은 찾고, 구하며, 문을 두드리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가져가 버리실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1)

죄의 죄됨을 보고 용서와 힘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무력하게 엎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들어진바 되며 응답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들은 결코 내어쫓기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그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눈여겨보실 것이다." 우리의 도움은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분이 내려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확신이다. 아무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혼보다 더 무력해지거나 더 완강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늘에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모든 천사들을 보내신다.(Signs of the Times, October 29, 1902)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정로의 계단, 97)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부언하셨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 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산상보훈, 113-114)(The Faith I Live By, 131)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속에 간구의 말씀이 들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은 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반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자는 드물다. 만일 용서성이 없는 이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저들은 감히 이 기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료 인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거친 정신과 용서의 부족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두려울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형제가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교회증언 3 권, 95)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준비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영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폐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자비의 보좌에

다가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용서 없이 이 탄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이 탄원 위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Signs of the Times, August 21, 1884)

자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 참된 고백은 언제나 구체적이며 개개의 죄들을 인정한다. 그 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시되어야 할 그런 성격의 것일 수도 있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개인들 앞에 고백되어야 할 잘못들일 수도 있고, 회중에게 알려져야 할 일반적인 형태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고백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대가 범한 바로 그 죄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교회증언 5 권, 639)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위한 단순한 기도를 들으신다. -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사유함을 받은 시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교훈은 곧 매우 어린 유년 시절부터 그들의 오류와 실수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든지 하나님께 사유하심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는 이와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단순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며, 그가 지상에 계셨을 때 그에게 온 어린이들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새자녀 지도법, 494-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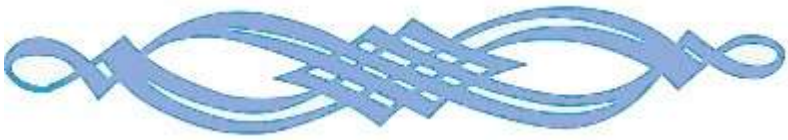
아이들이여 예수님께 오라. 그대가 만들 수 있는 것에서 가장 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대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라.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대의 마음을 내게 바쳐라. 그대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씻을 것이다. 내가 너를 하늘 왕의 자녀로,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용서, 내가 공짜로 너에게 준 나의 평안을 가져라. 내가 나의 의, 결혼 예복으로 너를 옷 입히고 어린양의 결혼 잔치를 위하여 너를 꾸밀 것이다. 기도와 경계로 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나의 의를 옷입을 때 그대는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대의 성품은 신적인 영향으로 꼴지워질 것이다. 이것은, 그대의 신성화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The SDA Bible Commentary, vol.3, 1162)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시간을 사업과 오락으로 채우거나 그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 기도할 의망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기도로부터 사람들을 차단하려고 한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이 가능하도록 하셨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도 나아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그분께 오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가는 것과 똑같은 신뢰를 가지길 바라신다. 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나 아빠에게 빵을 구하듯이 주님께서는 그대가 필요한 것들을 그분께 구하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의 죄가 가슴을 무겁게 누르면 그대는 하나님께 나아와 말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모든 진실된 기도는 하늘에 들려질 것이며 은혜와 힘을 위한 모든 열렬한 탄원은 응답될 것이다.(The Youth's Instructor, July 7, 1892)

용서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진지해야 한다. -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용서뿐만 아니라 회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성령의 영향을 통해서이다. 죄를 깊이 뉘우친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기도의 성실성은 모든 사람의 성품을 시험할 위대한 도덕적 표준과 우리자신들을 조화시킬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그것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Review and Herald, June 24, 1884)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대는 받을 것이다. 그대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쳐다보라. 그분께 죄의 용서를 구하라. 그대의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을 용서할 것이고 그대의 탄원은 사랑으로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에 주의한다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삶 속에서 개혁을 위해 열렬한 탄원과 함께 조화롭게 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결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여질 기대가 없는 도움을 위한 열렬한 진실성과 뜨거운 소망이 빠진 단지 형식적인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의 모든 것을 받으리라는 탄원자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Review and Herald, March 28, 1912) .



24 장 중보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 그리스도께서 빛에 거하셨던 것 같이 빛에 걸어가도록 힘쓰자. 주께서는 욥이 기도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압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욥의 신세를 되돌리셨다. 그를 향하여 침해를 받은 영혼들이 도움을 받게 되기를 그가 간절하게 갈망했을 때 그 자신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를 상하게 했던 자들과 우리를 계속해서 상처주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기도하라, 특별히 그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주님께 쉼을 주지 말라. 영혼이 그분 앞에 겸비해질 때, 그분의 귀는 진실하고 끈질긴 기도를 듣기 위해 열려있다.(SDA Bible Commentary, vol.3, 1141)

그대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말하게 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귀중한 것들은 그대의 추억에 기억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넘쳐 그대는 매우 흥미있고 중요한 말씀을 말할 것이다. 그대의 단순성과 진실성은 가장 높은 웅변이 될 것이며 그대의 말은 은 쟁반에 있는 금사과와 같이 적당한 말로 하늘 책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일깨워 하늘의 영향으로 치료의 광선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중재를 더하시고 죄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요구하시고 그의 영혼에 그것을 부으신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임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Sons and Daughters of God, 274)

그대 주변에는 재난을 당한 자, 동정과 사랑과 친절의 말, 또한 우리의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널려 있다 .(교회증언 3 권, 530)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산상보훈, 105)(Sons and Daughters of God, 267)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북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정은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되고,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 있고 더욱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실물교훈, 354)

용기를 잃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어떤 유향도 효력이 없고, 어떤 약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든 영혼이 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대의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구호봉사, 71)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영혼들과 대화를 가질 것이다.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라. 저들이 진정으로 의를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자신의 영혼 속에 믿음의 실체를 간직해야 한다.(교회증언 6 권, 65)

자아가 죽을 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강렬한 소망-선을 행하려고 끈기 있게 노력하도록 이끄는 소망-이 일깨워질 것이다. 모든 물가에는 씨 뿌림이 있을 것이다. 열렬한 탄원과 끈질긴 기도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Gospel Workers 1892, 470)

오, 믿음의 열렬한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내게 과오의 쓰레기에서 지금 장사된 영혼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예수님 안인 진리의 지식으로 그들을 데려오라! (This Day With God, 171)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피흘리는 그의 옆구리로 가까이 가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그대들의 생애를 단장하라. 그대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열렬하게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라.(교회증언 1 권, 513)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 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선지자와 왕, 719)

영혼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활동해야 한다. 열렬한 호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띤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 우리의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탄원이 강렬한 열성의 탄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교회증언 7 권, 12)

이 사업은, 그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영혼들을 잘 보살필 것을 그대들에게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부드러우심이 일꾼의 마음에 가득 차야 한다. 그대가 영혼을 위한 사랑을 가졌다면 그대는 그들을 위하여 진정한 염려를 보일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방문하는 사람들과 겸손하고, 진지하고,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그대의 사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께서 이기심 없는 일꾼과 협력하여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끼치실 것이다.(교회증언 6 권, 75-76)

우리 이 계획을 확장시키자. 산 믿음으로 서로서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올바르게 데려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Review and Herald, August 28, 1888)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분의 종들의 생애에도 나타나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실물교훈, 142-143)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산상보훈, 111-112)

개인 기도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라. - 개인 기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길게 기도할 특권과 솔직하게 기도할 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친척들과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골방은 그들의 모든 사사로운 어려움, 시련, 유혹을 고할 장소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일반적 모임은 마음의 사적인 일을 열어 놓을 장소가 아니다.(교회증언 2 권, 578)

설교자들과 목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지하고 열성적인 기도의 시간을 빈번히 가져야 한다.

마음은 항상 기도와 같은 태도로 있어야 한다. 가정과 교회에서 열렬한 기도가 말씀의 설교로 그들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대신하여 제공되어야 한다.(In Heavenly Places, 87)

젊은이들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나갈 때, 그대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연합하여 지혜와 은혜와 지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사단의 올무에서 보호를 받고 사상이 순결하고 마음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하라.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대들에게, 무익한 이야기나, 자고한 마음을 충족시키고 식욕에 탐닉되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이렇게 하여 얻은 시간을, 그대들의 목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데 바치도록 하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떠받친 것처럼 그들의 손을 붙들라.(교회증언 5 권, 162)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 경험에 있어서 그들보다 선배되는 자들은 젊은 청년들을 지키라. 그리하여 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8)

안식일 학교 교사들은 그대의 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더 사모하고 자신은 더욱 덜 생각해야 한다. 영혼들을 위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얻도록 날마다 기도하여야 한다. 교사들이여, 그대들의 반생들을 만나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간구는 짧고도 간단하나 열렬하게 하라.(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125)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반생들 - 반생들은 하나님께서 안교장에서 육체적 힘과 정신적 명료함, 도덕적 힘과 영적 통찰력으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교사가 그분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열렬하고 단순한 탄원을 드리는 곳에서 그들 자신의 기도를 가져야 한다.(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293)

동료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 우리는 너무도 흔히 우리의 동료 일꾼들에게 힘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별한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 그대의 관심과 동정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을 잊지 말라. 그대가 기도로써 그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는 동안, 그대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 주라. 교역자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수 1:6)는 하나님의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라.(교회증언 7 권, 185)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있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올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하였다. 그의 깊은 겸손, 하나님께 대해 그의 열렬하면서도 끈덕진 조름,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승리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날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사 59:1). 만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분께 열렬하게 구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논증으로 그들의 입을 채워 주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회심하도록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교회증언 5 권, 322-323)

우리는 우리가 평시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또는 자녀들을 위하여 에서 함께 기도할 때 큰 능력과 축복이 있다.(새자녀 지도법, 525)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돕는 손임을 발견하시게 하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새자녀 지도법, 69)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들을 이 세대의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만 있다면 힘든 일도 짐이 되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의 부담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간구하였다. 그들의 회심을 그대는 그토록 바랐다. 가끔 마음에 실망이 되고 힘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다가 그대는 다시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새로이 봉헌하곤 하였다. 그대의 열망하는 마음이 그들을 다시 제단 위에 올려 놓기로 하였다.

그들이 군에 입대하였을 때에도 그대의 기도는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놀랍게도 상해를 당치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운이 좋은 탓이라고 말했지만 자녀들의 위태함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 없이 죽을 위험에 놓여 있음을 직감한 애타고 부담스런 영혼으로부터 나온 한 어머니의 기도가 그들의 안전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도록 보호되기를,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지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얼마나 자주 올려졌는가? 그대는

걱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탄원하였고, 그들이 성결의 생애를 살도록 더 간절히 구하곤 하였다. 그대는 그대가 예전보다 더 충실히 일할 것이라고 마음먹었다.(교회증언 2 권, 274-275)

그분[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열렬한 끈질긴 노력이 뒤따른 기도, 자녀들이 그분께 축복을 받고 그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 들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안에서 그들의 의무를 할 때 그들은 사역에서 그분의 도움을 위한 그들의 요구가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Signs of the Times, May 4, 1888)

사단이 그대들의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는 죄악의 조류를 끊고, 죄의 압박을 물리쳐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라. 자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부모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열렬한 기도와 산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1 권, 397)(Spiritual gifts, bk.4b, 139)

어머니가 자신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데는 재주, 기능, 인내심 및 신중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 일에는 자기불신의 정신과 열렬한 기도가 요구된다. 모든 어머니가 자신의 의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끈질긴 노력으로 힘쓰게 하라. 어머니가 믿음의 팔에 어린 것들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커다란 필요를 말하게 하고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게 하라.(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28)

피나는 노력과 기도와 믿음이 바른 모본과 합치될 때에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의 감수성이 예민한 마음에 하늘 아버지께 대한 책임감을 넣어 주도록 힘쓰라.(절제생활, 157-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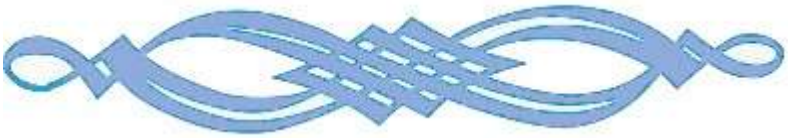
그대의 자녀들이 열렬한 기도가 섞인 인내와 성실한 노동 없이 단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들의 다양한 성격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과 날마다 그들을 거룩한 모델로 꼴지어 가는 것은 대단한 부지런함과 인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연결된 믿음을 가진 많은 기도가 요구되는 일이다.(Signs of the Times, May 4, 1888)

어머니의 팔에 안긴 영아일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시대의 소망, 512)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사업을 에너지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붙잡아 놓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 방울로 물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그대에게 달라고 열렬히

기도하며 날마다 귀중한 씨를 뿌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많고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올무나 희생을 피하겠는가? (Signs of the Times, November 24, 1881)

그대가 자녀들을 위하여 의무를 신실히 행한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를 도와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가 할 일을 다하였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대가 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라.(새자녀 지도법, 256)



25 장 천사와 기도

천사들은 모든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다. -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각시대의 대쟁투, 622)

기록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며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록하게 하라. 그러나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는 선언을 발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성화된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람된 말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사도행적, 561-562)(Signs of the Times, May 23, 1895)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 -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각시대의 대쟁투,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운반한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잘 훈련된 가족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된 자는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 밖에서 얻은 번민이 되는 문제를 집안에까지 끌어들이지 말 것이다. 그는 가정과 가족의 테두리가 불행한 난관들로 말미암아 훼손되기에는 너무나 신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가정을 떠났을 때에 자기의 구세주와 신앙을 집안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구세주와 신앙은 항상 동반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가정의 감미로운 영향과 아내의 축복과 자녀의 사랑은 자기의 멍에를 가볍게 하며 그는 화평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야 하고 자기의 귀가를 기쁨으로 반가이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에게 명랑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 자기 가족과 더불어 기도의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종일토록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식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방안에서 배회할 것이며 경건한 부모들이 향기로운 분향처럼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열렬한 기도를 들을 것이며 그러한 기도들은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 권, 439-440)

천사들은 찬미와 믿음의 기도를 듣고,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시며 저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탄원을 가지고 나간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10) 진실한 기도는 전능자께서 쥐고 계시며 인간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의 무릎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에 저항할 힘을 얻는다.(Review and Herald, February 1, 1912)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하고 많은 실수를 저지른 그분의 범죄한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고백에 귀를 귀울이시며 들으신다.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워진다. 날개를 펼친 천사들은 그들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기다리며 하늘 책에 그들을 기록한다.(SDA Bible Commentary, vol.4, 1184)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린다. - 때때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볼 때에 작은 일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영혼과 신체에 모두 봉사하게 될, 만민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 진리를 환자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잊혀진다. 그대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할 때, 그대는 그들에게서 큰 축복을 빼앗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의 간구에 응답하여 이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봉사,

일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모든 가족을 한데 모으라. 그리고 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어머니가 그들을 하루 동안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것이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대 자신과 자녀들 앞에 유혹과 위험이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라. 믿음으로 자녀들을 제단에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라. 섬기는 천사들은 이와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들을 지켜 줄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519)

특별한 천사들이 기도에 응답하도록 지명되었다. -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목적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지명되었다. 하늘 궁정에 있는 가장 높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의 발전을 위하여 하늘로 올리우는 기도가 성취되도록 지명되었다. 각각의 천사들은 다른 장소로 떠나도록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임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그가 떠난다면 어둠의 세력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날마다 선악간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기회와 유익을 얻었던 자들이 이 일이 맹렬함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들은 이것에 관하여 총명해야 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최고의 힘으로

그분의 세상의 군주들을 조사하시고 조절하신다. 그분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분은 세상의 기초 전에 준비된 사업을 하신다.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리자들,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불성실한 천사들 간에 엄청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악한 천사들은 공격선에서 계획하고, 지휘관들과 왕과 주권자로서 지배하며 불성실한 인간을 강요하여 일하고 있다.... 나는 천사들의 봉사의 진리인 그들의 음성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이해를 강력히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다. 공상적인 사색에 빠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유일은 안전책이다.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만 하늘의 지혜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봉사하는 영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에게 성직자로 파송되었다. 형제들이여, 기도하라. 그대가 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면밀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SDA Bible Commentary, vol.4, 1173)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온유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며, 당신의 목사들을 권면과 판단으로 지도하도록 당신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을 임명하셨다. 하늘의 대리자들은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힘과 권면을 나누어 주고자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84)

섬기는 천사들은 열렬하고 살아 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하여 보좌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가려뽑은 기별 2 권, 377)

오, 우리 모두가 하늘이 땅에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이 그것을 모를지라도, 빛의 천사들을 동료로 거느리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사자들은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냄받기 때문이다. 말없는 증인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 준다. 천사들은 시험당하는 자를 원수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면 원수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할 것이다. 소망이 있는 한, 곧 그들이 성령을 거절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늘의 지적 존재들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귀하신 구주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손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시야에서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어 버리게 하라. 그러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분을 보여 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침묵을 지키며 무력하게 계신 우리 구주가 아니시다. 그분은 하늘의 지적 존재들, 그룹과 스랍들 그리고 천천 만만의 천사의 옹위를 받고 계신다. 이 하늘의 모든 존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타락한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이다....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며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명령하에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목장의 양떼를 지키라는 사명을 받고 있다. 사단이 미혹하는 올무를 가지고 가능하면 택한 자라도 속이려고 할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여,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깨닫고 "아니야, 나는 사단의 술책에 말려 들지 않겠어 내게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맏형님이 계셔. 그분은 내게 부드러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 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겠어."라고 말한다면, 천사들은 시험당한 영혼들을 구원할 감화력을 작동할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23)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기록하며 도움을 준다. -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대들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가? 그리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필요를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 고하는가? 그렇게 하면 천사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대들이 부지중에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대들을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들 곁에 와서 그대들을 격려하여 다른 선한 길을 택하도록 격려하고 그대들이 사용할 말을 선택해 주고 그대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대들이 시험을 저항하기 위하여 도움과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대들은 틀림없이 미혹에 빠질 것이며, 의무에 대한 그대들의 등한함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심판 날에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0)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도움에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신다. - 사단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느끼고 고통과 열성으로 힘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단은 한 사람의 포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사자들의 원조를 요청하여 그 가련한 영혼을 둘러싸고, 그에게 하늘의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흑암의 벽을 쌓는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 주신다.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의 군대를 계속적으로 부른다. 그러나, 하늘의 갑옷을 입은 강한 천사들이 피곤하고 쫓기는 영혼을 도와 주기 위하여 나타나면, 사단과 그의 군대는 그들의 전쟁이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다. 자원하는 사단의 백성들은 충성스럽고 활동적이고 한 목적에 연합되어 있다. 비록 그들이 피차간에 다투고 미워할지라도,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위대한 사령관께서는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셨다.(교회증언 1 권, 345-346)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천사의 보호가 허락되어 있다. 우리들은 열렬하고 통회하는 기도로써 하늘의 조력자들이 우리편이 되도록 간구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1 권, 97)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 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므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초기문집, 269-270)

긴 기도는 천사들을 지치게 한다. - 길고 지리한 이야기나 기도는 어디에나 합당하지 않은데, 특히 기도회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지친다.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줍어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자들에게 간증할 틈을 얻지 못하게 한다. 가장 피상적인 자들에게 말할 것은 가장 많다. 그들의 기도는 길고 기계적이다.(증언보감 1 권, 457)(Review and Herald, October 10, 1882)

천사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 교회 신도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나아가서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하여 어떻게 기도를 올리고, 어떻게 찬미하며, 이 시대를 위한 복음 기별을 어떻게 선포할지에 대하여 가르쳐줄 것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17)

찬사들은 인간들이 매우 적게 기도하는 것에 경악했다. -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정로의 계단, 94)

26 장 허위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볍게 접근하지 말라. -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알현실(謁見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부조와 선지자, 252)

위선의 기도 - 불행을 조금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불행한 일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기도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기도이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15).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7-248)

차가운 그늘에 내던져진 기도 - 개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기도회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가 거기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 이들이 얼마간 있는 듯하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총회나 기도회의 방해자라는 이름을 붙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빛을 전혀 내지 못하며 아무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들의 냉랭하고 얼음 같은 기도와 길고 퇴보적인 간증은 그늘만 드리운다. 그들의 기도나 간증이 끝나면, 모두가 기뻐한다. 그들의 기도와 훈계가 모임에 가져 온 냉기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받은 빛에 의하면, 우리의 집회는 신령하고 화기 애애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길지 않아야 한다. 침묵, 교만, 허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집에 두어야 한다. 사소한 불화나 편견은 이러한 집회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빛을 가져옴으로써 원기가 회복되고 활력을 얻기 위하여 모이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속에는 연합한 가정에서처럼 단순과 온유 및 확신과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교회증언 2 권, 578-579)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항상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추측이다. -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교회증언 1 권, 231)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므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라.(정로의 계단, 96)

기도 자체에 죄로부터 정화되는 공효는 없다. - "이방인들은 그들의 기도 속에 죄를 속하는 공효(功效)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공효가 더 커지는 줄 생각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스스로 즐거워 할 수 있는 무엇, 곧 자랑할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사상은 거짓 종교의 모든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자력(自力)에 의한 속죄의 원리에서 생긴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있어서 이 이교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까지 퍼져 있다. 마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틀에 박히고 습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방인의 "중언 부언"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다.

기도가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능과 공효가 없다. 우리가 멋대로 내뱉는 화려한 말은 모두 합해도 거룩한 소원 한 가지만 못하다. 가장 유창한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무익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상 친구에게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은혜를 구할 때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격식을 차린 찬양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상하고 억눌린 마음이, 죄가 많고 더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무언의 절규는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한다.(산상보훈, 86-87)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도는 개심의 증거가 아니다. -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환희의 감정을 느낌으로 그들이 회심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이전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생애는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들은 자주 그리고 길게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어느어느 때 느낀 감정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들은 새 생애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속았다.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그리하여 폭풍이 불어올 때에 그들의 집은 무너져 버린다.

불쌍한 많은 사람들은 흑암 중에 더듬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친히 경험하였다고 말한 감정을 찾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는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은 마음과 생애 즉 전존재를 의미한다. 변화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애정을 고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 마음,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가졌다는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변화한 생애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1-72)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자신의 성향을 따르고, 감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당신께서 밝히신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억지를 부린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단은 마치 에덴에서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인물들 편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인상을 끼친다. 그러면 그들은 정신을 작동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극히 놀라운 체험으로 여기게 된다.(교회증언 3 권, 72)(Review and Herald, July 27, 1886)

하나님과의 교통은 그분의 뜻에 대한 깊은 지식을 심령에 제공한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결코 느끼지 못했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생애는 악의와 속임과 질투와 시기와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다. 이런 종류의 기도들은 하나님께 가증하다. 진실한 기도는 심령의 활력을 보증하고 생애를 감동시킨다. 그와 같이 자기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는 하늘 아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비어 있음을 느낀다.(교회증언 4 권, 534-535)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실물교훈, 143)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 놓는 것이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간구자는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 귀중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한다. 주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다시 그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 말한다. 그런 탄원은 형식화된 기도요, 입술만의 의식이기 때문에 주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교회증언 4 권, 533)

하늘은 의인들의 열렬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닫혀 있지 않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두드러진 방법으로 응답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 만일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생활이 그들 앞에 제시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 매우 급한 기도가 때때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은 없다.

거룩한 생애에서 향상하려면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가! 얼마나 자주 중보의 음성이 방에서, 헛간에서, 과수원이나 숲속에서 들렸는가. 빈번히 우리는 열렬한 기도로 여러 시간을 보내고,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을 주장했다. 때때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음성과 찬양의 노래도 들렸다.(교회증언 5 권, 161-162)

하나님은 이기적인 기도를 아주 싫어하신다. -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끝만큼이라도 용인하실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 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혐오하신다.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욱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데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저들이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 만일 그러한 자들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사단의 제안들을 받아들여 그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승리의 환성을 지르며 기뻐 날뛰는 사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초기문집, 268)

건조하고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들의 새롭고 산 경험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표명하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간증이나 기도는 교인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신자들이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진리를 들으러 온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인가! (교회증언 6 권, 64)

천국의 모든 보화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찾는 자에게 이런 귀중한 선물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고전 1:30)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어서 저들은 아무런 선한 감화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 못한다.

만약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겸비케 하고 미래의 영생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인식한다면 저희들의 태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저들의 기도는 무미건조하거나 맥없는 것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위기를 인식하는 영혼의 열렬한 기도를 올릴 것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71-372)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기도를 향한 경고 -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탄원은 이기적인 뜻으로 가득찬 마음으로부터 나와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영광돌리게 될 그러한 선물들을 선택하시기를 권고하신다. 그분께서는 땅의 것 대신 하늘의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하늘 교역의 가능성과 이점들을 열어 보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높은 목표로 격려하시고 최고의 보물을 보증하신다. 세상의 소유들이 날아가 버릴 때 믿는 자들은 어떠한 땅의 재앙으로도 잃어버릴 수 없는 부, 하늘의 보물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Sons and Daughters of God, 188)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는 대조되었다. -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하고 기도한 가련한 세리는 자신을 심히 큰 죄인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그의 죄와 수치의 무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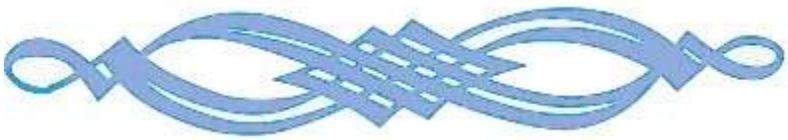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그의 마음 문은 열려서 하나님의 신이 그 은혜로우신 역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죄의 권세에게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바리새교인의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기도는 그의 마음이 성신의 감화를 막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함과 비교하여 그 자신이 더러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는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매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정로의 계단, 30-31)

형식적인 기도와 믿음의 기도,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습관적인 구절의 반복은 형식적인 기도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마음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의미하는 것만을 말하는지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명령에 모든 화사한 말들은 거룩한 소망과는 동등하지 않다. 만일 그들이 마음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가장 감명깊은 기도는 공허한 반복이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영혼의 단순한 소원이 그것이 허락될 것을 기대하며 마치 지상의 친구에게 호의를 구하는 것처럼 표현될 때, 그것은 믿음의 기도이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온 세리는 진실하고 헌신한 예배자의 좋은 모본이다. 그는 그가 죄임임을 느꼈고 그의 중대한 필요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열정적인 갈망의 폭발로 이끌었다.(My Life Today, 19)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말한다. 하늘의 왕께서 드린 이 중보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연약하고 무관심한 기도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봉사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열렬하고 애정어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별로 없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그분의 뜻에 대한 깊은 지식을 심령에 제공한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결코 느끼지 못했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생애는 악의와 속임과 질투와 시기와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다. 이런 종류의 기도들은 하나님께 가증하다. 진실한 기도는 심령의 활력을 보증하고 생애를 감동시킨다. 그와 같이 자기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는 하늘 아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비어 있음을 느낀다. 다윗은 말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올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교회증언 4권, 534-535)



27 장 사단과 기도

사단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지智 等의)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정로의 계단, 94-95) {Pr 267.1}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민하는 영혼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찾고 있다. 겸손한 성도에 의해 하늘로 올리우는 호소는 장식장의 신조나 왕의 명령보다 사단을 더 두렵게 한다.(SDA Bible Commentary, vol.2, 1008) {Pr 267.2}

원수는 그대들은 기도를 느끼지 않는다, 그대는 더 많은 영적 교감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게 더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기도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 그대들 중 많은 이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반드시 사단에게 "기록되었으되"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우리 소원의 짐을 가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적실 것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없이 사단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마귀도 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자는 구원할 능력이신 그분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무지, 부족에 그분의 지혜와 의로 연결할 특권과 마찬가지인 의무를 만드셨다. 그분께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유한한 존재들의 노력과 연합하여 그들의 영혼의 적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자보다 더하게 하신다. {Pr 268.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여 생애하셨으므로 아무도 낙심하지 말게 하자. 얻어야할 하늘이 있고, 달아나야할 지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분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 믿음을 섞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하여 의의 완전한 표준으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우리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는 만나서 정복해야할 약삭빠른 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신 분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Review and Herald, October 30, 1888) {Pr 268.2}

사단의 제안이 기도로부터 그대를 막지 못하게 하라. -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생각과 기도하기를 멈추게 하는 과오로 너무 압도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큰 결점과 죄를 깨닫고 낙담하였다. 사단은 그들과 주 예수 사이의 속죄의 희생을 어두운 그림자로 던진다. 그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고 말한다. 나의 기도들은 사악한 생각과 너무 혼합되어 주께서 그것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Pr 268.3}

이러한 제안들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혹을 만나셨고 저항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와같이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아신다. 우리 편에서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히 5:7)다. {Pr 268.4}

그들의 의심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소심해지게 되고 전투에서 패배한다. 그대의 생각들이 악하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만약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똑바로 살 수도 있고 속죄의 희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그대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단순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교육하고 훈련하라. 그대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며 탄원할 때 더 순수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그대의 영혼을 감쌀 것이다.(In Heavenly Places, 78) {Pr 269.1}

기도는 사단의 강력한 노력을 좌절시킨다. -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 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사단은 왔다갔다 하고 지상에서 위 아래로 걸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라고 매 순간 분주하다. 그러나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엡 6:16)라.(교회증언 5 권, 294) {Pr 269.2}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뒤집는다. -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실물교훈, 250) {Pr 269.3}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초기문집, 46) {Pr 269.4}

사단은 기도하는 소리에 벌벌 떤다. - 사단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느끼고 고통과 열성으로 힘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단은 한 사람의 포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사자들의 원조를 요청하여 그 가련한 영혼을 둘러싸고, 그에게 하늘의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흑암의 벽을 쌓는다. 그러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 주신다.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의 군대를 계속적으로 부른다. 그러나 하늘의 갑옷을 입은 강한 천사들이 피곤하고 쫓기는 영혼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타나면, 사단과 그의 군대는 그들의 전쟁이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다. 자원하는 사단의 백성들은 충성스럽고 활동적이고 한 목적에 연합되어 있다. 비록 그들이 피차간에 다투고 미워할지라도,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위대한 사령관께서는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셨다.(교회증언 1 권, 345-346) {Pr 270.1}

사단은 가장 겸손한 성도의 기도에 벌벌 떤다. -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민하는 영혼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찾고 있다. 겸손한 성도에 의해 하늘로 올리우는 호소는 장식장의 신조나 왕의 명령보다 사단을 더 두렵게 한다.(SDA Bible Commentary, vol.2, 1008)(267 페이지에 반복됨) {Pr 270.2}

기도는 사단을 대항한 무기이다. -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들이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대적하는 무기이다. 기도와 성경 공부에 있어 한 번의 등한은 그 두 번째의 등한을 용이하게 한다. 성령의 호소에 대한 한 번의 반항은 그 두 번째 반항에의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함으로 마음은 굳어지고 양심이 마비된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6) {Pr 270.3}

기도는 사단의 올가미를 깨뜨린다. - 우리가 조금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자 한다면 가장 많이 기도하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올가미를 깨뜨리고 어둠의 구름이 사라질 것이며 예수님의 감미로운 임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Lift Him Up, 372) {Pr 271.1}

기도는 사단을 이긴다. -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써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교회증언 1 권, 296) {Pr 271.2}

기도는 특별히 사단과의 투쟁에서 중요한 순간에 필요하다. -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에는 하나님 편에서든 세상의 군주 편에서든 승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 전쟁에 속한 자들이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경계하는 일에 늘(wide) 깨어있어 열렬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 사단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가 주의 군대에 의해 패배당할 때 ... 하나님의 믿음직한 파수꾼들은 악한 세력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을 것이다.(SDA Bible Commentary, vol.6, 1094) {Pr 271.3}

사단은 열렬한 기도에 화를 낸다. -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믿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간계와 기만을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잘 안다. 그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하여 사람이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나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주목하게 되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 간절히 기도"(약 5:17)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사단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그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교회증언 1 권, 295) {Pr 2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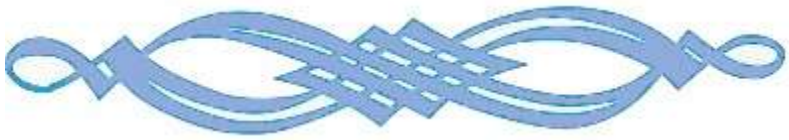
사단은 기도가 불분명하게 말해질 때 기뻐한다. - 기도하는 자, 말하는 자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발음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고 고른 어조로 말하도록 하라. 기도가 적절히 올려지면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그것은 주께서 진리의 귀한 보화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수단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의 결점 투성이의 발성으로 인하여 기도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거의 잘 안 들릴 때 사단은 기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진리를 적절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말하고 기도하기를 배우도록 하라. 간증과 기도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교회증언 6 권, 382) {Pr 272.1}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시도한다. - 기도는 요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매우 성공적인 궤계 중의 하나이다. 기도는 지혜의 원천이요, 힘과 화평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새자녀지도법, 518) {Pr 272.2}

사단은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암흑에 싸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본다. 그는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 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는 더욱 새로운 열성으로 자신의 술책을 적용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식욕과 그 밖의 자만의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한다. {Pr 272.3}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경건한체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런 자들은 사단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조수들이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에게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왜곡되게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가장 열렬하고 진실하고 극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마치 기만당하였거나 혹은 기만하는 자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진실하고 고상한 행위의 동기를 그릇 전하여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릇된 암시를 주고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술책을 써서 순결하고 의로운 것을 더럽고 기만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각시대의 대쟁투, 519)



28 장 마지막 날의 기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은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신의 능력을 가지신 인류의 구세주께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면,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스러운 인간이 열렬하고 계속적인 기도의 필요를 얼마나 더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을 당하실 때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탁하시고, 열렬한 기도와 당신의 아버지 뜻에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그분은 정복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기도에 있어서 위대하신 모본자를 모방해야 할 것이다.(음식물에 관한 권면, 52-53) {Pr 274.1}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 오기 전에 은해의 해를 몇 년 더 주기를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더 큰 영성과,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헌신과,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껏 발휘된 적이 없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의 옷이 씻겨져 어린 양의 피로 희여질 수 있도록 기도에 많은 시간이 쓰여져야 한다. {Pr 274.2}

특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은혜와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선지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계 7:1) 하는 것을 보았다. 동쪽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계 7:3)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외쳤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업을 가리킨다. 어느 지역에서나, 악의 구름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은혜의 해를 몇 년만 더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건한 남녀들에게는 넓은 범위에 걸친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선포할 때까지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자.(교회증언 5 권, 717-718) {Pr 274.3}

평온한 시기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기를 위해 준비하게 할 것이다. - 그리스도의 종들은 심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들이 심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Pr 275.1}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에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를 의뢰해야 할 것이었다.(시대의 소망, 355) {Pr 275.2}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진리의 영으로 지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써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 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 있는 땅에 처해 있다.(각시대의 대쟁투, 601) {Pr 275.3}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遲延)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각시대의 대쟁투, 621) {Pr 276.1}

끝까지 보호책이 될 기도 - 투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의 요새를 약화시킬 환경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 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 생명이 지속하는 한 확고한 목적으로써 애정과 정욕을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순결의 방벽이 된다. {Pr 276.2}

"무엇이든지 속된 것 ... (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계 21:27)므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다 필사적인 노력으로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 중 아무라도 절망에 빠져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한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노인들이 정욕의 제단 위에 그들의 정조를 바침으로 저희의 영혼들을 더럽혔을지라도 만일 저희가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선언하신 주께서는 또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는 초청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호 14:4)라고 선언하신다.(선지자와 왕, 83-84) {Pr 276.3}

소그룹이 최대의 위험의 시기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 경건의 누룩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Pr 277.1}

이 성실한 적은 무리들의 열렬한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복수하는 자로 나오실 때, 그분께서는 또한 믿음을 순결한 그대로 보존해 오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고 지켜온 모든 자들의 보호자로 나오실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지라도 당신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갚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 때이다.(교회증언 5 권, 209-210) {Pr 277.2}

늦은비 시기에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 - 우리는 형식이나 외적인 조직을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깨워 주시는 감화력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슥 4:6)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대의 기도에

일치하는 행함을 통해 깨어 있으라.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지금은 늦은비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12)(Review and Herald, March 2, 1897) {Pr 277.3}

최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안전인 기도 -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 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Pr 278.1}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또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Pr 278.2}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므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초기문집, 269-270) {Pr 2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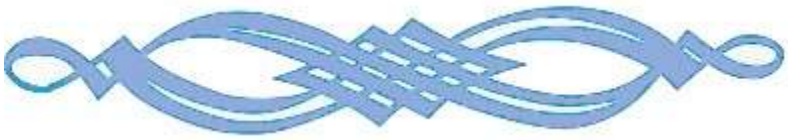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이 했던 것처럼 최후에 기도하고 승리할 것이다. - 야곱과 에서는 두 계층을 대표한다. 야곱은 의인을 대표하고 에서는 악인을 대표한다. 에서가 4 백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아간 것을 알았을 때에 겪은 야곱의 고민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의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의 환난을 예표하는 것이다. 악인이 그들을 둘러쌀 때에 야곱과 같이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찰 것이다. 천사가 야곱 앞에 이르자 그는 천사를 단단히 붙들고 밤새도록 그와 더불어 씨름하였다. 의인들도 역시 저들의 환난과 고민 중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한 것처럼 기도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것이다. 야곱은 깊은 고민에 싸여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의인들도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를 둘러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Pr 278.4}

야곱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였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의인들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의 지극히 보잘것없음을 고백할 것이요, 야곱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회개한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세우며 간구할 것이다. {Pr 279.1}

야곱은 고통 가운데서 천사를 굳게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에 야곱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 천사는 그에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며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와 같이 의인들도 환난의 날에 그들의 굳센 믿음과 인내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내 보이게 될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Pr 279.2}

야곱은 그냥 돌아설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의 자비심에 호소하였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이미 슬퍼하고 회개한 것을 말하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밤이 새도록 간구하였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다. 그는 천사를 붙잡고 이길 때까지 애쓰며 간절히 호소하였다.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저희 과거의 일들을 회상할 때에 소망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활(死活)이 달린 문제인 것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며 또 저희의 많은 죄에 대해 지난날의 탄식과 겸손히 회개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킬 것이다. 이와 같이 저들의 간절한 탄원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살아남는 이들, 97-98)(Spiritual Gifts, vol.3, 131-133).



29 장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계시(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신의 감화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吐露)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業績)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Pr 280.1}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Pr 280.2}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 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보증도 된다. {Pr 280.3}

예수 자신도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때에 자주 기도하셨다. 그는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형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히 4:15)는 자니 그의 품성이 악을 물리치셨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심령의 투쟁과 고민을 당하였다. 그의 인성(人性)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Pr 280.4}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Pr 281.1}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지智 等의)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Pr 281.2}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사 44:3)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Pr 282.1}

우리에게 크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한 논제(論題)가 되나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웅변으로 변호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 {Pr 282.2}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보혈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주께서 받으시는 조건을 응하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 {Pr 282.3}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가? {Pr 282.4}

허락은 광범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때에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에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므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라. {Pr 282.5}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의혹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Pr 283.1}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Pr 283.2}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롬 12:12; 골 4:2)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고 권하였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가르쳤다. 유다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유 20, 21)라 하였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Pr 283.3}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Pr 284.1}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혼이 번영할 수는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한다. 호기심을 가진 자의 귀는 이러한 기도의 호소를 들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은밀한 기도에 있어서는 심령은 주위의 영향과 소란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 심령은 조용히 그리고도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게 될 것이다. 은밀한 것을 보시고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감화는 쾌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침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또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신령한 빛을 수집(收集)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성채(城砦)시다. {Pr 284.2}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이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Pr 284.3}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Pr 284.4}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써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不純)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늘과 간단없는 교통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 {Pr 285.1}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견해(見解)와 영원한 실재(實在)에 대한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결함의 미(美)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인바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사물의 계시를 받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Pr 285.2}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살므로써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Pr 285.3}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약 5:11).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 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過大)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체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 147:3).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Pr 285.4}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6:26, 27, 15:16)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Pr 286.1}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아무라도 예배적 행사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하여 은둔자(隱遁者)나 승려(僧侶)가 되어 세상을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산과 무리들 사이에 계신 생애-와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도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日課)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사회 생활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의무와 십자가를 지는 일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 또는 사람이 저희를 위하여 열성으로 일하신 구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기를 그치는 때에 그 사람은 기도의 제목(題目)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이요 이기적이 된다. 그들은 인류의 궁핍에 대하여서나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한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Pr 286.2}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교제의 특권을 등한히 하는 때에 우리는 손실을 입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생생한 맛과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 진리의 성결케 하는 감화로 말미암아 깨우치거나 각성하기를 그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쇠약하여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귀는 가운데 피차 동정하는 일이 부족함으로 큰 손해를 본다. 고독(孤獨)주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계발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Pr 286.3}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피차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관한 귀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의 마음도 시원케 되고 다른 사람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천부에 대하여 더 배우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며 격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더욱 생각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Pr 287.1}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증거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그를 생각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를 찬송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세(現世)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이니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그와 더불어 함께 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무한히 큰 이유가 있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애착심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그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은혜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줄로 우리를 그와 묶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낮은 땅에 너무도 가까이 살고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있는 성소의 열린 문을 쳐다보자.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히 7:25)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친다. {Pr 287.2}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시 107:8) 그를 더욱 찬송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전연 구하는 것과 받는 것으로만 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하여는 도무지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기도도 별로 많이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받는 자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기를 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그를 적게 찬송하는지! {Pr 2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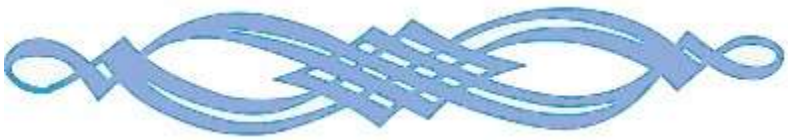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신 12:7)고 하셨다. 무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은 즐거움과 찬송의 노래와 감사함으로 해야 할 것이요, 슬픔과 우울함으로 할 것이 아니다. {Pr 288.1}

"우리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그를 섬기는 일을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주를 경배하고 그의 사업에 참예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녀를 위하여 그처럼 큰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당신을 각박하고 까다로운 주인처럼 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는 저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니 저들이 그에게 예배할 때에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시므로 저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위안을 얻으며 그의 사업에서 고난보다도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는 당신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당신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대한 귀한 감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며 범사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할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Pr 288.2}

우리는 십자가에 둘러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는 우리의 명상(瞑想)과 담화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의 가장 기쁜 정서(情緖)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크신 축복을 느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기를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Pr 288.3}

우리의 심령은 찬미의 날개를 타므로써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때에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 50:23)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조물주 앞에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사 51:3)로 나아가자." {Pr 288.4} [*이 장은 정로의 계단 93-104 페이지에 나타난다.] {Pr 288.5}



30 장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 장 9 절).

우리의 구주께서는 주의 기도를 두 번 가르치셨는데, 한 번은 산상 설교를 듣던 무리에게 하시고, 또 한 번은 그로부터 몇 달 후 제자들만 있는 데서 하셨다. 제자들은 잠시 그들의 주님과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듯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구주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바로 면전에 계신 듯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강한 능력이 있었다. {Pr 289.1}

경청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흔히 목격하였다.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드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랍비들의 신빙성 없는 궤변을 폭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그분의 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이 위엄에 눌려 겸비해졌다. 그분께서 기도를 그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누가복음 11 장 1 절) 하고 부르짖은 것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Pr 289.2}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반복하신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희는 내가 이미 알려 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Pr 290.1}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기도문의 말씀들을 꼭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성을 쓰신 분으로서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이상을 제시하시되, 말은 어린아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가장 명석한 사람들도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포괄적인 것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감사의 찬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필요를 아뢰고,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약속에 따른 자비를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Pr 290.2}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 (누가복음 11 장 2 절).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히브리서 2 장 11 절).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Pr 290.3}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요한복음 17 장 23 절)신다는 말씀이다. {Pr 290.4}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보좌와 연결시키셨다. 그룹과 스랍과 타락하지 아니한 모든 세계의 무수한 무리들은 이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린양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과,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속량 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직접 받게 된 자들은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는가! {Pr 291.1}

어찌 우리가 의심과 반신 반의의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고아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였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는 하늘에 중보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고아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Pr 291.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요한일서 3 장 2 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로마서 8 장 17 절).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한일서 3 장 2 절). {Pr 291.3}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요한일서 4 장 16 절).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Pr 291.4}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기심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Pr 291.5}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찌기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흐르고 있다. {Pr 291.6}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 아버지와,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히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한 가족이 된 자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비록 미천한 일일지라도 모두 즐거이 하게 될 것이다. {Pr 292.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로 바라보도록 명령하시는 이분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시편 115 편 3 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시편 56 편 3 절)고 말하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Pr 292.2}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 장 9 절).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지존자(至尊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 하시도다"(시편 111 편 9 절).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알현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않겠는가! {Pr 292.3}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외관상으로 최대의 경건을 나타내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모독할 수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며 ... "악과 과실(過失)과 죄를 용서"(출애굽기 34 장 5-7 절)한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예레미야 33 장 16 절)는 기록이 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다. 가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리어진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예레미야 14 장 9 절) 하고 기도하였다. {Pr 292.4}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그대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대 자신에 의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야고보서 2 장 7 절)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Pr 293.1}

"나라이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 장 10 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또한 우주의 크신 왕이기도 하다. 그분의 나라의 유익이 곧 우리의 유익이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설립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Pr 293.2}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의 나라가 즉시 임하기를 고대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장은 그 나라가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되 미래의 사건으로 알고 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간구는 그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임함을 당대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볼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에 기필코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Pr 293.3}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에게 붙인 바"(다니엘 7 장 27 절) 될 것이다. 그들이 "창세로부터"(마태복음 25 장 34 절)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다. {Pr 293.4}

하늘의 문들이 다시 들리며, 우리 구주께서 천천 만만의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 임마누엘은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스가랴 14 장 9 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요한계시록 21 장 3 절)실 것이다. {Pr 294.1}

그러나 예수께서는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마태복음 24 장 14 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은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 장 8 절)라고 말하면서 안 보이는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사도행전 26 장 18 절)기 위하여 그분의 사업에 투신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나라이 임하옵소서" 하고 진실하게 기도한다. {Pr 294.2}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 장 10 절).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Pr 294.3}

그러나 하늘에서는 봉사를 할 때 율법주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마치 전혀 의식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듯 율법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천사들은 봉사할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한다.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는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고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편 40 편 8 절)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Pr 294.4}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 달라는 기도이다. 그 때에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모든 선을 기뻐"(데살로니가후서 1 장 11 절)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Pr 295.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 장 11 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의 관심사로 삼을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악한 자들의 적의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줌으로써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고린도전서 3 장 23, 21 절)이 된다. {Pr 295.2}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일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 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대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시편 37 편 3 절)라는 그분의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시편 37 편 25 절)고 말한다. 그릿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녀들 중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33 장 16 절).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시편 37 편 19 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로마서 8 장 32 절). 당신의 홀로 된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고 나사렛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어머니를 도우신 분께서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어머니를 동정하신다. "고생하며 유리"(마태복음 9 장 36 절)하는 무리를 동정하신 분께서는 지금도 고난중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그분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 그들을 향해 손을 뻗치고 계시며, 또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신다. {Pr 295.3}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은택을 준비하셨다(시편 68 편 10 절). 그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누가복음 14 장 12-14 절). {Pr 296.1}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9 장 8 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고린도후서 9 장 6 절). {Pr 296.2}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한복음 6 장 27 절)고 명령하신다. 그분께서는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한복음 6 장 51 절)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Pr 297.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기 위해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 그 말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Pr 297.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 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Pr 297.3}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11 장 4 절).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Pr 297.4}

예수께서는 주의 기도를 마치신 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부언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 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Pr 297.5}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부언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 장 7-9 절).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편 51 편 10 절) 하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 뜻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편 103 편 12 절)라고 말한다. {Pr 298.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 장 32 절)고 말씀하신다.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시며 그대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부터 가져야 할 조건은 그분에게서 자비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Pr 298.2}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요한일서 4 장 16 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실수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 외에는 볼 것과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다음과 같이 속삭일 것이다. 그대가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대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양심을 더럽힌 일이 없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 장 7 절)라고 말 할 수 있다. 죄를 범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디모데전서 1 장 15 절).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Pr 299.1}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것은 실로 무겁다. 오직 갈바리만이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뭉개 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 장 9 절). 당신의 율법에 공의로우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가 7 장 18 절). {Pr 299.2}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 장 13 절).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야고보서 1 장 13 절). {Pr 300.1}

사단은 우리의 품성에 있는 악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드러내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노력한다. 스가랴의 표상적 예언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의 사자의 바른편에 서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며 사자가 그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에 대한 사단의 태도를 나타낸다. 원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후 하늘 우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스가랴 3 장 2 절). 그분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스가랴 3 장 4 절)고 말씀하셨다. {Pr 300.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고자 애쓰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장애와 핍박과 난관을 허락하시되 저주로서가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용감하게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며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 하늘의 능력으로 시험에 대항하는 사람은 세상과 하늘 우주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능을 나타낸다. {Pr 300.3}

그러나 우리는 시련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데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에 맡기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게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스스로 택한 길을 가고자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의 손을 기다리며,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이사야 30 장 21 절)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Pr 300.4}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죄는 그 가운데 빠지는 모든 사람에게 불명예와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본질상 눈을 현혹시키고 기만적인 것이므로 아첨하는 말로써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비록 사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능력에서 보호의 보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유혹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야 한다. {Pr 300.5}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약속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 장 13 절)는 보증을 얻게 된다. {Pr 300.6}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때, 이기심은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 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해지며, 시험은 그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Pr 300.7}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시험에 넘어질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바친 그 사람을 결코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압박에 눌리고 슬픔의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짐 더미 아래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낙망 가운데 죽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 {Pr 301.1}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누가복음 22 장 31, 32 절)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요한복음 3 장 16 절).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와 대결하는

싸움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누가복음 10 장 19 절)고 말씀하신다. {Pr 301.2}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 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언 18 장 10 절). {Pr 302.1}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 장 13 절).

이 마지막 말씀은 주 기도의 첫 문장과 같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모든 권세와 권위와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분으로 지적한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앞에, 그들이 꿈꾸어 온 것처럼 세속적 번영과 영광의 양지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증오와 사단의 분노의 폭풍으로 얼룩진 흑암의 세월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셨다. 국가적 분쟁과 파멸 속에서, 제자들은 발걸음이 위험에 휩싸이면서 때때로 마음이 공포로 압도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영원히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해안에서 파선된 것처럼 모든 나라로 흩어지는 것을 볼 것이었다.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태복음 24 장 6-8 절)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소망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매일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Pr 302.2}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마지막 파멸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지금 크고 엄숙한 사건 바로 앞에 서 있다.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초기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계획이 창조주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주권자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한 이해 관계와 마찬가지로 나라들의 운명도 친히 주관하신다. 거룩한 교사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대리자에게"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이사야 45 장 5 절)라고 말씀하신다. {Pr 303.1}

선지자 에스겔이 이상을 보았을 때,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 손이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사용하는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막중한 책임은 유한한 자들이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 당신 자신의 사업을 추진 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의 목적을 좌절 시키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모의하는 자들의 계획에 혼란을 일으키실 것이다.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국가들의 투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시련을 헤아리시며, 모든 영혼이 반드시 들어가 시험 받아야 할 풀무의 불을 주시하신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가슴을 꿰뚫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손에서 안전할 것이다. {Pr 303.2}

"여호와여 광대 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역대상 29 장 11, 12 절). {Pr 303.3} [*이 장은 산상 보훈 102-122 페이지에 나타난다.] {Pr 303.4}

31 장 주기 위하여 구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요 14:2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마 20:28)함이라고 하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 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 듣게 하시도다" (사 50:4). {Pr 304.1}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를 ...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Pr 305.2}

이 요청에 응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산상 설교(山上設教)때에 가르치셨던 주의 기도문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그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교훈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Pr 305.1}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 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Pr 305.2}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시 주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셨다. 이 간구하는 사람이 떡을 얻지 못하면 길이 저문 지친 행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다. 그의 이웃은 몹시 귀찮았으나 그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친구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의 귀찮은 간청이 들은 바 되어 그의 요구는 공급되었다. {Pr 305.3}

이와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써 해야 할 사업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 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 보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곳을 지시하여 주셨다. 한밤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 보내지 않았다. 떡을 가진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 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물며 주린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 주지 않으시겠는가? {Pr 305.4}

그러나 비유에 나타난 이기적인 이웃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교훈은 비교(比較)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조(對照)를 위한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급한 요구를 들어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Pr 306.1}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마 7:7)라고 말씀하셨다. {Pr 306.2}

구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Pr 306.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 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외람되다고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명칭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신다. {Pr 306.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 왕의 가족, 곧 하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육신의 부모가 저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욱 주시지 않겠는가? {Pr 306.5}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유는 모두가 알아야 할 원칙을 드러냈다.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Pr 307.1}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분의 종들의 생애에도 나타나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Pr 307.2}

비유 가운데 나오는 간청자는 여러 번 거절을 당했으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단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와같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Pr 307.3}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Pr 307.4}

많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만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환전(換錢) 조건에 맞지 않는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 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Pr 308.1}

주의 약속은 이러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또 요한은"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 2:3-5)고 말한다. {Pr 308.2}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말씀이 있다.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카롭고 비 그리스도인 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심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화목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 불가결한 준비이다. {Pr 308.3}

기도로써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흔히 등한히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는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7, 8)고 말씀하셨다. {Pr 308.4}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의 얼마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Pr 309.1}

그러나 너무나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3:10-12)고 하신다. {Pr 309.2}

다른 모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있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가 있다. {Pr 309.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뢰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지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끈기있게 구해야 한다. {Pr 309.4}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고 말씀하셨다. {Pr 309.5}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연약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구하는 바를 끈기 있게 구하지 아니한다. {Pr 310.1}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Pr 310.2}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Pr 310.3}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 {Pr 310.4}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앞으로 갖게 될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분은 그대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에게서 보다 큰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대해서도 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는 지력을 예민하게 하실 수 있으며 재치와 재주를 주실 수 있으시다. 그대의 재능을 주의 사업에 바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r 310.5}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증으로 삼으라.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았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낙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큰 손실을 당하게 것이다.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게 될 때에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면 그대의 믿음이 병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다.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Pr 311.1}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중함이 쇠약하게 할 수 없는 탄력성(彈力性)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불발성이 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0, 31). {Pr 311.2}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나누어 줄 영적 능력이나 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도 그 구하는 바를 은혜의 보좌 앞에 두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시다.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라. {Pr 311.3}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9:26)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엡 3:20)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 {Pr 311.4}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주 명백하고 확신 있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줄기차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Pr 311.5}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시며 그에게는 변역하심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의 은총을받을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렘 14:21)라는 가장 귀한 기도를 넣어 주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에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Pr 312.1}

그리스도를 표상한 아론처럼 우리의 구주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시고 들어가신다(출 28:29 참조).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는 늘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신다. {Pr 312.2}

그분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받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주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으니 내가 열기를 원치 않노라"는 말씀으로

핑계하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밤중에 굶주린 영혼을 먹일 떡을 구하는 자들은 받게 될 것이다. {Pr 3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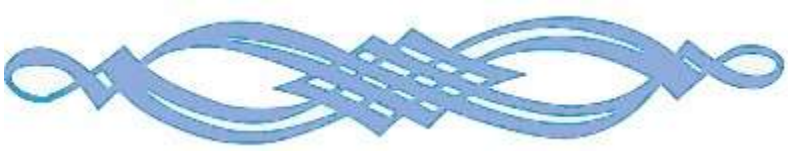
비유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사람은 "소용대로" 받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엡 4:7)주실 것이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죄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될 말을 기억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해 주게 한다. 이와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내세의 생명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와 의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Pr 312.4}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Pr 313.1}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Pr 313.2}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고후 4:6)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 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Pr 313.3}

[이 장은 실물교훈 139-149 페이지에 나타난다.] {Pr 313.4}



32 장 믿음과 기도*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Pr 314.1}

선한 의욕과 포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얻는 생명만이 참된 성장과 실력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Pr 314.2}

어떻게 믿음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허락에는 어디에나 조건이 있다. 우리가 만일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힘은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허락 자체에는 무엇이거나 허락하신다는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 8:11) 도토리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허락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Pr 314.3}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선물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이것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하여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 {Pr 314.4}

성경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창조하실 때에는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 33:9).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롬 4:17), 대개 그분께서 그것들을 부르실 때 그것들은 존재하게 된다. {Pr 315.1}

비록 자신은 완전히 무력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전세계의 세력에 대항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생을 보낸 에녹은 믿음을 굳게 잡고, 부패된 세대에서 의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당시의 사람들 - 가장 뛰어난

지식과 체력을 가졌으면서도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사람들을 대항하였고, 홍해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력하고 겁 많은 노예 무리일 뿐이었으나 지상 최대국가의 최강 군대를 대항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왕위의 약속을 받은 목동 다윗은 군주의 자리에서 세력을 굳게 잡고 놓지 않는 사울을 대항하였고,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그 동료들은 보좌에 앉은 느부갓네살에게, 사자들 사이에 던져진 다니엘은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로마 총독까지도 자기들의 의사대로 조종했던 유대인의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처형될 죄인으로 사슬에 매인 바울은 세계 제국의 폭군 네로에게 각각 대항하였던 것이다. {Pr 315.2}

그런 예들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 발전의 역사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다. 왈덴스와 위그노 교도, 위클리프와 후스, 제롬과 루터, 틴델과 녹스, 진센도르프와 웨즐리, 또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권력이나 정치에 대항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입증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참된 귀족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왕의 정통성을 가진 자들이다. 오늘날 청년들은 실로 이 왕통의 일원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Pr 315.3}

믿음은 생애의 작은 일에 있어서도 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요긴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해관계와 직업에서 하나님을 영속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힘은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다. {Pr 315.4}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인생의 행로란 누구에게나 미지의 것이다. 경험에 의하여, 이 행로는 누구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생활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타인은 완전히 들어올 수 없다. 어린아이가 조만간에 자신의 길을 택하고 인생 문제를 영원히 결정지을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려 할 때, 확실한 안내자요 조력자이신 하나님께 아이의 신뢰를 지향시키는 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 {Pr 315.5}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순결과 진리에로 지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유력한 것은 없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합 1:13)시는 것이다. 이 생각은 부패한 애굽에서 요셉의 방패가 되었다. 유혹의 속삭임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9). 믿음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보호되는 것이다. {Pr 316.1}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인식만이, 겁 많은 아이가 갖는, 인생은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라고 하신 것을 기억에 새기게 해야 한다. 산중의 도시에서 엘리사가 경험한 기이한 이야기 - 그와 원수의 군대가 대치하고 그를 두른 하늘 천사들의 군대가 친 거대한 포위 태세에 대한 - 를 읽게 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무장한 수위병과 큰 문들과 쇠로 된 문빗장과 큰 못으로 잠긴 옥문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종을 무사히 인도해 낸 사실을 읽게 하라. 폭풍우에 시달린 병사와 선원들이 노역과 수비와 여러 날 동안의 절식으로 피로할 때에, 심문과 처형을 받기 위해 갇힌 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 나의 속한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행 27:22-24) 하고 용기와 희망에 찬 당당한 말을 하였던 당시의 해상 광경을 읽게 하라. 이 허락을 믿음으로 바울은 그와 같이 있는 자들에게 보장하기를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행 27:34) 하였는데,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같이 탔던 이교도의 병사와 선원들의 생명도 구조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행 27:44). {Pr 316.2}

이런 일들은 다만 우리가 읽고 기이히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 {Pr 317.1}

자신감이 없는 자는 자기를 신뢰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고자 염려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을 뻔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r 317.2}

비행(非行)에 대하여 성급히 분개하는 어린이들에게 믿음은 값진 교훈을 준다. 악에 대항하고 부정에 보복하려는 성질은 흔히 정의감에 불타는 활발하고 정력적인 기질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정의의 영원한 옹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을 모두 처벌하실 것이다. {Pr 317.3}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슥 2:8). {Pr 317.4}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 37:5, 6).{Pr 317.5}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 9:9, 10). {Pr 317.6}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라고 명하신다. 감정적이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복수심이 강한 자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의 앞에 서서 소리 없는 양같이 복수하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보게 하라. 우리의 죄로 찔리우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참고 견디고 남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Pr 317.7}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품성의 모든 결함은 보충되고, 모든 더러움은 깨끗해지고, 모든 결점은 교정되며, 모든 미점은 발달될 것이다. {Pr 318.1}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골 2:10). {Pr 318.2}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Pr 318.3}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기도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Pr 318.4}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한다. {Pr 318.5}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Pr 318.6}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훌륭한 건물의 모형을 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였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밀한 곳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찬란한 이상을 명상해야 한다. 그렇게함으로 우리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성취될 만한 품성의 건물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Pr 318.7}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 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 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종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 행로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사 41:13)고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아침에 있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신선하고 능력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는가! {Pr 319.1}

이런 교훈을 자기가 실지로 배운 사람만이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가르침은 청소년들에게 큰 감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 때때로, 청소년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고, 그리스도께 드리는 봉사에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숭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본다. 과연 선지자 에스겔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진실인가. {Pr 319.2}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 보자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겔 33:30-32). {Pr 319.3}

성경을 좋은 도덕적 교훈의 책으로 생각하여 시대의 사조와 세상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할 경우에만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과, 성경을 사실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와 언어와 사상을 형성하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과는 별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외의 것으로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행동은 청소년들의 회의와 불신을 일으키는 첫째 원인이 된다. {Pr 319.4}

세계는 일찍이 겪어 본 적이 없는 긴장 속으로 돌입하고 있다. 오락에, 돈 모으는 일에, 권력 다툼에, 생존 경쟁에 몸과 마음과 혼을 몰두케 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 이 광란하는 세력의 진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 {Pr 3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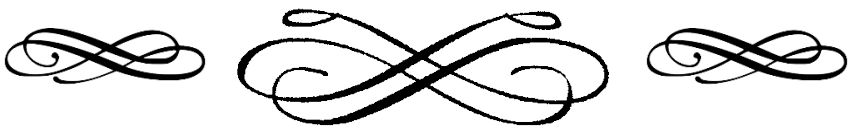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얻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조급하게 한다. 빠른 발걸음으로 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가서 잠깐 동안 그 거룩한 경내에서 쉬는 듯하지만 권고를 받고자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교사와 함께 머물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을 그대로 진 채 일터로 돌아간다. {Pr 320.2}

이런 일꾼은 힘의 비결을 배우지 않는 한 결코 최상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은 지·덕·체의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고상해져야 한다. 이 힘을 얻을 때, 그들에게서는 신선한 생명력이 소생될 것이다. 피로한 몸과 두뇌는 생기를 회복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Pr 320.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교제하는 일이다. 부모와 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아가에 묘사된 경험을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배울 때에, 자녀들과 학생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Pr 320.4}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旗)로구나" {Pr 320.5}

(아 2:3, 4). {Pr 320}

[이 장은 교육 253-261 페이지에 나타난다.] {Pr 320.6}

끝을 기대하면서